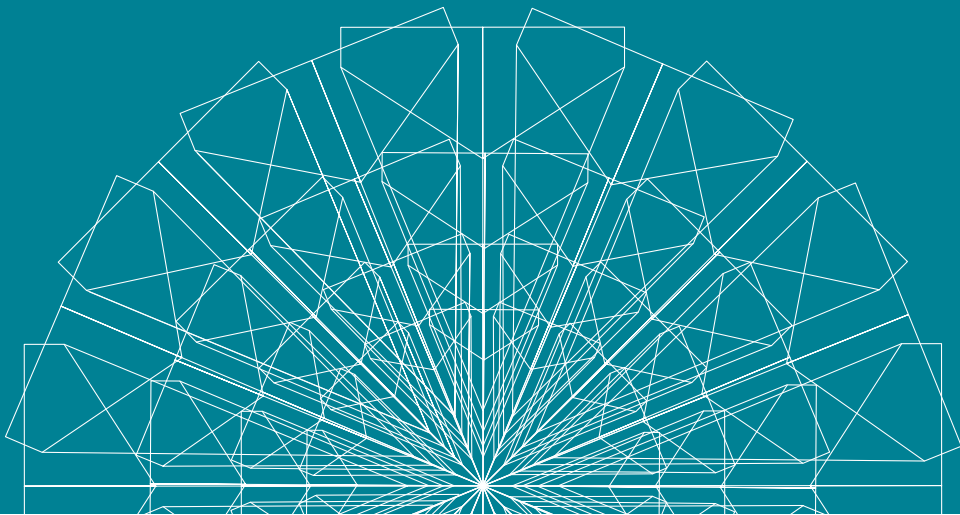




제7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7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신뢰와 용서

Trust and Forgiveness



일시_ 2017. 10. 12 (목) 09:00~17:00
장소_ 가톨릭대학교 International Hub 컨퍼런스룸 (IH366)
주최_ 가톨릭대학교

Date_ Oct. 12 (Thur) 09:00~17:00
Venue_ Conference Room (IH366) International Hub
Host_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목 차

- 04 **초대의 말씀** | 원종철 총장 (가톨릭대)
- 06 **축 사**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서울대교구)
- 10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배경**
- 12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 16 **프로그램**
- 19 **Session 1**
- 사 회 |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
- 발 표 | 정정애 교수 (제5회 BWL 가톨릭 인본주의 상 수상자)
- 27 **Session 2**
- 사 회 |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
- 발 표 1 | Prof. Jove Jim S. Aguas (필리핀 University of Santo Tomas)
“Restoring Trust and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Through Forgiveness”
- 발 표 2 | Prof. Inna R. Edara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Families: A Perspective of Taiwan College Students”
- 발 표 3 | Prof. Yoriko Tatsumi (일본 Seisen University)
“Continuing Challenges,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Cases of Mother- child Evacue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at Spent Three Years in Tokyo”
- 토 론 | 진행 : 신희주 교수 (가톨릭대, 사회학)
- 115 **Session 3 --- 학생참여 프로그램**
- 사 회 | 최선경 교수 (가톨릭대, 학부대학)
- 117 **Session 4 ---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 사 회 |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철학·인간학연구소장)
- 발 표 1 | 이순구 편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가족의 변화과정과 여성”
- 토 론 1 | 정해은 책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 표 2 | 장성규 교수 (건국대, 한국어문콘텐츠전공)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
- 토 론 2 | 안용희 교수 (가톨릭대, 국어국문학)
- 발 표 3 | 권경휘 교수 (영산대, 법학), “혼인계약과 신뢰”
- 토 론 3 | 서종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진행 : 백민정 교수 (가톨릭대, 철학)
- 193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 Contents

- 04 **Message from the President** | Fr. Luke Jongchul Won, Ed.D. (President, CUK)
- 06 **Congratulatory Remarks** |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Benedictus Hee Song Son
- 10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 12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 16 **Program**
- 19 **Session 1**
MC |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Presenter | Prof. Jung-ae Jung (The 5th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Winner)
- 27 **Session 2**
MC |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Presenter 1 | Prof. Jove Jim S. Aguas (University of Santo Tomas in the Philippines)
“Restoring Trust and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Through Forgiveness”
Presenter 2 | Prof. Inna R. Edara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Families: A Perspective of Taiwan College Students”
Presenter 3 | Prof. Yoriko Tatsumi (Seisen University in Japan)
“Continuing Challenges,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Cases of Mother-child Evacue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at Spent Three Years in Tokyo”
Discussion | Moderator : Prof. Heeju Shin (Department of Sociology, CUK)
- 115 **Session 3 ---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MC | Prof. Seonkyung Choi (Catholic College, CUK)
- 117 **Session 4 ---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MC | Prof. Syng-hwan Shin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Presenter 1 | Researcher Soong Le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istorical Changes in Family in the Chosun Dynasty and Women”
Discussant 1 | Researcher Haeun Chu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enter 2 | Prof. Sungkyu Jang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Konkuk University)
“A Study of the Changes of Family Romance Appear in Korean Literature Since 2000”
Discussant 2 | Prof. Yong-hui Ah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UK)
Presenter 3 | Prof. Kyung-hwi Kwon (Department of Law, Youngsan University)
“Marriage Contracts and Trust”
Discussant 3 | Prof. Jonghee Seo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Discussion | Moderator : Prof. Min-jeong Baek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 193 **Themes of the Forum**

| 초대말씀



“제7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The 7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년에 시작된 본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가톨릭 인본주의에 관한 사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신리와 용서 : 가정공동체 수호 및 복원을 위한 헌신”입니다.

포럼 주제에 대한 학문적 심층 논의를 위하여 포럼은 총 4부로 진행됩니다.

제1부에는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賞)은 가톨릭 정신을 사회 안에 확산,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포럼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모범적 삶을 사는 분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분야 수상이 처음 제정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기초강연으로 필리핀 University of Santo Tomas,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일본 Seisen University 등에서 참여한 교수님들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제3부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가톨릭 대학생 토론대회로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진지하게 모색할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제4부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에서는 포럼 주제를 오랜 시간, 깊게 연구해온 국내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가정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정공동체의 수호와 복원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위상과 역할이 도전받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가톨릭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성·지성·영성을 고루 갖춘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종철 신부

원종철



| Message from the President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The 7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is Forum, since its beginning in 2011, has invit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minent figures and leading representatives to share ideas and experiences of Catholic humanism.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is "Trust and Forgiveness: A Commitment to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Family Communities."

To discuss the abovementioned theme in depth, the forum is divided into four sessions. "The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is held in session I. This award, which celebrates its 5th anniversary this year, was established to spread and promote the spirit of Catholicism in our society. The award is bestowed to those who lived an honorable life within the boundaries of forum's annual theme. We have established a student award prize this year, which adds greater meaning to our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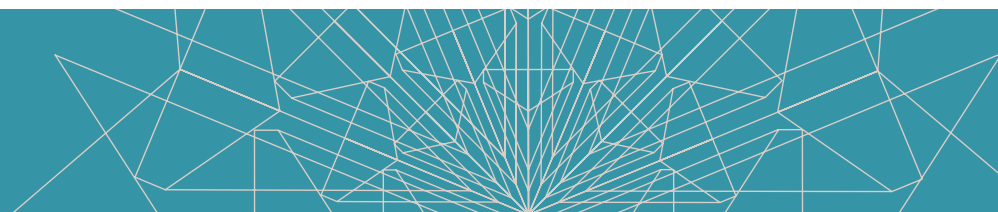
Session II will present keynote speeches from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of Santo Tomas in the Philippines,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and Seisen University in Japan.

Session III will provide a place for voluntary discussion of Catholic students, to share their novel ideas and seek for upright perspectives and values.

Finally, in Session IV, a symposium will be held by the Institute of Anthropology to show th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by domestic scholars who have been studying for extensive periods in the fields that are related to the forum's theme.

This forum will lead to a process of rediscovering the significance of family communities as well as seeking for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family communiti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consider about the ways of restoring families in this modern society where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families are faced with challenges. In addition, the forum will contribute to cultivating ethical leaders with balance of humanity, intelligence and spirituality th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sues. Your participation and support will be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September, 2017
Fr. Luke Jongchul Won, Ed.D.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축사



+ 찬미예수님!

‘버나드 원길 리(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이 일곱 번째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포럼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만, 관심은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길 어르신을 짧게나마 뵈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인 1988년 여름 방학 중에 미국 뉴욕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두 달 반가량 지냈습니다. 그 기회에 이 원길 어르신의 아드님인 이덕호 신부님과 신학교 때 선후배 관계로 만난 인연으로 어르신의택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르신께서 큰 목소리로 유쾌하게 말씀하시던 모습, 든든하고 넉넉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잠깐이라도 만났던 분이었지만, 그분 이름으로 개최되는 포럼이라서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 사회에서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상호 소통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급속히 사라지는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포럼이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수고 덕분에 올해 제7회까지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결실을 맺으려면 땅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땅이 좋으면 뿌려진 씨앗이 쑥쑥 잘 자라듯이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건실하게 성장합니다.

I 축사

건강한 공동체란 구성원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란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이해와 용서로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잘못과 허물을 고칠 수 있도록 경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제재도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관계를 농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농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겨울철의 추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 속 병균이나 해충이 죽어야 다음해 농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씨앗을 싹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부드럽고 따듯한 봄바람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잘못된 사람이 자신 잘못을 고치도록 경고와 제재가 필요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용서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신뢰와 용서가 넉넉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을 잘 믿는 사람은 호인(好人)이란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이용당하기 쉽고, 잘 용서해주면 알아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용서를 실천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와 용서를 실천하려면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뢰와 용서는 진정 강한 것이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가정이야 말로 신뢰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신뢰와 용서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우리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이 심포지엄의 주제범주를 가정 공동체로, 주제를 신뢰와 용서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취지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용서를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데에 작은 실마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손희송

Congratulatory Address

+ Praise be to Jesus!

Congratulations on the 7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is is my first time to be here, but I've had an interest in this forum because of my experience of meeting Wonkil Lee.

In 1988 when I was studying in Austria, I spent about two and a half months of summer vacation in New York to study English. There, Father Paul Lee who is Wonkil Lee's son and a senior in my seminary invited me for dinner. It was a brief meeting with Bernard Wonkil Lee, yet I still remember him speaking in a loud and cheerful voice and giving a strong, yet generous impression. So I'm very pleased to attend the forum named after him.

The forum began in 2011 to help improve communication and restore a sense of community in our society. I understand this forum is intended to deal with a social crisis of losing a sense of community as communication breaks down. Thanks to many people's dedication and support, the forum celebrates its 7th anniversary this year. My thanks to everyone who has worked hard so far.

As it says humans are social animals, we need a community to grow and live as a decent human being. It is like seeds need soil to germinate, grow, and bear fruits. As the fertile soil allows seeds to grow by leaps and bounds, the healthy community makes people become a good person.

In healthy communities, community members trust and respect each other. Those without trust is not healthy despite a huge fortune. Moreover, healthy communities are where people understand and forgive each other's wrong doings and mistakes. Of course, warning or sanctions are also needed to correct their wrong doings if required. But we should forgive them at the same time to give a new opportunity. I'd like to compare it with farming. For a good harvest, the soil needs to get through a bitterly cold winter to eliminate bacteria and pests in the ground. However, what needs for seeds to germinate and grow is a warm spring wind. Similarly, those who did wrong doings need to be warned or appropriately sanctioned to correct their faults, yet forgiveness is necessary for them to start a new life as well.



| Congratulatory Address

To make the community healthy, trust and forgiveness should be ensured.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Koreans engaged in a rat race to trust and forgive others. Gullible people are considered as a good-natured person, but they are often manipulated and deceived. To live up to trust and forgiveness, you may need to get ready to take a little bit of hit.

To fulfill trust and forgiveness in this circumstances, you need to have an unshakable faith, but it does not happen overnight. We have to learn and teach that trust and forgiveness are true power and important values that must be maintained from early on. Family is the best place to learn how important trust and forgiveness are. To make changes to our society, family must be changed first. In this sense, it is great to decide on a theme of family communities and a subtitle of trust and forgiveness.

I hope this forum speak to the heart of people and provide confidence in trust and forgiveness. And it finally serves as a momentum to encourage each family to put the ideas of trust and forgiveness into action,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into a healthy society. I wish the blessing of God on all participants! Thank you.

September 2017

Vicar General Benedictus Hee Song Son

Auxiliary Bishop

Archdiocese of Seoul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의 배경

포럼의 배경

200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교포 기업가 이덕선·이덕형 형제는 본 대학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형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어 간 분으로 회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깊이 간직한 채 삶을 매우 낙천적으로 이끌어간 존경할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사랑, 봉사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것은 진리와 정직, 사랑과 남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인생을 매우 뜻 깊게 살았던 고인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이덕선·이덕형 형제의 기부금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재원으로 Bernard Wonkil Lee Fund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펀드에 기초하여 운영할 포럼을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이란 이름을 부여 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다.

본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제 방향으로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와 책임” 등으로 설정하여 이런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톨릭 인본주의 및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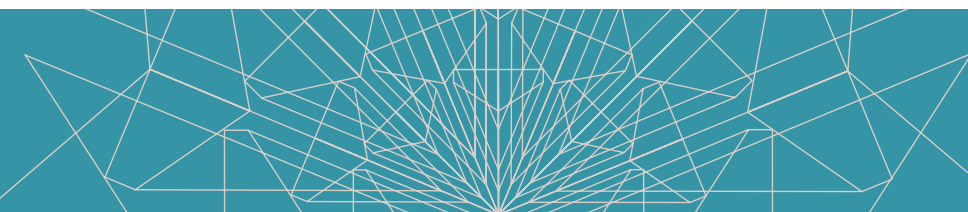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the forum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 based Korean-Americans, dona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its development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as successful businessmen,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They recall their father was a man who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Bernard Wonkil Lee was a respectable man who led an optimistic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faith in God,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Catholic humanism upheld by Bernard Wonkil Lee is consistent with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Catholic University: honesty, love, and service. In other words, the spirits of our university are what he believed in and the way he lived. In this regar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form Bernard Wonkil Lee Fund based on the donation made by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and its consequential profits. And the forum to be hosted by the support of this Fund shall be named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reafter referred as the BWL Forum). The forum shall become a venue for instilling the philosophy of Catholic humanism.

The purpose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bond members of a community.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This forum shall be an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viting renowned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The BWL Forum will be held every year under the general theme of "Mankind and Community." For the first 10 years, the directions of the discussions sha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forum proceeds, the discussions will be intensified and the forums will serve as a venue to look into the philosophy of Bernard Wonkil Lee an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tholic humanism, mankind and community.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자기희생(self-sacrifice)과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self-giving) 삶을 사신 분이다. 그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사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개척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확고부동하고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Maryland주 Gaithersburg에서 2001년 11월 4일 84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큰 아들 이덕선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의 아버님께서서는 불치의 낙천가 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낙천주의,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희망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항상 작은 크든 간에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고 이 세상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현재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바른 말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 사냥꾼, 낚시꾼, 아마추어 엔터테이너, 그리고 준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꿈을 꾸는 개척자였으며, 무엇인가 일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선 튼튼한 가톨릭 성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톨릭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향 동네의 문맹을 퇴치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는 깃발을 천수답으로 변경하여 수백 가정의 주민들에게 농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물잔의 반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이 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과 나누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Bernard Wonkil Lee lived a life of self-sacrifice and self-giving. He lived the life of a happy man, he was a positive thinker, and he was a pioneer in spirit and deeds.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deep, unshakable Catholic faith. He died on November 4, 2001 when he was 84 years old in Gaithersburg, Maryland.

His eldest son, Dr. Matthew Duksun Lee, says whenever he thinks about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what comes to his mind first is his father. He remembers:

“My father was an incurable optimist. His life was the epitome of optimism,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My father was indeed a happy man who enjoyed his life on this earth to the fullest. He enjoyed the present. He appreciated what he had and never complained about what he didn’t have. He was a person of impeccable integrity and honesty. He was never afraid to speak the truth and express his true feelings. He was a farmer, a hunter, a very good fisherman, an amateur entertainer and a paramedic among other things. He was a dreamer, a pioneer, a builder of all things and a leader. But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faith.

My father had many accomplishments in his lifetime. He built a strong Catholic family. He built three Catholic communities. He eliminated illiteracy in our hometown. He fed the hungry. He created farmland for hundreds of people by converting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How did he do all those things? It was possible because my father was an optimist and positive thinker, and he had faith in God. For him the cup was always half full, not half empty. His whole life was about faith. It was about sharing and giving. It was for other people not just for himself.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고 배운 아버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양육된 것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훌륭한 가정교육과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 삶의 기초가 된 매우 귀중한 가치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의 아들이 된 특권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수 있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남에게 잘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1917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황해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8년 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연안 반도에 있는 갈인재라고 불리는 조그만 어촌 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을 탈출하여 강화군 교동도에서 1954년까지 3년을 살았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과 그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땅이 되어버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맏아들인 마태오 이덕선, 셋째 아들 베드로 이덕성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머지 가족과 함께 198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아들과 딸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의 소명을 계속하였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의 가족은 Maryland주 Potomac의 매우 아름다운 곳에 수녀원을 지어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라는 수녀회에 기증하였다.

그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19명의 손녀, 손자, 증손녀와 증손자들을 남겼다. 그의 다섯째 아들인 바오로 이덕효 신부는 현재 워싱턴 대교구의 신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부인 황 수산나는 2015년 9월 97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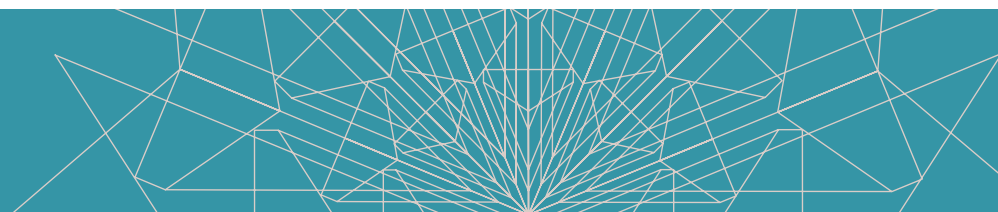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se are the things that I have witnessed and learned from my father. I am very fortunate that I was born and raised by happy, generous and loving parents. I attribute whatever I have accomplished to my upbringing, especially to my father. He has instilled in me those priceless valu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my being. I am thankful for the privilege of being my father's son. I learned everything from him. He taught me how to become a happy person and remain a happy person. He taught me how to be a positive thinker and a positive person. He told us to be always good to others.”

Bernard Wonkil Lee was born in the northern part of Hwanghae-do in 1917 but moved to a small seaside village called Karinjae in the Yeonan peninsula when he was a teenager with his mother and sibling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who had built schools and taught in various parts of Hwanghae-do. Mr. Lee and his family had to flee from his hometown during the Korean War and lived in Gyodong-do for three years until 1954.

Mr. Lee and his family moved to Seoul as he could not return to his hometown because it became a part of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He lived there until the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8 to join his sons, Matthew and Peter. He spent some of his happiest years there. Although he was retired, he helped his sons' and daughter's businesses, caring for his grand children but more importantly continuing his vocation of helping people in any way he could. In his memory, his family has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on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He is survived by his five sons, one daughter, their spouses, and his nineteen grand and great grandchildren. His son, Fr. Paul Lee, is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His wife, Susanna Hwang, passed away on September, 2015, at the age of 97.



프로그램

2017년 10월 12일(목)

제1세션 (IH366)		
9:30~10:50	사 회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
	개막식	
	환영사	원종철 총장 (가톨릭대)
	축 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서울대교구)
	영 상	이원길 선생의 삶
	발 표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수상자 연설
		정정애 교수 (가톨릭관동대)

제2세션 (IH366)		
11:00~12:50	사 회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
	발표 1	Restoring Trust and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Through Forgiveness Jove Jim S. Aguas 교수 (필리핀 University of Santo Tomas)
	발표 2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Families: A Perspective of Taiwan College Students Inna R. Edara 교수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발표 3	Continuing Challenges,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Cases of Mother-child Evacue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at Spent Three Years in Tokyo Yoriko Tatsumi 교수 (일본 Seisen University)
	토 론	신희주 교수 (가톨릭대, 사회학)

제3세션 학생참여 프로그램 (IH366)		
13:00~14:50	사 회	최선경 교수 (가톨릭대, 학부대학)
	대 회	제7회 가톨릭대학생 토론대회
	시 상	토론부문, 사회부문

제4세션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IH267)		
14:00~16:50	사 회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철학)
	발표 1	조선 가족의 변화과정과 여성 이순구 편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토론 1	정해은 책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2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 장성규 교수 (건국대, 한국어문콘텐츠전공)
	토론 2	안용희 교수 (가톨릭대, 국어국문학)
	발표 3	혼인계약과 신뢰 권경희 교수 (영산대, 법학)
	발표 3	서종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백민정 교수 (가톨릭대, 철학)

Program

October 12 (Thur), 2017

Session 1 (IH366)		
09:30~10:50	MC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Opening Ceremony		
Welcome Address		Fr. Luke Jongchul Won, Ed.D.
Congratulatory Remarks		Auxiliary Bishop, Vicar General Benedictus Hee Song Son
Video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ward Ceremony The 5 th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Winner Announcement		Prof. Jung-ae Ju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ession 2 (IH366)		
11:00~12:50	MC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Presenter 1	Restoring Trust and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Through Forgiveness	Prof. Jove Jim S. Aguas (University of Santo Tomas in the Philippines)
Presenter 2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Families: A Perspective of Taiwan College Students	Prof. Inna R. Edara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Presenter 3	Continuing Challenges,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Cases of Mother-child Evacue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at Spent Three Years in Tokyo	Prof. Yoriko Tatsumi (Seisen University in Japan)
Discussion		Prof. Heeju Shin (Department of Sociology, CUK)
Session 3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IH366)		
13:00~14:50	MC	Prof. Seonkyung Choi (Catholic College, CUK)
Contest 7 th CUK Students Debate Contest		
Award Ceremony Announcement of Winners		
Session 4 Symposium hos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IH267)		
14:00~16:50	MC	Prof. Syng-hwan Shin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Presenter 1	Historical Changes in Family in the Chosun Dynasty and Women	Researcher Soongu Le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iscussant 1		Researcher Haeun Chu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enter 2	A Study of the Changes of Family Romance Appear in Korean Literature Since 2000	Prof. Sungkyu Jang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Konkuk University)
Discussant 2		Prof. Yong-hui Ah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UK)
Presenter 3	Marriage Contracts and Trust	Prof. Kyung-hwi Kwon (Department of Law, Youngsan University)
Discussant 3		Prof. Jonghee Seo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Discussion		Prof. Min-jeong Baek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Session 1

제5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수상자 | **정정애 교수**

The 5th Annual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Winner | **Prof. Jung-ae Jung**

사 회 자 윤 정 우



윤정우 교수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Prof. Christine Y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and Media Contents, CUK)

■ 주요경력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조교수
-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 Design 주립 미술대학 (Vancouver, Canada) 강사
- DKNY Home, Kate Spade Home(New York City) 디자이너
- Marc Rosen Associates(New York City) 디자이너
- Pratt Institute, Packaging Design(New York City) 석사

수 상 자 | 정 정 애



정정애 벨라벳다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가정공동체 수호, 생명사랑, 행복한 가정운동 실천가
- 가톨릭관동대학교 상담교수
- 수련감독급 상담심리전문가
- 부모교육 전문가(예비부모, 한부모, 다문화부모)
- 1군사령부 강원군상담연구회 지도교수
- 강원도척수장애인협회 자문교수

■ 주요 업적

- 2017년 군간부상담교육재능기부 감사장(제1야전군사령관)
- 2017년 군장병, 군간부상담 및 전문가양성 재능기부 감사장(사.한국군상담학회)
- 2016년 척수장애인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재능기부 감사장
(강원도척수장애인협회)

수상소감 발표문

정 정 애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아이들이 좋아서 낳고 기른 것이 특별히 상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는 제가 혼자 낳아서 양육한 것이 아니고 자녀 출산을 함께 한 남편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해주신 시어머니(故 김정숙 바울라)가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제가 넘겨지지 않은 살림과 대가족 속에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공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분들이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 시대적 인본주의

제가 혼배성사를 하던 1982년 그 때는 인구증가와 빈곤으로 산아정책을 심하게 하던 시절이었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17년간 4남 3녀를 출산, 양육하였습니다. 당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에서는 셋째이후 자녀의 출산 시 의료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대책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느냐며 수군거리는 이웃의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앙의 힘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대를 역행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7남매를 기쁘게 출산, 양육할 수 있었던 힘은 생명의 신비와 생명존중의 하느님께 대한 신뢰였음을 고백합니다.

2. 신앙적 인본주의

중학교 1학년 때인 1984년 성모승천대축일에 세례를 받은 이후 줄곧 신앙생활을 해왔고 혼인성사 이후 성서공부와 레지오마리아, 재속프란치스칸으로 지금껏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조하면서 사랑과 인간존중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혼배성사를 할 당시 시대에는 투병을 하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 둘, 시누이와 이혼한 시숙의 조카들 세 명을 포함하여 모두 열명이었던 식구가 지금은 본인의 자녀 일곱명과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열 식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30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손주들을 애지중지 키워주신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이들은 지금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7남매는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라고 할 때 유감없이 기쁘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적 인본주의

시골의 넉넉지 못한 가정의 6남매 중 넷째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과 공부를 병행 하던 중 교우인 남편을 만나 혼배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결혼생활과 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사가 되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염원 하던 중 막내가 세 살 되던 해 마흔이 넘어서 대학원을 진학, 소원하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부모와 환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인간행동의 이해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소중히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제각기 독특한 기질과 유전인자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특별하게 형성된 인격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우 나약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바람직한 인격을 소유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함을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중요성, 돌봄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군부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줄곧 교육과 심리상담의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올해 3월 모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상담센터의 상담교수로 임용되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역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이것은 공동선을 위한 아주 작은 몸짓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저의 작은 몸짓을 눈여겨 보시고 이 원길가톨릭인본주의상에 적극 추천을 해주신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님이신 송숙자 센터장수녀님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 2

Restoring Trust and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Through Forgiveness | **Prof. Jove Jim S. Aguas**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Families | **Prof. Inna R. Edara**

Continuing Challenges,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 **Prof. Yoriko Tatsumi**

발 표 자 Jove Jim S. Aguas



Prof. Jove Jim S. Aguas
(University of Santo Tomas in the Philippines)

■ EDUCATION

- Graduate Studies:
 - Master of Arts in Philosophy
 -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anto Tomas
 - Manila, March, 1991 - Benemeritus (Magna cum laude)
 - Doctor of Philosophy
 - UST Graduate School
 - Manila, March, 1995 - Benemeritus (Magna cum laude)
- College:
 - Bachelor of Arts/ Bachelor of Philosophy
 - Licentiate in Philosophy - Cum Laude
 - Ecclesiastical Faculties, University of Santo Tomas
 - Manila, March, 1987

■ TEACHING EXPERIENCE

- Full Professor V (August 2016)
- Full Professor III (June 2010)
- Full Professor II (June 2009)
- Full Professor I (June 2007)

- Associate Professor III (June 2006)
- Associate Professor II (June 2002 – 2006)
- Associate Professor I (June 2000 – 2002)
- Assistant Professor II
College of Commerce, University of Santo Tomas (June 1995)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anto Tomas (June 1995 – 2000)
- Instructor IV
College of Commerce, University of Santo Tomas (June 1992 - May 1995)
- Instructor I
College of Commerce, University of Santo Tomas (Nov. 1988 - March 1992)

■ PUBLICATIONS

- Local Journals
 1. The Dasein and Yaon: Preliminary Reflections. HINGOWA, The Holy Rosary Seminary Journal vol. VII no. 1. October, 2002. Holy Rosary Seminary, Naga City, 2002.
 2. Character Formation: A Challenge to Educational Institutions. KARUNUNGAN A Journal of Philosophy. Vol. 19, UST Publishing House, Manila, 2003.
 3. Affirming the Human Person and Human Dignity: A Rereading of Aquinas. UNITAS, vol. 75 no. 4. December 2002. UST Publishing House, 2002.
 4. Politics and Postmodernism. Ad VERITATEM. Multi-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of the UST Graduate School. vol 2, no. 2, March 2003, Manila: UST Graduate School, 2003.
 5. “Aquinas and Wojtyla on Human Person and Dignity” in Budhi: A Journal of Ideas and Culture. Vol. xiii, no. 1, 2, 3, 2009.
- International Journals
 1. “Promoting Human Dignity in a Culture of Violence,” in Philosophy, Culture and Traditions. Vol 3, 2005, p. 63.
 2. “Religious Pluralism and Freedom of Religion” in Journal of Dharma: International Quarterly of World Religions and Philosophies. Vol. 31, no. 1, Jan-Mar 2006.
 3. “Preserving Asian Cultural Identities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in Prajña Vihara: Journal of Philosophy and Religion, Vol.7, No.1 (Jan-Jun 2006) p. 123-150
 4. “The Incompatibility of God’s Existence and Human Freedom: Sartre’s Existential Atheism” in Philosophia: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Vol. 36, no. 1 Jan. 2007.

5. "Cultural Pluralism and Cultural Dialogue." *Melintas* 23, no. 3 (December 2008): 369-83.
6. "Emerging Realities and Their Impact on Cultural Values and Identity" in *Annals of the University of Bucharest: Philosophy Series*, 2015, Number II, pp. 45-66.

- Online Article

1. "The Notions of the Human Person and Human Dignity in Aquinas and Wojtyla," in *Kritike: An Online Journal of Philosophy*, vol. 3, No. 1 (2009) ISSN: 1908-7330.
2. "Ethics and Moral Philosophy of Karol Wojtyla," in *Kritike: An On-line Journal of Philosophy*, vol. seven, number 1. (June, 2013) (pp115-137) ISSN 1908-7330. http://www.kritike.org/journal/issue_12/aguas_june2013.pdf
3. "Back to Nature and Moral-Spiritual Rediscovery: Lessons from Lao Tzu and St. Augustine on Human Conduct in Modern Society " in *Kritike: An Online Journal of Philosophy*, vol. 9, No. 1 (June, 2015), 96-107. ISSN: 1908-7330.

- Book Articles

1.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Inter-religious Dialogue: Keys to World Peace," in *The Role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in Promoting World Peace: An Asian Perspective*, (edited by Imtiyaz Yusuf. Singapore: Konrad Adenauer Stiftung, 2007), pp. 91-104.
2. "Cultural Pluralism and Cultural Dialogue." in *Overlapping Territories: Asian Voices on Culture and Civilization* (ed. by Bambang Sugiharto & Roy Voragen. Newcastle upon Tyn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1), pp. 105-118. ISBN (10): 1-4438-2999-4, ISBN (13): 978-1-4438-2999-1

■ **AWARDS**

- Dangal ng UST, Hall of Fame Award, 2016.
- Dangal ng UST, Gawad San Alberto Magno as Best Researcher in the Humanities in 2015.
- Dangal ng UST, Gawad Santo Tomas as Best Professor in 2014.
- Distinguished Faculty Award. UST Graduate School, 2014.
- Finalist Dangal ng UST, Gawad Santo Tomas as Best Professor in 2012.
- Dangal ng UST, Gawad Santo Tomas as Best Professor in 2010.

RESTORING TRUST AND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THROUGH FORGIVENESS

Jove Jim S. Aguas, Ph.D.

Center for Religious Studies and Ethics

University of Santo Tomas, Manila, Philippines

Introduction

The modern family is faced with different challenges both from the outside and the insid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constantly test the bond and unity of the family. But there are internal factors like infidelity, marital and parental abuse, and abandonment, just to name a few that also pose challenge to the unity of the family. Hence, from a union built on love and trust of the spouses and the loving care between parent and children a family may slowly lose its original unity until eventually it disintegrates. But the trust and the original unity of the family can be restored if there will be forgiveness in the family.

The Family in the Context of God's Plan and as Community of Persons

The family is best understood and appreciated in the context of God's plan for His creation. God created the world and man out of His infinite love.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 Based on this the first human relation or community of person is man and woman. This first community of person established the unity of marriage and its consequent - the indissolubility of marriage. Based on the union of man and woman through marriage the family is established.

The family is a community different from other communities in the sense that the family is a conjugal community which is established upon the consent of the spouses. Marriage is a relation based on the love between the man and the woman. Marriage however is not just for the expression of love, it is also ordained for procreation of children hence marriage is the basis of family. This procreative character of marriage becomes the foundation of family. “A man and a woman united in marriage,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form a family.” Marriage and family then are intimately and fundamentally connected, because of the love between man and woman marriage is formed and because of the conjugal union resulting in that love, children are procreated and the family consequently is formed.

When God instituted the human family through marriage He endowed it with its fundamental constitution – that of being a community of persons. The members of the family are all human persons and as such they all enjoy dignity because person they are all created in God’s own image and likeness. The community of persons in the family is also a reflection of the communion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St. John Paul II stresses in *Familiaris Consortio* that in matrimony and in the family a complex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set up-married life, fatherhood and motherhood, filiation and fraternity-through which each human person is introduced into the “human family” and into the “family of God”, which is the Church.

The Family as a Community of Love and Trust

The love between the husband and wife reflects God's love for humanity. When God commanded the man and the woman to "go and multiply," he did not only command them to beget children but also to love and trust one another. The procreation and education of children the family reflects the God's work of creation which allows the parent to participate in the creative work of God and become co-creator of God. In marriage and family we recognize the love and trust of God to man as manifested in the love and trust of the spouses for one another and the love and trust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and between or among the siblings or children.

The love and trust in the family is expressed in the closed famil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spouses,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nd between or among the children. This love and trust in the family is based on their being human who are endowed with reason and emotions through which they are 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sentiments. Through the sharing of thought and common deliberation by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y are able to achieve a common good of the family - the proper upbringing of children.

Premised on the love and trust of each member for one another and on common welfare and good of the family each member of the family has duties to each other. It is the duty of children to honor and respect their father and mother. This is clearly expressed in the fourth commandment which states that "thou shall honor they father and mother." The respect of children for their parents whether minors or adults for their father and mother is nourished by the natural affection born of the bond that unites them. Filial respect promotes harmony in all of family life.

The Family in the World of Toda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world of today without referencing it to the secular ideals that prevail in the modern societies. The secular ideals have impacted on the many aspects of human life, in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but the challenge of secularization is very much felt in the realm of religious and spiritual values. And since we understand marriage and family as having spiritual foundation and religious significance then the secular ideals also pose challenges to marriage and family. This particular challenge is manifested in the attempts to redefine the meaning of marriage and family and to set up laws that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marriage as the union of man and woman and the composition of the family based on this union. We live in a world where there is ambivalence in our values especially in the expression of personal freedom. Many philosophies express the importance of freedom and self-expression and man is faced with the difficulty of valuing his freedom and recognizing the limit of that freedom and the responsibility attached to it. While there is now a greater recognition of freedom and self-expression there is also over valuing of it to point that the responsibility attached to it is no longer recognized. St. John Paul II noted that “there is a more lively awareness of personal freedom and greater attention to the qu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arriage, to promoting the dignity of women, to responsible procreation, to the education of children.” On the negative side however what happens is instead of man embracing this love and nurturing it man ignores and refuses this love which is the basis of the family. Man instead of focusing this love for the others has focused such love more to himself.

The excessive love of the self has turned self-affirm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to an egoistic autonomy that is focused only of self –interest and ignores the welfare of others. Man has corrupted the very idea of freedom and self-expression and affirmation. This attitude has resulted into the degradation of some fundamental values which are the basis of marriage and family like a mistaken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cept of the independence of

the spouses in relation to each other; serious misconcept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author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growing number of divorces and abortion and contraceptive mentality.

In this context the modern family is faced with different challenges both from outside and insid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constantly test the bond and unity of the family. But aside from the external factors there are internal issues and matters like - infidelity, marital and parental abuse, and abandonment, spouse separation, drug abuse in the family just to name a few that also pose challenges to the unity of the family. Hence, from a union built on love, respect, trust between the spouses and the loving care between parent and children the family is slowly losing its original unity until finally it disintegrates.

Brokenness in the Family

One problem that the family faces today is increasing number of broken families. These broken families are often the result of separation or divorce by the parents. But brokenness in the family is not always the result of the separation or divorce by the parents because brokenness in the family can also be experienced even when the parents still live together. Brokenness in the wider sense could be understood as the loss of love and trust and the sense of togetherness or sense of community in the family. What was originally a community based on love and trust because of certain factors sometimes result to separation, divorce and to brokenness. As a human community composed of person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attitudes, motives and other personal differences some families are unable to cope with these differences not are often the cause of conflicts in the family. Interpersonal conflicts are almost inevitable within families because of these personal differences. The differences among family members in their personality, desires, values, abilities, etc., could lead to conflict and turmoil. Family members are often deeply hurt in the course of their conflicts and sometimes there is a significant breach of trust.

The brokenness of the family can be attributed to many external factors like economic, social factors. But the more critical factors are what happened inside the family that is, the internal conflicts and problems and struggle inside the family because they undermine the very basic values upon which the family is established, namely, love, trust, respect, care, etc. Infidelity between the spouses is often the cause of brokenness in the family. When one of the couples cannot fulfill the vow or promise of love and fidelity expressed in matrimony the marriage is often affected which could lead to separation or divorce. Marital and parental abuse is also a cause of separation. Marital abuse can cause great harm on the marriage and although the abused spouse remains in the marriage such marriage in the long run will eventually fail. Parental abuse is often the cause of children running away from home and staying outside of the family. Children who do not feel the love of their children will most likely leave the home and be involves in juvenile delinquencies. Abandonment by one of the parents could possible lead to the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especially if the parent who abandoned the family is the bread winner. Spouse separation because of some psychological or personality problem in one of the spouses is also a cause of the brokenness of the family. Drug abuse in the family especially if the one affected is either of the parents could also lead to brokenness.

Forgiveness in the Family

Forgiveness can be understood as principled decision to give up one's justified right for revenge or retribution; it is an act of compassion that can potentially bring resolution and freedom to both parties and can prevent the pain of the past from defining the path of the future. After an injury or wrongdoing and the subsequent emotional or physical pain the offended person instead decides to let go and pardon the offender and cancels his justified right get back on the offender.

The trust and original unity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can still be restored if the family learns to forgive or if there is forgiveness in the family. Forgiveness can restore the love, trust, care and generosity in the family if the offender learns how to ask for forgiveness the offended member learns how to forgive. Pope Francis said that we cannot live without seeking forgiveness, or at least, one cannot live at peace, especially in the family. We wrong one another every day. We must take into account these mistakes, due to our frailty and our selfishness. However, what we are asked to do is to promptly heal the wounds that we cause, to immediately reweave the bonds that break within the family. But what would be the elements of forgiveness?

Forgiveness is the recognition of human frailty. Human as we are we are imperfect and there will be moments of weakness or times when we cannot control our emotions and therefore may cause injury or harm on another person. As humans we are fallible and capable of wrongdoing and in most cases are wrongdoing affect people especially those that we love. Pope Francis pointed out that because we have egos and are fragile, sometimes we make mistakes, therefore we must heal the wounds caused by our mistake and must not wait too long to do so. In forgiveness we realize this frailty or fallibility especially on the part of the offender that the offender is human after all and he also realizes his or her own frailty, that he or she is also human and also commits mistakes. A parent realizes that his or her child is human and bound to commit mistakes; a husband realizes that his wife is human and bound to commit mistake and vice versa.

Forgiveness requires accountability of the offender. As moral agents we are accountable for our ac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While accountability may not be a condition for forgiveness, forgiveness does not mean the offender should no longer be hold accountable for his actions or lack of actions and its consequence. In the family parents may forgive their children even if their children do not accept or express any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in their actions, this may be because of the deep love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or simply because the child maybe too young to fully understand the extent of the consequences of his action and his consequent responsibility. Adults however must accept this responsibility.

Forgiveness involves humility of the offender. Forgiveness entails not only accountability; it also entails most especially humility on the part of the offender. The offender aside from accepting his or her responsibility must humble himself to the offended person. It is humility that will enable the offender to say sorry or apologize for the wrong he or she has done. In the family therefore the virtue of humility must be cultivated because it is the virtue of humility that motivates the person not to cause injury or harm on others and if ever he cause pain or injury he or she at once realizes his or her mistake or offense will humble himself or herself and ask for forgiveness. But humility must also involve remorse for the offense committed or for the injury caused on the other.

Forgiveness is emotional. Offense or wrong doings most of the time involve or cause hurt or pain and even anger and injury on the part of the offended. There is a concomitant emotion in any offense or wrongdoing. Parents will most like be hurt or even angry by a wrong doing of their children and vice versa. A wife will be deeply hurt or angered by infidelity of her husband and vice versa. Hurt or pain and anger are forms of emotion and therefore forgiveness will always involve some kind of emotion. Forgiveness may be possible once these negative emotions start to disappear.

Forgiveness is based on attitude. Although forgiveness is emotional because it is somehow dependent on the easing of negative emotions, forgiveness is also based on our attitude. The negative emotions may no longer be present but if the right attitude is not yet present then forgiveness will remain impossible. Therefore to forgive will always require the right attitude on the part of the offended person. Parents who have a positive and right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will find it easy to forgive them. A wife who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her husband may take some time to forgive her husband.

Forgiveness is a conscious decision or choice. Forgiveness is a conscious act and choice which is determined by the offended person. While the offended person may be convinced by others persons to forgive, forgiveness will always be a conscious and self-determined act and decis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forgive in the place of another person. When a child is offended by his or her sibling forgiveness cannot be given by the parents in his or her behalf. A husband who has offended his wife cannot ask forgiveness from their children. Since it is the wife who was offended it will be the wife who must forgive.

Forgiveness involves empathy of the forgiver or offended person. Forgiveness also requires a degree of empathy or compassion, that ability to place oneself in the place of the other or to feel how the other feels. While humility is required from the offender empathy is required from the offended person. When the offender shows humility, it is empathy that will allow the offended person to feel how the offender feels and be compassionate to him or her. In the family it is the empathy of parents that will enable them to forgive a remorseful child. So empathy is one virtue that must be formed in the family, because in a family where there is empathy wrongful action that can cause pain or injury can easily be avoided.

Forgiveness must lead to reconciliation. Forgiveness could lead and it should lead to the restoration of fractured or broken relationships by overcoming the negative emotion like hurt or pain and anger. Genuine forgiveness should lead to reconciliation, that is, the restoration of the broken relationship in the family.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overcomes the negative emotions of pain and anger and can restore the original unity of the family.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While forgiveness may not always lead to reconciliation but if the unity and harmony in the family is to be desired then forgiveness must lead to reconciliation. There may be some good reasons not to reconcile with the offender but in the family there must be reconciliation if only to restore it back to its original unity or harmony. So reconciliation is a decision and an act aimed at restoring the good relations or togetherness and the positive emotions in the family. Reconciliation while based on forgiveness aims at restoring the good relationship in the family. Just like forgiveness reconciliation will require the understanding although in different degrees of some of the elements of forgiveness, like the understanding of human frailty, accountability, humility, emotion, attitude, decision, and empathy. While forgiveness is a unilateral decision or act, reconciliation is a mutual decision and act and therefore will involve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of forgiveness.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both parties understand and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cognition of human frailty, accountability, humility, emotion, attitude, decision and empathy. Reconciliation may take mutual acknowledgement of past mistakes or pain, the understanding of negative emotions, the mutual effort to prevent destructive attitudes and behavior and make a mutual commitment toward overcoming conflict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restore the good relationship.

Forgiveness Based on Love and Respect

Forgiveness must be based on the foundation on which marriage and family are instituted – love and respect of the human person. According to St. John Paul II the family is founded and given life by love. Love is that inner principle, the permanent power and the final goal of the task of the family to live as authentic community of human person. Without love the family is not a community of persons and, in the same way, without love the family cannot live, grow and perfect itself as a community of persons.

Forgiveness must also be based on respect for the human person. Filial respect promotes harmony in all of family life. Such respect must be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pouses, parents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Respect toward parents fills the home with light and warmth. The first responsibility of parent is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they bear witness to this responsibility first by creating a home where tenderness, forgiveness, respect, fidelity, and disinterested service are the rule.

The Family as a Training Ground for Forgiveness

Pope Francis stressed that the family is a great training ground for the mutual giving and forgiving without which no love can last for long. Without self-giving and seeking forgiveness love does not last, it does not endure. The family although constituted on the basis of love and trust cannot endure the many challenges it encounters both externally and internally if there is no mutual giving and forgiving. It is significant therefore to make the family as a place where forgiveness is practiced so that the children will learn and form this virtue and attitude.

Concluding Remarks: Forgiveness, Trust and Unity in the Family

In the human relations trust like respect and other attitudes must be earned and developed. In the family this becomes one of the corner stones of a healthy and harmonious relationship. There must be complete trust between the spous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among or between the siblings. But once it is broken it is more difficult to re-establish or restore trust in the family after a wrongdoing or injury especially if the hurt or pain is grave or deep. However, through humility, accountability, sensibility, empathy and honesty that trust can be earned so that the original unity in the family can be restored. Family as a community of person based on love, trust, respect and care can only be

preserved and perfected through generosity, humility and openness that enable each family member to ask and give forgiveness allowing it to restore broken relationships. Every family is called by the God to forgive, trust and reconcile with one another restoring the bond and unity and re-establishing the community to its original status.

용서를 통한 가족의 신뢰와 본연의 연합 회복

Jove Jim S. Aguas, Ph.D.

Center for Religious Studies and Ethics

University of Santo Tomas, Manila, Philippines

서론

현대 가족은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은 가족의 유대와 연합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불륜, 배우자와 부모 학대, 유기 같은 내부적인 요인도 가족의 연합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가족은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 부모자식간의 애정 어린 보살핌을 토대로 형성된 유대에서 서서히 본연의 연합을 잃고 결국 붕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에 용서가 있다면 가족의 신뢰와 연합은 회복될 수 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인격 공동체로서의 가족

가족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평가된다.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기 1:27) 이에 기초한 최초의 인간관계 혹은 인격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이다. 이 최초의 인격 공동체는 결혼의 결속성과 그에 따른 결혼의 영구성을 확립했다. 가족은 결혼을 통한 남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은 배우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부부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공동체이다.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토대로 한 관계이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산을 위해 명해지므로 결혼은 가족의 근간이다. 이 결혼의 생산적 성격은 가족의 토대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맺어져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룬다.” 그래서 결혼과 가족은 긴밀하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부부의 결합은 사랑을 낳아 자녀를 생산하고 그 결과 가족이 형성된다.

하느님께서 결혼을 통해 인간 가족을 만드셨을 때 근본 규범, 즉 인격 공동체를 이루는 규범을 함께 부여하셨다. 가족 구성원은 모두 인격이므로 모두 존엄성을 누린다. 인격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가족 내 인격 공동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을 반영하기도 한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에서, 결혼과 가족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인간관계의 복합체가 형성되고, 각각의 인격은 그 관계를 통해 “인간 가족”과 “하느님의 가족”, 즉 교회로 편입된다고 강조한다.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가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자식을 얻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가족 내에서 자녀의 생산과 교육은 부모가 하느님의 창조를 그대로 비추어, 부모가 하느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공동 창조자가 된다. 결혼과 가족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신뢰를 깨닫고, 이는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사랑과 신뢰에 그대로 나타난다.

가족 내의 사랑과 신뢰는 배우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 사이의 폐쇄적 가족관계에서 표현된다. 이 가족 내 사랑과 신뢰는 이성과 감정을 부여 받은 인간의 존재에 기초하며, 이를 통해 기분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사상과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공동의 이익, 즉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성취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전제로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는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에 명시되어 있다. 자녀가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자녀의 부모 공경은 서로를 이어주는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자연적인 애정을 자양분으로 한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가정의 화합을 도모한다.

현대 세계의 가족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적인 이상을 언급하지 않고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세속적인 이상은 사회, 정치, 문화에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지만 세속화 문제는 종교와 영적 가치의 영역에서 주로 많이 감지된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을 영적인 기초와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므로 세속적인 이상도 결혼과 가족에 문제가 된다. 특히 이 문제는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남녀의 연합과 이 연합을 근간으로 한 가족의 구성으로서 결혼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법을 정립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가치에 양면성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자유의 표현에는 양면성이 있다. 수많은 철학에서 자유와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인간은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의 한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자유와 자기 표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확대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대평가되어 자유에 따른 책임은 의식의 저편으로 밀려나고 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결혼 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질, 여성의 존엄성, 책임 있는 출산, 아동 교육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적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의 근간인 사랑을 포용하고 보살피는 대신 무시하고 거부한다. 인간은 이 사랑을 타인에게 베푸는 대신 자신에게 베풀었다.

지나친 자기애는 자아확인과 자아결정을 이기적인 자율로 변화시켰고, 사사로운 이익에만 치중하고 타인의 행복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은 자유와 자기 표현과 긍정의 개념을 변질시켰다. 이러한 태도는 배우자의 독립성에 대한 이론적·사실적 개념 오해, 부모와 자식간의 권위 관계에 대한 심각한 오인, 이혼과 낙태의 증가, 피임 등 결혼과 가족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의 붕괴를 야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가족은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은 가족의 유대와 연합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그러나 외적인 요인들은 차치하고, 불륜, 배우자와 부모 학대, 유기, 별거, 약물남용 같은 내부적인 요인도 가족의 연합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가족은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 부모자식간의 애정 어린 보살핌을 토대로 형성된 유대에서 서서히 본연의 연합을 잃고 결국 붕괴에 이른다.

가정의 붕괴

오늘날 가족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붕괴 가정의 증가이다. 붕괴 가정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를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의 결과로 볼 수만은 없다. 부모가 함께 살아도 가정의 붕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붕괴는 넓은 의미로 가족 내 사랑과 신뢰, 연대 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로 이해될 수 있다. 처음에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구축된 공동체도 어떤 요인으로 인해 별거와 이혼, 붕괴로 귀결될 수 있다. 인간 공동체는 서로 다른 성격과 태도, 동기, 개성을 가진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가족도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되며, 가족 내에서 불가피한 대인 갈등을 일으킨다. 가족 구성원의 성격, 욕구, 가치, 능력 차이는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은 갈등 과정에서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신뢰를 잃기도 한다.

가정의 붕괴는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외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내부의 갈등과 문제, 가족 내 분란 등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요인은 사랑, 신뢰, 존경,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 배우자의 부정이 가족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성사 때 서약한 사랑과 신의에 대한 맹세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혼에 영향을 미쳐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우자 학대와 부모 학대도 별거의 원인이 된다. 배우자 학대는 결혼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학대 받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부모 학대는 자녀가 가출해서 가족을 떠나는 원인이 된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가출해서 소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 중 한 명이 유기하는 경우, 특히 가족을 유기한 부모가 가장인

경우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나 성격 문제로 인한 별거도 가족 붕괴의 원인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약물중독인 경우, 특히 부모가 중독된 경우 가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의 용서

용서는 보복하거나 응징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원칙적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용서는 연민에서 우리난 행위로서, 양 당사자에게 해답과 자유를 가져다 주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미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상처를 입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을 당한 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다.

가족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거나 가족 내에 용서가 있으면 결혼과 가족의 신뢰와 본연의 연합이 회복될 수 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용서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 보살핌과 관용을 회복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적어도 평화롭게는 살 수 없으며, 특히 가족 안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잘못을 한다. 이런 잘못은 우리의 나약함과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입힌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하루빨리 끊어진 유대를 다시 엮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서의 요소는 무엇일까?

용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나약해지거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잘못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자아가 강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실수로 생긴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치유가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서 안에서 우리는 가해자 편에서 이런 나약함이나 불완전함을 깨닫는다. 즉, 가해자도 결국 인간일 뿐이며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가해자도 인간이라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인간이며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인간이며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용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요구한다.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용서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용서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행동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책무를 받아들이거나 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용서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인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용서는 가해자의 겸손을 수반한다. 용서에는 책임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해자의 겸손이 필요하다.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피해자 앞에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 있으면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야 한다. 겸손의 미덕은 타인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기 때문이며, 설령 고통이나 상처를 입히더라도 가해자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즉시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겸손에는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타인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후회가 뒤따라야 한다.

용서는 감정적이다. 실수나 잘못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부분 상처나 고통을 수반하거나 야기한다. 어떤 실수나 잘못이든 그에 수반되는 감정이 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마음이 아프거나 화가 날 것이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분노를 느낄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처나 고통과 분노는 감정의 일종이고, 용서는 언제나 어떤 종류의 감정을 수반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용서가 가능해진다.

용서는 태도에 근거한다. 용서는 부정적인 감정의 완화에 달려 있으므로 감정적이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용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용서에 반드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기 쉽다. 남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용서는 의식적인 결정 혹은 선택이다. 용서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의식적인 행동과 선택이다. 타인은 피해자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용서는 항상 의식적이고 자기결정적인 행동이고 선택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대신 용서할 수 없다. 자녀가 형제자매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부모가 자녀 대신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내에게 잘못된 남편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내이므로 용서해야 하는 사람도 아내이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 혹은 피해자의 공감을 포함한다. 용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이나 연민,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는 공감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겸손을 보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감정을 느끼고 연민을 가지게 하는 것이 공감이다. 가족 안에서 부모는 공감을 통해 누우치는 자녀를 용서할 수 있다. 공감이 있는 가정에서는 고통이나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잘못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공감은 가정에 형성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용서는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 용서는 상처나 고통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함으로써 굴절되거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회복시켜야 한다. 진정한 용서는 화해, 즉 가족 내 단절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용서와 화해는 고통과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가족 본연의 연합을 회복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

용서가 항상 화해로 이어지는 않지만 가족의 연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용서는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 가해자와 화해하지 않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연의 연합이나 화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화해는 가정에서 좋은 관계 또는 공존과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결정과 행동이다. 화해는 용서를 토대로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용서와 마찬가지로 화해도 정도는 다르지만 인간의 나약함, 책임, 겸손, 감정, 태도, 결정, 공감의 이해 등 용서의 요소가 필요하다. 용서는 일방적인 결정 또는 행동이지만, 화해는 상호간의 결정과 행동이므로 용서의 요소에 대한 상호 이해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인간의 나약함, 책임, 겸손, 감정, 태도, 결정, 공감의 인식을 이해하

고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에는 과거의 실수나 고통을 서로 인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며, 파괴적인 태도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랑과 존중에 기반한 용서

용서는 결혼과 가족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인격의 사랑과 존중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다. 사랑은 가족이 진정한 인격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내적 원칙이고, 영구적인 힘이며, 최종적인 목표이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인격 공동체가 아니며, 같은 맥락으로 사랑이 없으면 가족은 인격 공동체로서 살고, 성장하고, 그 자체로 완전해질 수 없다.

용서는 인격 존중을 토대로 해야 한다. 공경은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낸다. 이런 존중은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가정을 빛과 온기로 가득 채운다.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은 자녀 교육이고, 애정, 용서, 존중, 신의, 사심 없는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을 만들어 이 책임을 입증한다.

용서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이 상호 헌신과 용서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헌신과 용서 없이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헌신과 용서가 없으면 사랑은 지속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 사랑과 신뢰의 토대 위에 구축된 가족이라도 상호 헌신과 용서가 없으면 안팎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 따라서 자녀가 이런 미덕과 태도를 배우고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용서를 베푸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 가족의 용서, 신뢰, 연합

존중을 비롯한 다른 태도와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를 얻고 발전시켜야 한다. 가족 안에서 신뢰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초석이 된다. 배우자 사이, 부모자식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는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실수나 잘못으로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특히 상처나 고통이 심하거나 깊을 때 가족의 신뢰를 재건하거나 회복시키기는 더 힘들다. 그러나 겸손, 책임, 감성, 공감, 정직 등을 통해 신뢰를 얻으면 가족 본연의 화합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랑과 신뢰, 존중, 보살핌을 바탕으로 한 인격 공동체로서의 가족은 관용, 겸손, 열린 마음을 통해서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은 용서를 주고 받아 단절된 관계를 복원한다. 모든 가족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서로 용서하고, 신뢰하고, 화해하여 유대와 연합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재건한다.

발 표 자 Inna R. Edara



Prof. Inna R. Edara
(Fu Jen Catholic University in Taiwan)

■ EDUCATION

- Ph.D., Pastoral Counseling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Spirituality), Loyola University Maryland, USA (May 2012)
- Master of Science (M.S), Pastoral Counseling, Loyola University Maryland, USA (May 2004)
- S.T.B., Theology,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pei, Taiwan (1999)
- Master of Divinity (M.Div.), Theology,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pei, Taiwan (1999)
- Certificat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Hua Ming Pastoral Counseling Center, Taipei, Taiwan (1999)
- Bachelor of Science (B.Sc.), Mathematics/Physics/Chemistry. St. Philomena's College, Mysore University, India (1990)
- Diploma, Philosophy. Vidya Niketan, Mysore, India (1990)

■ **TEACHING EXPERIENCE**

- August 2015 – current: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Educational Leadership & Development,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pei, Taiwan.
- February 2014 – July 2015: Assistant Professor, Holistic Education Center,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pei, Taiwan.
- August 2012 – May 2013: Visiting Full-time Assistant Professor of graduate studies at Loyola University Maryland, USA. Subjects taught: Various graduate level courses in counseling psychology, such as Helping Relations; Group Theory and Practice; Multicultural Issues; Human Development; Professional Seminar.
- September 2005 – June 2008: Part time lecturer at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pei, Taiwan. Subjects taught: General Psychology; Psychology of Life;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TA); Philosophy of Life (Life Education).
- August 2001 – February 2002: Instructor of “Life Education” and “Basic English” at Shanmei Elementary School, Chiayi, Taiwan.

■ **PUBLICATIONS**

- Edara, I. R. (in press). Social and spiritual dimensions as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 Edara, I. R. (in press). Understanding Laudato Si’s view of ecological education and well-being from indigenous relational perspective.
- Edara, I. R. (January, 2017).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age, and ethnicity on Intrinsic Religious Motivation and Spiritual Transcendence among European, Asian Indian, and Taiwanese Americans. *Lumen: A Journal of Catholic Studies*, 5 (1), 171-195.
- Edara, I. R. (August, 2016). Differentiating among three Cathol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ethnic-cultural and religious-spiritual variables. *Pastoral Psychology*, 65 (4), 443-457. (Index: SCOPUS)

- Edara, I. R. (April, 2016). Relati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ethnic identity to spiritual transcendence among European Americans, Asian Indian Americans, and Chinese Americans. *Counseling and Values*, 61, 44-63. (Index: SCOPUS)
- Edara, I. R. (September, 2015). Cultural and ethnic variations in aspects of positive psychology.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 (3), 219-225.
- Edara, I. R. (September, 2015). Role of sociocultural asp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 3 (7), 38-53.
- Edara, I. R. (July, 2015). Mediating ro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spirituality's relation to motivational forgiveness. *Asia Pacific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6(1-2), 28-40.
- Edara, I. R. (January, 2015). The virtue of hope: An antidote to despair. *Universitas: Monthly Re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 42 (1), 51-72. (Index: AHCI; SCOPUS)
- Magyar-Russell, G., Brown, I. T., Edara, I. R., et al., (April, 2014). In search of serenity: Religious struggle among patients hospitalized for acute coronary syndrom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3 (2), 562-578. (Index: SSCI; AHCI; SCOPUS)
- Edara, I. R. (2013). Spirituality's unique role in positive affect, satisfaction with life, and forgiveness over and above personality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15-41.

■ AWARDS

- "Joseph W. Ciarrocchi Research Award" for Outstanding Leadership in Pastoral Counseling Research. Presented on May 18, 2012, by Pastoral Counseling Department of Loyola University Maryland, Columbia, Maryland, USA.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Families: A Perspective of Taiwan College Students

Inna Reddy Edara, Ph.D.

*Graduate Institute of Educational
Leadership & Development*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wan

Email: 065049@mail.fju.edu.tw

Jo-Lin Chen, Ph.D.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wan*

Email: 046286@mail.fju.edu.tw

Abstract

This quantitative research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forgiveness of a family transgressor by the offended. Data from 431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frequency of the offenses, specific relationship of the offended with the transgressor, severity of the hurt, role of relationship variables,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and hurt intensity in the forgiveness of the family member. The analyses indicated that some of the most occurring offenses were being ignored, not fulfilling promises, being compared with others, and unequal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Participants indicated being compared with others as the most serious offense, followed by contempt, not fulfilling promises, and being ignored. Due to these offenses, about 59%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moderate to above the average severity of hur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uggested that the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of optimism

and resilience explained 14% of incremental variance in forgiveness. In the third step of the regression, relationship variables of trust,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together explained an additional 28% of the variance, above and beyond gender and dispositional tendencies. In the final step, hurt severi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explaining an additional 5% of variance in forgiveness. These significant results suggest that after controlling for both demographic variables and dispositional traits, the close relationship variables along with the severity of the hurt experienced by the victim in the context of family relationship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giveness of the family offender.

Key words : forgiveness, hurt, offense, trust, communication, alienation, resilience, optimism

Introduction

Although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focus on the construct of individual forgiveness 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over the last 25 to 30 years, only recently the researchers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understanding of the ways in which forgiveness is operational in the context of family offenses and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within the families. Because of the important role of family relationships in the quality of life of family members (Beach & Whisman, 2012), it is in family relationships that many needs of the individuals are fulfilled, while some of the strongest offenses and deepest hurts also occur in family relationships (Fincham, 2015). In other words, on the one hand, family life can be full of joy and happiness, but on the other hand, hurt and pain are inflicted and received even in the healthiest of families. Families which do not find ways to minimize pain and maximize forgiveness may realize that hurts do not heal as easily and the consequential residuals carry over throughout a lifetime (DeBlasio, 1998). Therefore, working toward forgiveness in families is very important, for without it, the consequences are detrimental to both the family and individual well-being. In the following pag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s given,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a family and the relationship in families, common offenses in families, and the possible determinants of forgiveness in the context of family transgressions.

Literature Review

Definition of Family

Most experts in the field of family studies have concluded that it is either not possible to have a single definition of what a family is (Fine, 1993), or only possible in relation to changing and inescapable ideological differences, resulting in a definition that is driven by theory, history, culture, and situation (Allen, 2000). For example, Scanzoni, Polonko, Teachman, and Thompson (1989) defined the *traditional family* as two parents and children. Some scholars gave an exclusive description (see Day, Gilbert, Settles, & Burr, 1995; Kelley, 1983) and viewed the family as a form of *social group* held by common purpose. Trost's (1990) description of *inclusive family* included various other kin, friends, and even pets. For some (see Cheal, 1983; Holstein & Gubrium, 1995), family is each individual's interpretation of who their kin are or whatever the individual perceives it to be.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the *symbolic interaction theory* defines family as a unit of interacting personalities (Smith, 1995). Those who take a *feminist perspective* would assume that there are broad differences among marriages and families, and these differences are greater than the similarities (Thompson & Walker, 1995). For the family *developmental theorists*, family members occupy socially defined positions and the definition of family changes over the family career (Klein & White, 1996). *Situational* definitions of families (Hanson & Lynch, 1992) illustrate family as "any unit that ... that includes individuals who are related by blood or marriage as well as those who have made a commitment to share their lives" (p. 285). There are also *normative* definitions of families. According to Abu-Laban and Abu-Laban (1994), normative is described as "agreed upon societal rules and

expectations specifying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ways to behave in a particular society” (p. 53). In summary, based on the purpose for which the term is being used, the family can be defined as what the individual or the researcher perceives it to be (Definition, 2017).

Nature of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are the most valued aspect of any person’s life tha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well-being of its members. For example, research has indicated that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helps children to feel heard, understood, loved, important and valued (Burgo, 2006). On the other hand, scholars (Battle & Miller, 2005; Cavanagh & Huston, 2008) suggested that there are more possibilities for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to occur more often in the family relationships than in other relationships, because family relationships usually involve longer term and more intimate affiliations. Consequently, the stakes are higher when such hurts remain unresolved. Conflicts that entail feelings of injury and resentment (Karremans, Van Lange, Ouwerkerk, & Kluwer, 2003) cause hurts in family relationships, which may be occasioned by a violation of an implicit or explicit relationships norm,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deceit and betrayal (Rusbult & Van Lange, 2003), unequal treatment of siblings by one or both parents, hurt feelings from divorce and/or remarriage, irresponsible financial decisions, inequitabl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and repeated instances of broken family commitments (Battle & Miller, 2005).

In Taiwanese context, families are typically multigenerational, with each member playing an important function within the household. Traditionally, the Taiwanese placed great emphasis on maintaining respect and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he family members. Much of this behavior relates back to Confucian concept of *filial piety* (孝順). Taiwanese also emphasize “*Guanxi* (關係),” which means being reciprocal towards one’s obligations to family members. The concept of *face-saving* (面子) in Taiwanese families often guides how family members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with others. As the younger generation is becoming less family orientated, Confucian concepts are not strictly followed anymore.

Nevertheless, children in Taiwan are still expected to obey and defer to their parents and honor their elders in almost all situations (Family, 2017).

Theories of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Hoyt, Fincham, McCullough, Maio, and Davila (2005) refer to the precipitating causes of the feelings of hurt and resentment in interpersonal context, including in families, and attendant cognitions as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Hoyt et al. suggest that when researchers study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in close relationships, they should factor in the role of the situational and relational factors that would contribute to people's willingness to forgive, over and above their stable dispositional tendencies. Some of the theories that explain the role of the situational and relational factors i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and family forgiveness are interpersonal theory (Fincham, Harold, & Gano-Phillips, 2000; Markey, Funder, & Ozer, 2003), interdependence theory (Finkel, Rusbult, Kumashiro, Hannon, 2002; Rusbult & Van Lange, 2003), transactional theory (Cotterell, Eisenberger, & Speicher, 1992), and social relations model (Back & Kenny, 2010).

Based on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scholars indicate that the extent to which people forgive in families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orgiver, but also by the relationship, the situation in which the transgression occu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gressor and the nature of the offense (see McCullough, Fincham, & Tsang, 2003; Mullet & Girard, 2000; Takaku, Weiner, & Ohbuchi, 2001; Wieselquist, Rusbult, Foster, & Agnew, 1999). In other words, that victims are primarily motivated to forgive the transgressor in order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Karremans & Van Lange, 2004) or to restore a valued relationship (Mooney, Strelan, & McKee, 2015).

Forgiveness in Families

Forgiveness is described as an intentional and voluntary process that involves a change in emotion and attitude in a victim regarding an offender (see Fincham, 2000; Kaminer, Stein,

Mbanga, & Zungu-Dirwayi, 2000;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el, 1997; North, 1987; Worthington, 2005). Scholars conceptualize forgiveness on the basis of two inter-related processes. One is *intrapersonal*, in which the cognitions and feelings of victims about a transgressor change from negative to positive (Worthington, 2001). The other is *interpersonal* (Finkel et al., 2002), in which the internal prosocial motivational change experienced by victims is manifested interpersonally. Therefore, a feature of the interpersonal aspect of forgiveness is that it involves positive responses to transgressors, variously conceptualized as benevolent (McCullough et al., 1998), compassionate and loving (Worthington, 2001), and altruistic (Enright, Freedman, & Rique, 1998).

Besides describing forgiveness as intrapersonal or interpersonal processes, scholars also conceptualize forgiveness at different levels of specificity, such as a trait, as a tendency toward a specific relationship, and as a response toward a specific offense (see Fincham, Hall, & Beach, 2006; Paleari, Regalia, and Fincham, 2009; McCullough, Hoyt, & Rachal, 2000), suggesting that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may be more important than the dispositional traits in understanding forgivenes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ex., closeness, trust, and conflict) are widely accepted 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forgiveness in the family contexts (Fincham, 2015). For example, Paleari, Fincham, and Regalia (2003)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was related to adolescent forgiving of parents. Maio, Thomas, Fincham, and Carnelley (2008) indicated that forgiveness was specifically related to aspect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and not with other family members. Hoyt and colleagues (2005) suggested that the relationship effects on forgiveness were predicted by the degree of conflict present in the relationship.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In line with the rationale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research project specificall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the forgiveness in familie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in Taiwan. Specific research questions included:

1. Nature and frequency of offensive behaviors in Taiwanese families.
2. Specific family members involved in the family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3. Severity of the hurt experienced by the victim due to the transgression of the family offender.
4. Relationship closeness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5. Role of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of the victim in the process of forgiveness.
6. Measurement of offense-specific forgiveness toward the specific offending family member.

Hypotheses included:

1. Exploration of the (a) specific family member committing the offense, (b) nature and frequency of the offenses committed by this specific offender, and the single most serious offense, and (c) level of hurt severity.
2.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study variables would be expected. For example, a positive correlation would be expected between the dispositional tendencies of optimism and resilience, relationship variables of trust and communication, and forgiveness. A negative correlation would be expected between the relationship variable of alienation, hurt severity, and forgiveness.
3. After controlling for significant demographics, it would be expected that the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relationship variables, and hurt severity would significantly predict the offense-specific forgiveness. Specifically, positive tendencies and relationship variables of trust and communication in their respective regression analyses steps would predict increase in forgiveness, whereas the relationship variable of alienation and hurt severity in their respective regression analyses steps would predict the decrease in forgiveness.

Method

Procedure and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from undergraduate students pursuing degrees at different colleges in Fu Jen Catholic University. Total of 431 participants consisted 173 (40.1%) males and 258 (59.9%) females, with ages ranging from 18 to 25. The majority of 151 (35%) had no religious belief. Of those who were affiliated with some religion, 81 (18.8%) participants were affiliated with folk religions; 77 (17.9%) were Taoists; 68 (15.8%) were Buddhists; 45 (10.4%) were Protestants, and 9 (2.1%) were Catholics.

Measurements

Demographic and Offense-Descriptive Questionnaire. In addition to collecting the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they were also asked to indicate any of the family members that have offended them in the recent past. Then, the participants were requested to choose any number of offenses from a list of 29 offenses, which included being ignored, verbal abuse, dishonesty, failing in commitments, so on. The participants were then asked to indicate the most serious offense from their chosen list of offenses and the hurt severity ranging from zero to 10, with zero representing no hurt feelings, 5 representing medium severity of hurt, and 10 representing the most severe hurt.

Offense-Specific Family Forgiveness. In assessing offense-specific family forgiveness, we used 15 items from the Forgiveness Scale (Rye, Loiacono, Folck, Olszewski, Heim, & Madia, 2001), 4 items measuring Benevolence from the Marital Offense-Specific Forgiveness Scale (Paleari, Regalia, & Fincham, 2009), and 11 items of Revenge and Avoidance from the 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McCullough, et al., 1998), which were reverse scored. The 30 items were subjected to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hich revealed the presence of two components with total of 21 items, explaining 60.38% of the variance. The first component, which was named as Absence of Negative, had 10

items, explained 31.21% of variance and had Cronbach's α of .94. The second component, named as Presence of Positive, had 11 items, explained 29.17% of variance, and had Cronbach's α of .92.

Family Relationship Closeness. Family relationship closeness was assessed by using th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developed by Armsden and Greenberg (1987).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is changed to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member. This inventory has three subscales: Trust ($\alpha = .93$), Communication ($\alpha = .92$), and Alienation ($\alpha = .87$), each consisting of five items.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Selected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included Optimism and Resilience. Measure of Optimism consisted of 4 items and had reliability coefficient of .66 (Carifio, & Rhode, 2002). Measure of Resilience consisted of 4 items, and the reliability coefficient of .84 (Campbell-Sills, & Stein, 2007).

Results

Offending Family Member

As part of Hypothesis 1a, the relationship of the research participant with the offending family member was explored. This research presumed the participants' family to be exclusive, intergenerational, and nuclear, consisting of parents, siblings, and grandparents. The "other" category was also include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1.

Table 1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Participant's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fender

Relationship	Frequency	%
Father	127	29.5
Mother	122	28.3
Younger Sister	39	9.0
Elder Brother	35	8.1
Elder Sister	29	6.7
Younger Brother	25	5.8
Other	22	5.1
Paternal Grand Mother	18	4.2
Paternal Grand Father	6	1.4
Maternal Grand Mother	6	1.4
Maternal Grand Father	2	0.5

Note: $N = 431$

Nature and Frequency of Offenses

Hypothesis 1b explored the nature of the offensive attitudes and behaviors that commonly occur in the families, and the single most serious offense among all the offenses that the participants perceived it to be.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2. The offensive behavior or attitude of being ignored by the family members was chosen by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158), followed by the family members breaking promises (149), and being compared with others (131). When it came to choosing the most serious offense, the participants chose the offensive behavior of being compared with others by the offending family member ($n = 43$; 10%), followed by contempt ($n = 34$; 7.9%), family members not fulfilling their promises ($n = 33$; 7.7%), and being ignored ($n = 28$; 6.5%).

Table 2
Nature and Frequencies of Offenses and Most Serious Offense

Nature of Offenses (multiple)	Freq.	Most Serious Offense	Freq.	%
1. Act deaf and dumb to what you care about (Being ignored).	158	1. Comparison with others (#28)	43	10.0
2. Busy with work and other things (Absence).	79	2. Contempt (#5)	34	7.9
3. Not concerned about whatever happens in your life.	77	3. Do not fulfill promises (#18)	33	7.7
4. Verbally abuse you.	101	4. Being ignored (#1)	28	6.5
5. Show contempt for you.	121	5. Verbal abuse (#4)	27	6.3
6. Gossip about you.	94	6. Gossip (#6)	23	5.3
7. Defame you.	30	7. Unacceptable jokes (#9)	23	5.3
8. Disclose your personal issues to others.	75	8. Stealing (#11)	22	5.1
9. Make unacceptable jokes about you.	87	9. Not honoring commitments (#19)	21	4.9
10. Conceal important things from you.	73	10. Favoritism (#27)	16	3.7
11. Steal or misuse your things.	100	11. Ignore feelings (#26)	16	3.7
12. Lie to you or deceive you.	58	12. Inequitabl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24)	16	3.7
13. Drinking.	42	13. Conflicts in money use (#21)	16	3.7
14. Smoking.	85	14. Disclosure of privacy (#8)	16	3.7
15. Substance abuse.	8	15. Smoking (#14)	13	3.0
16. Physical violence.	14	16. Constant criticism (25)	12	2.8
17. Do things that are detrimental to character, and that make you feel ashamed and embarrassed.	71	17. Absence (#2)	10	2.3
18. Do not fulfill promises.	149	18. Lying (#11)	10	2.3
19. Do not honor important commitments.	90	19. Unequal treatment (23)	10	2.3
20. Irresponsible or dishonest financial decisions.	62	20. Drinking (13)	9	2.1
21. Conflict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money.	117	21. Dishonest financial decisions (#20)	8	1.9

Nature of Offenses (multiple)	Freq.	Most Serious Offense	Freq.	%
22. When resources (such as money) are scarce, other family members are given preference in distributing the resources.	42	22. Not concerned (#3)	6	1.4
23. Unequal parental treatment.	101	23. Concealment (#10)	5	1.2
24. Inequitabl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124	24. Defamation (#7)	3	0.7
25. Criticize about everything that I do in the house.	90	25. Physical violence (#16)	3	0.7
26. Only care about your other family members but ignore your feelings.	52	26. Embarrassment (#17)	3	0.7
27. Favor your family members over you.	60	27. Preferential treatment (#22)	3	0.7
28. Always compare you with others and make you feel you are worse than them.	131	28. Non-specific (#29)	2	0.5
29. Others (Ex., destroy video games)	2	29. Substance abuse (#15)	0	0

Note: $N = 431$

Hurt Severity

Hypothesis 1c examined the level of hurt severity.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hoose the hurt severity by marking between zero and ten on a continuous scale, with zero indicating absence of any sort of hurt feelings, 5 indicating the moderate severity and 10 indicating the highest severity of hurt. The highest number of participants (level = 5; $n = 72$; 16.7%) experienced the moderate severity, followed by above the moderate severity (level = 6; $n = 69$; 16%) and (level = 7; $n = 59$; 13.7%). Summarizing, there were total of 254 (59%)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the moderate and above the moderate severity. Ten (2.1%) even experienced the highest severity of hurt.

Scale Reliabilities and Intercorrelations

As indicated in Table 3,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for all the measures were in the range of .65 for Optimism to .94 for Absence of Negative subscale of Forgiveness. Hurt severity was a single item measure on a continuum from zero to 10. The subscales of Absence of Negative (reverse scored) and Presence of Positive were combined to get a total score for Forgiveness.

On inspection of the correlational matrix as presented in Table 3, out of 45 possible correlations, 42 were significant. Three non-significant correlations consisted of gender not correlating with optimism, resilience, and presence of positive. As per Cohen's (1988) criteria, 14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in the small effect range ($r = .10$ to $.29$), 15 were in the medium effect range ($r = .30$ to $.49$), and 13 were in the large effect range ($r = .50$ to 1.0).

Table 3
Reliability Coefficient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Variables	α	M	SD	1	2	3	4	5	6	7	8	9	10
1. Gender	---	---	---	--	.09	-.05	.17*	.12 [#]	-.20*	.14 [#]	.13 [#]	.07	.11 [^]
2. Optimism	.65	3.32	0.65		---	.67*	.39*	.43*	-.31*	-.15 [#]	.30*	.39*	.37*
3. Resilience	.74	3.22	0.65			---	.29*	.29*	-.19*	-.13*	.22*	.34*	.30*
4. Trust	.93	3.71	0.89				---	.79*	-.52*	-.29*	.52*	.56*	.59*
5. Communication	.92	3.44	0.89					---	-.43*	-.31*	.43*	.50*	.51*
6. Alienation	.87	2.28	0.86						---	.23*	-.56*	-.39*	-.52*
7. Hurt Severity	---	4.94	2.23							---	-.40*	-.35*	-.41*
8. Absence of Negative	.94	3.83	0.87								---	.68*	.92*
9. Presence of Positive	.92	3.34	0.77									---	.91*
10. Forgiveness	---	3.58	0.75										---

Note: $N = 431$; * $p < .001$; [#] $p < .01$; [^] $p < .05$; two-tail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test the Hypothesis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assess the ability of gender, positive dispositional tendencies, relationship closeness variables, and hurt severity to predict forgiveness.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4.

Table 4
Summary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Variables Predicting Forgivenes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Gender	.18	.07	.11 [#]	.14	.06	.10 [#]	-.02	.06	-.01	.06	.06	.04
Optimism				.33	.07	.29 [*]	.08	.06	.07	.08	.06	.07
Resilience				.14	.07	.12 [#]	.10	.06	.09	.10	.06	.09
Trust							.29	.05	.34 [*]	.27	.05	.32 [*]
Communication							.05	.05	.06	.01	.05	.01
Alienation							-.24	.04	-.28 [*]	-.22	.04	-.25 [*]
Hurt Severity										-.08	.01	-.25 [*]
<i>R</i> ²	.01			.15			.43			.48		
<i>F</i>	5.14 [#]			25.51 [*]			52.74 [*]			55.51 [*]		
<i>df</i>	1:430			3:428			6:425			7:424		

Note: *N* = 431; ^{*}*p* < .001; [#]*p* < .05

Discussion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When talking about forgiveness in the context of families, the first question that comes to anyone's mind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In this study, the student participants indicated that both the father and mother offended them more often than the other family members. Given the age and developmental stage of these college students, it appears to be necessary that the parents are involved more than the other family

members in the life of the college students (see (Fingerman, Cheng, Tighe, Birditt, & Zarit, 2012; Gavazzi, 2012; Schwanz, Palm, Hill-Chapman, & Broughton, 2014), consequently leading to the chances of more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A study by Mao, Hsu, and Fang (2016) on the exploration of the Taiwanese university student perceptions of parental support concluded that autonomy support as the most difficult for Taiwanese parents to provide to their college-going children. They further said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terest of college students and parental expectations, students usually use four different coping styles: protest, avoidance, struggle, and submission. These categories of Taiwanese students' coping styles, except submission, in the midst of conflict with their parents indicate a higher chance of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in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need for conflict resolution through forgiveness.

Nature of Transgressions in Taiwanese Families

Given the long-term nature of family ties and the intensity of the interactions, family conflicts resulting in hurt and the need for resolution and forgiveness occur regularly in family settings. It appears self-evident that motivation and ability to forgive depend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transgressions, which range from physical abuse to emotional blackmail to an insult or revelation of secret.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ought that being compared with others by a family member was the third most occurring offensive behavior. In fact, this behavior was also chosen as the most serious offense committed by the family member. It is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comparison by parents is a common approach to ascerta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n. Parents compare their children's performance with others and then determine whether their achievements are normal, better or excellent. But, when comparisons by parents of their children with others are overdone or involves unrealistic expectations and negative attitudes, they produce negative effects.

Contempt was another transgression that occurred most often in the families, and it was also the second most serious offense as per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family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The choice for contempt seems to logically follow the most serious offense of being compared with others, because contempt is a feeling that a person is worthless or beneath consideration. Fischer and Roseman (2007) said that the social function of contempt is perhaps done because the person who is feeling contempt perceives that there is no way to influence or change the other person, or changing another person's behavior is not worth the effort, which results in ignoring the person.

Severity of the Hurt Experienced by the Victim

Over 50%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moderate to above the average levels of hurt severity. Lemay, Overall, and Clark (2012) said that hurt occurs when the victim perceives and feels rejection or devaluation by a perpetrator who is highly valued by the victim. As the nature of the most serious offenses and the relation to the perpetrator in this study indicated, both the transgressions of being compared with others and experiencing contempt appear to be the cause of perception and feeling of devaluation by the highly valued family members.

Higher levels of hurt severity felt by the participants also imply that the offended in a family context is vulnerable to psychological pain at the hands of the family offender, and this vulnerability is likely due to the offended member's desire for a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In fact, several studies have proposed that the victim's dependence on a perpetrator for support, security, and protection creates the potential to feel hurt by relational devaluation (see Lemay, et al., 2012; Shaver, Mikulincer, Lavy, & Cassidy, 2009). Moreover, if the parental involvement and support may not end when students enter college and young adulthood (Fingerman, et al., 2012; Schwanz, et al., 2014), and if dependence is a central component of feeling hurt in response to relational devaluation (Lemay, et al., 2012), the offended who highly value the family relationships and are committed to them should be more likely to feel hurt in these contexts.

Relationships among the Major Study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a strong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resilience. Optimism is an individual trait that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people hold generalized favorable expectancies for their future (Walsh, 2003). As the past studies have indicated (see Carver, Scheier, and Segerstrom, 2010; Rutter, 2006), the characteristic of resilience for this sample reflects their desire for great optimism under adversity of family offences and transgressions.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forgiveness, implying that optimism helps the offended to make a decision to forgive the offender in order to have and maintain happy, healthy, and positive relationship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y and forgiveness. Flach (1988) contends that resiliency is a strength that humans require to master cycles of disruption and reintegra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In this study, the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y and forgiveness implies that the resilient participants possess the capacity to forgive as they are able to understand that something good can come out of even the hurtful offenses.

As expected, the relationship variables of trust and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ly and highly correlated. Communication is described as the formal as well as informal sharing of meaningful information, and trust is defined as an expectancy held by an individual or group that the verbal or written word or promise of another individual or group can be relied upon (Zeffane, Tipi, & Ryan, 2011). Trust is an important pillar in any kind of relationships. Building trust fosters healthy communication among family and friends, and healthy and open communication in relationships opens the pathways for trust to develop. There was also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rust and forgiveness, implying that highly trusting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forgive their offender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forgiveness implies that the process of forgiveness involves positive communication (Sheldon, Gilchrist-Petty, & Lessley, 2014).

Alienation in relationships and the feeling of hurt by the family offens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ereas alienation and forgive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Research (see

Scharp & Hall, 2017) has shown that despite the well accepted assumptions that families are close and intact, the prevalence of alienation, marginalization, and estrangement of family member is overwhelming. These processes pose significant disruptions to the entire family system. Vangelisti (2006) explains that the involuntary nature of family relationships places tight constraints on the member's relational alternatives. That is, when family members are offended, the restrictions may place them at a great deal of hurt.

Predictors of Forgiveness in Family Offenses

All the step-wise regression models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forgiveness. For example, optimism and resilie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variance in forgiveness in Step 2. Optimism, defined as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desirable future outcomes (Carver, et al., 2010), significantly predicts forgiveness of family member's transgression. Research confirms that individuals who are disposed to hold positive expectations for the future respond to any sort of adversity in more adaptive ways (Rey & Extremera, 2014). In the case of forgiv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orthington and Wade (1999) have stated that an optimistic view of a relationship and oneself in that relationship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occurrence of forgiveness. Resilience also significantly predicted the forgiveness, but the effect was lower than that of optimism. The personal qualities that allow one to thrive in the face of adversity are referred to as resiliency.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resiliency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concepts such as feeling a sense of purpose, finding meaning in one's circumstances, and feeling a sense of support (Connor & Davidson, 2003). Given the adversity of family offense, resilient people try to make a sense of the offense by their willingness to forgive the offender.

In Step 3, trust and aliena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variance in forgiveness. The ability to trust and maintain healthy relationships was a recurring theme in forgiveness studies (see Asendorpf & Wilpers, 1998; Boon & Sulsky, 1997;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el, 1998). Studies indicated that of the many aspects of relationships that could contribute to forgiveness dynamics, trust that relationship partners place in one another is

one quality that has been widely researched (see Finkel et al., 2002; McCullough et al., 1998). Rousseau, Sitkin, Burt, and Camerer (1998) noted that trust essentially entails an acceptance of vulnerability based upon positive expectations of the intentions of another. Trust could increase perceptions of safety from the possibility of future offenses, or it could increase perceptions of opportunities for future benefits from a relationship.

Alienation significantly and inversely predicted forgiveness, implying that the participants who feel alienated and distance in the family are less likely to forgive their offenders. Richman and Leary (2009) said that all negative or offensive interpersonal attitudes or events have the potential to lower the victims' perceived relational value. Richman and Leary further said that a person who has been rejected may simultaneously wish to regain acceptance, retaliate against those who hurt him or her, and avoid further social contact. In the case of this sample, people who feel alienated or rejected appear to retaliate against those who offended them by not willing to forgive them.

Finally, hurt severity also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predicted forgiveness. Studies on the features of hurt feelings suggest that hurt is a distinct negative emotion that is associated with feeling devalued, unwanted, and rejected (Richman & Leary, 2009). For this sample, it appears that feeling of more severely hurt by individuals who were perceived as being close to the transgressor were more likely not to forgive the offender. This result is supported by the literature that increased severity of offense and decreased closeness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s factors closely related to unforgiveness (Bono, McCullough, & Root, 2008; McCullough et al., 1998).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First of all, the significant results suggest that offense-specific analysis gives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that exist due to geograph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lthough the understanding of families has been changing in modern Taiwan, they still are typically multigenerational and place a great emphasis on *xiaoshun* (孝順; filial piety) and

guanxi (關係; relationships). The specific offenses in this research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some similar offenses with other cultures; offenses such as unequal treatment of siblings, inequitabl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and instances of broken family commitments. Some of the offenses that seem to be typical to the Taiwanese family context are being ignored and being compared with 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rrants that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forgiveness in families should take the cultural and ethnic aspects into consideration.

Participants indicated three conceptually inter-related offenses, i.e., being compared with others, contempt, and being ignored, as the most serious offenses. It could be due to the concept of face-saving (*mianzi*; 面子) in the general Chinese culture. One of the serious things in distorting family reputation in Chinese culture is to “lose face” (*diulian*; 丟臉). Once again, these differences call for an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importance of fac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family offenses and the operation of forgiveness in Taiwanese families.

The college students in this research study indicated that father and mother are the family members who most frequently offend them. This result is in line with the aforementioned most serious offenses and the concepts of *xiaoshun* (孝順; filial piety), *guanxi* (關係; relationships), and *mianzi* (面子; face-saving). Moreover, both culturally and developmentally, it appears to be necessary that the parents are involved more than the other family members in the life of the Taiwanese college students, consequently leading to the chances of frequent and specific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between parents and college-going children.

Finally, the close relationship variables along with the severity of the hurt experienced by the victim in the context of fami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giveness of the family offender. Regarding the positive dispositional traits and like the previous research has indicated, the individuals who are able to perceive positive expectations for the families tend to be more adaptable to family transgressions and more able to use the mechanism of forgiveness to resolve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context of families. But, when the

relational variables of trust,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are entered into the regression equation, both demographic and dispositional variables became non-significant, once again suggesting that the relationship closeness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forgiveness.

Selected References

- Battle, C. L., & Miller, I. W. (2005). Families and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227-241). New York, NY: Routledge.
- Bono, G., McCullough, M., & Root, L.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Two longitudinal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195.
- Cheal, D. (1993). Unity and difference in postmodern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4(1), 5-19.
- Enright, R. D., Freedman, S. R., & Rique, J. (199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R. D. Enright & J. North (Eds.), *Exploring forgiveness* (pp. 46-62).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amily (2017). *Taiwanese culture*. Retrieved on June 1, 2017, from <http://theculturalatlas.org/taiwanese-culture/family-9a72fb03-04d5-4107-9a17-e908795b983e>
- Fincham, F. D. (2015). Forgiveness, family relationships and health. In L. L. Toussaint, E. L. Worthington, Jr., & D. R. Williams (Eds.), *Forgiveness and health: Scientific evidence and theories relating forgiveness to better health* (pp. 255-269). New York, NY: Springer.
- Fine, A. A. (1993). Curr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family diversity: An overview of the special issue. *Family Relations*, 42(3):235-237.
- Fischer, A. H., & Roseman, I. J. (2007).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1), 103–115.
- Hoyt, W. T., Fincham, F. D., McCullough, M. E., Maio, G., & Davila, J. (2005). Responses to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in families: Forgiveness, forgivability, and relationship-specific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375–394.
- Karremans, J. C., Van Lange, P. A. M., Ouwerkerk, J. W., & Kluwer, E. S. (2003). When forgiving enhance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011–1026.
- Mao, C. H., Hsu, Y. C., & Fang, T. w. (2016).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by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during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6(2), 63-70. doi: 10.5923/j.ijpbs.20160602.05.
- Maio, G. R., Thomas, G., Fincham, F. D., & Carnelley, K. (2008). Unraveling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307–319.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Jr,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doi:10.1037/0022-3514.75.6.1586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3). Adolescents' willingness to forgive parents: An empiric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 155–174.
- Rey, L., & Extremera, N. (2014). Posi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forgiveness: Identifying the unique contribu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ies, Big Five traits, gratitude and opti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8, 199–204.
- Riek, B. M., & Mania, E. W. (2012).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 Relationships*, 19, 304–325.

- Rye, M. S., Loiacono, D. M., Folck, C. D., Olszewski, B. T., Heim, T. A., & Madia, B. P. (200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forgiveness scales. *Current Psychology, 20*(3), 260-277.
- Scharp, K. M., & Hall, E. D. (2017). Family marginalization, alienation and estrangement in family relationships: Questioning the nonvoluntary status of family relationship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1*(1), 28-45. doi: 10.1080/23808985.2017.1285680
- Schwanz, K. A., Palm, L. J., Hill-Chapman, C. R., & Broughton, S. F. (2014).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relations with parents and academic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13-17.
- Trost, J. (1990). Do we mean the same thing by the concept of the family? *Communication Research 7*(4), 431.
- Worthington, E. L. (2005). More questions about forgiveness: Research agenda for 2005-2015. In E. L. Worthington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557-575). New York, NY: Routledge.
- Zeffane, R., Tipu, S. A., & Ryan, J. C. (2011). Communication, commitment and trust: Exploring the triad.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6* (6). doi: 10.5539/ijbm.v6n6p77

대만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가족 용서의 결정요인

Inna Reddy Edara, Ph.D.

*Graduate Institute of Educational
Leadership & Development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wan
Email: 065049@mail.fju.edu.tw*

Jo-Lin Chen, Ph.D.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wan
Email: 046286@mail.fju.edu.tw*

초록

이 정량적 연구는 가족 가해자를 피해자가 용서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였다. 대학생 43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폭력의 특성과 빈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정한 관계, 손상의 중증도, 관계 변수의 역할, 긍정적 기질 경향, 가족원의 손상 용서 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폭력은 무시, 약속 불이행, 타인과의 비교, 불공평한 가사 분배였다.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비교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폭력으로 나타났고, 경멸, 약속 불이행, 무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참여자의 약 59%가 중증도 이상의 손상을 경험했다.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낙관성과 탄력성이라는 긍정적 기질 경향이 용서에서 14%의 증분 변량을 설명하였다. 회귀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관계변수가 성별과 기질 경향 외에 28%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손상의 중증도는 용서에서 5%의 변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변수였다. 이 유의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기질적 특성을 통제 후 가족관계라는 맥락에서 피해자가 겪은 손상의 중증도와 긴밀한 관계변수가 가족 가해자의 용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용서, 손상, 폭력, 신뢰, 의사소통, 소외, 탄력성, 낙관성

서론

지난 25~30년 동안 심리학 및 사회과학 연구에서 개인 용서의 구성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나, 연구자들이 가정폭력과 가족 내 개인의 안녕이라는 맥락에서 용서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주목하게 된 건 최근의 일이다. 가족관계는 가족원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Beach & Whisman, 2012) 개인의 수많은 욕구가 가족관계 내에서 충족되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폭력과 가장 깊은 손상이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Fincham, 2015). 다시 말해, 가족 생활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도 있지만,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도 손상과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용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가족은 손상이 쉽게 치유되지 않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일생 동안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DeBlasio, 1998). 그러므로 가족의 용서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용서 없는 결말은 가족과 개인의 안녕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가족과 가족관계, 일반적인 가정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용서의 결정요인을 포함한 문헌 고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문헌 고찰

가족의 정의

대부분의 가족 연구 분야 전문가들은 가족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거나(Fine, 1993), 변화하는 불가피한 이념 차이와 관련된 경우에만 이론, 역사, 문화, 상황에 따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Allen, 2000). 예를 들어, Scanzoni, Polonko, Teachman, Thompson(1989)은 전통적인 가족(traditional family)을 두 부모와 자녀로 정의했다. 일부 학자들은 가족을 공통된 목적을 위해 유지되는 사회 집단(social group)의 한 형태로 보는 독점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Day, Gilbert, Settles, & Burr, 1995; Kelley, 1983 참조). Trost(1990)은 포괄적 가족(inclusive family)에 대한 설명에 다른 친족, 친구,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포함시켰다. 가족이란 친족이 누구인지 또는 그 친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Cheal, 1983; Holstein & Gubrium, 1995 참조).

이론적 관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은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단위로 정의한다(Smith, 1995). 페미니즘 관점(feminist perspective)을 견지하는 사람

들은 결혼과 가족 사이에 넓은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이 유사성보다 크다고 추정한다 (Thompson & Walker, 1995). 가족 발달 이론가들(family developmental theorists)은 가족원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지위를 차지하며 가족의 정의는 가족 생활 동안 변화한다고 본다(Klein & White, 1996). 가족의 상황적(situational) 정의(Hanson & Lynch, 1992)는 가족을 “혈연 또는 혼인에 의해 맺어진 개인과 서로 삶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개인을 포함한... 모든 단위”라고 설명한다(p. 285). 가족에 대한 규범적(normative) 정의도 있다. Abu-Laban & Abu-Laban(1994)은 규범을 “특정 사회에서 적절하고 부적절한 행동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합의된 사회적 규칙과 기대”로 설명한다. 요약하면, 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개인이나 연구자가 인식하는 대로 정의될 수 있다(Definition, 2017).

가족관계의 본질

가족관계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써, 그 구성원의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자녀는 부모와 다른 가족원들과의 강한 긍정적 관계를 통해 자신이 경청되고, 이해되고, 사랑받고, 중시되고, 존중 받는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urgo, 2006). 한편, 가족관계는 대개 장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보다 가족관계에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Battle & Miller, 2005; Cavanagh & Huston, 2008). 결과적으로, 그러한 손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때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상해와 분노의 감정을 수반하는 갈등은(Karremans, Van Lange, Ouwerkerk, & Kluwer, 2003)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이는 암시적 또는 명시적인 관계 규범 위반,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기만과 배신(Rusbult & Van Lange, 2003), 편친 또는 양친의 편애, 이혼 및/또는 재혼으로 인한 상처, 무책임한 재정적 결정, 불공평한 가사 분배, 반복되는 가족 부양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Battle & Miller, 2005).

대만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다세대(多世代)로, 각 구성원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적으로 대만인들은 가족원 간의 존중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행동의 대부분은 효도(filial piety, 孝順)라는 유교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또한 대만인은 “관계(Guanxi, 關係)”를 강조한다. 이는 가족원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가정의 체면(face-saving, 面子) 개념은 가족원이 서로 혹은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가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유교 개념은 더 이상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만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할 것으로 기대된다(Family, 2017).

대인관계 관련 위반행위 이론

Hoyt, Fincham, McCullough, Maio, Davila(2005)는 가족을 포함한 대인 맥락에서 손상과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동반되는 인지를 *대인관계 관련 위반행위 (interpersonal transgressions)*로 규정한다. Hoyt 등은 긴밀한 관계 내 대인관계 관련 위반행위를 연구할 때, 안정된 기질 경향 외에도 사람들의 용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적·관계적 요인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인관계 관련 위반행위와 가족 용서에서 상황적·관계적 요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대인관계이론(Fincham, Harold, & Gano-Phillips, 2000, Markey, Funder, & Ozer, 2003), 상호의존이론(Finkel, Rusbult, Kumashiro, Hannon, 2002; Rusbult & Van Lange, 2003), 교류이론(Cotterell, Eisenberger, & Speicher, 1992), 사회관계모형(Back & Kenny,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학자들은 용서하는 사람의 기질적 특성과 관계,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가해자의 특성과 폭력의 특성이 사람들이 가족을 용서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McCullough, Fincham, & Tsang, 2003; Mullet & Girard, 2000; Takaku, Weiner, & Ohbuchi, 2001; Wieselquist, Rusbult, Foster, & Agnew, 1999 참조). 즉, 피해자는 주로 관계를 지속하거나(Karremans & Van Lange, 2004) 가치 있는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가해자를 용서하고자 한다(Mooney, Strelan, & McKee, 2015).

가족의 용서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태도 변화와 관련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으로 설명된다(Fincham, 2000; Kaminer, Stein, Mbanga, & Zungu-Dirwayi, 2000;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el, 1997; North, 1987; Worthington, 2005 참조). 학자들은 두 가지 상호관련 과정을 기반으로 용서를 개념화한다. 첫째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지와 감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는 *개인내(intrapersonal)* 과정이다(Worthington, 2001). 둘째는 피해자가 경험한 내면의 친사회적 동기 변화가 대인관계로 나타나는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과정이다

(Finkel et al., 2002). 따라서 용서의 대인관계적 측면이 갖는 특징은 자비심(McCullough et al., 1998), 연민, 애정(Worthington, 2001), 이타심(Enright, Freedman, & Rique, 1998)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는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학자들은 용서를 개인내 과정 또는 대인관계적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용서를 특질, 특정 관계를 향한 경향, 특정 폭력에 대한 반응과 같은 다양한 특정성 수준에서 개념화하기도 한다(Fincham, Hall, & Beach, 2006; Paleari, Regalia, and Fincham, 2009; McCullough, Hoyt, & Rachal, 2000 참조). 이는 용서를 이해하는 데 관계적 특성이 기질적 특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특성(예: 친밀감, 신뢰, 갈등)은 가족의 용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Fincham, 2015). 예를 들어, Paleari, Fincham, Regalia(2003)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부모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Maio, Thomas, Fincham, and Carnelley(2008)에 따르면 용서는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가족원과는 관련이 없었다. Hoyt와 그의 동료들(2005)은 관계 내에 존재하는 갈등의 정도에 따라 용서에 대한 관계 효과가 예측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 질문 및 가설

본 연구과제는 기존 문헌의 근거에 따라 대만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가족 용서의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대만 가정 내 폭력행위의 특성과 빈도
2. 대인관계 관련 가정폭력과 관련된 특정 가족원
3. 가족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손상의 중증도
4.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친밀도
5. 용서 과정에서 피해자의 긍정적 기질 경향의 역할
6. 특정 가족 가해자에 대한 폭력별 용서의 측정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a) 폭력을 가한 특정 가족원, (b)이 특정 가해자가 가한 폭력의 특성과 빈도, 가장 심각한 폭력, (c) 손상의 중증도 조사.

2. 연구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낙관성과 탄력성의 기질 경향, 신뢰와 의사소통의 관계변수, 용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예상된다. 소외의 관계변수, 손상 중증도, 용서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예상된다.
3. 유의한 인구통계 자료를 통제된 후 긍정적 기질 경향, 관계변수, 손상 중증도로 폭력에 따른 용서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회귀분석 단계에서 긍정적 경향과 신뢰와 의사소통의 관계변수는 용서의 증가를 예측하고, 각 회귀분석 단계에서 소외와 손상 중증도의 관계변수는 용서의 감소를 예측할 것이다.

방법

절차 및 참여자

Fu Jen Catholic University의 여러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는 총 431명으로 그 중 남성은 173명(40.1%), 여성은 258명(59.9%), 연령대는 18~25세였다. 대다수인 151명(35%)이 무교였다. 종교가 있는 참여자 중 81명(18.8%)은 민간 신앙, 77명(17.9%)은 도교, 68명(15.8%)은 불교, 45명(10.4%)은 개신교, 9명(2.1%)은 천주교였다.

척도

인구통계 및 폭력 기술 설문지.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자들에게 최근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가족원을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에게 무시, 언어폭력, 부정직, 약속 불이행 등을 포함한 29가지 폭력 중 해당하는 폭력을 복수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선택한 폭력 중 가장 심각한 폭력을 표시하고, 손상 중증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매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0점은 손상 없음, 5점은 중등도, 10점은 가장 중증을 나타낸다.

폭력에 따른 가족 용서. 폭력에 따른 가족 용서의 평가에서 용서척도(Forgiveness Scale)의 15문항(Rye, Loiacono, Folck, Olszewski, Heim, & Madia, 2001), 가족관계 공격행동 용서척도(Marital Offence-Specific Forgiveness Scale)의 자비심(Benevolence)을 측정하는 4문항

(Paleari, Regalia, & Fincham, 2009), 역으로 채점되는 가해행동 대인관계 동기척도 (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의 보복(Revenge)과 회피(Avoidance)를 측정하는 11문항(McCullough, et al., 1998)을 사용하였다. 30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가지 성분이 21문항으로 구성되어 변량이 60.38%이었다. 첫 번째 성분은 부정이 없는 상태(Absence of Negative)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변량은 31.21%, Cronbach's α 는 0.94였다. 두 번째 성분은 긍정 상태(Presence of Positive)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변량은 29.17%, Cronbach's α 는 0.92였다.

가족관계 친밀도. 가족관계 친밀도는 Armsden &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애착척도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가족원과의 관계로 변화시켰다. 이 척도에는 신뢰($\alpha=.93$), 의사소통($\alpha=.92$), 소외($\alpha=.87$)의 3가지 하위척도가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 기질 경향. 선택된 긍정적 기질 경향에는 낙관성(Optimism)과 탄력성(Resilience)이 포함되어 있다. 낙관성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66이었다(Carifio, & Rhode, 2002). 탄력성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84였다(Campbell-Sills, & Stein, 2007).

결과

가족 가해자

가설 1a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 그 가족 가해자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참여자의 가족이 배타적인 다세대 핵가족으로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했다. “기타” 범주도 포함되었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참여자와 가족 가해자의 관계 빈도 및 백분율

관계	빈도	%
부	127	29.5
모	122	28.3
여동생	39	9.0
형(오빠)	35	8.1
누나(언니)	29	6.7
남동생	25	5.8
기타	22	5.1
조모	18	4.2
조부	6	1.4
외조모	6	1.4
외조부	2	0.5

주: N = 431

폭력의 특성과 빈도

가설 1b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격적 태도 및 행동의 특성과 모든 폭력 중 참여자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 폭력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대다수의 참여자(158명)가 가족원의 무시를 공격적 행위나 태도로 선택하였고, 가족원의 약속 불이행(149명)과 타인과의 비교(13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심각한 폭력의 경우, 참여자들은 가족 가해자에 의한 타인과의 비교($n = 43$; 10%)를 공격적 행동으로 선택하였고, 경멸($n = 34$; 7.9%), 가족원의 약속 불이행($n = 33$; 7.7%), 무시($n = 28$; 6.5%)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
폭력의 특성과 가장 심각한 폭력

폭력의 특성(복수)	빈도	가장 심각한 폭력	빈도	%
1. 내 관심사를 못 들은 척한다(무시).	158	1. 타인과의 비교(#28)	43	10.0
2. 일과 잡무로 바쁘다(부재).	79	2. 경멸(#5)	34	7.9
3.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관심이 없다.	77	3. 약속 불이행(#18)	33	7.7
4. 폭언을 한다.	101	4. 무시(#1)	28	6.5

폭력의 특성(복수)	빈도	가장 심각한 폭력	빈도	%
5. 경멸감을 표시한다.	121	5. 언어폭력(#4)	27	6.3
6.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	94	6. 험담(#6)	23	5.3
7. 나를 비방한다.	30	7. 불쾌한 농담(#9)	23	5.3
8. 내 사생활을 남에게 발설한다.	75	8. 절도(#11)	22	5.1
9. 나에 대해 불쾌한 농담을 한다.	87	9. 의무 불이행(#19)	21	4.9
10. 중요한 일을 은폐한다.	73	10. 편애(#27)	16	3.7
11. 내 물건을 훔치거나 남용한다.	100	11. 감정 무시(#26)	16	3.7
12. 나를 속이거나 기만한다.	58	12. 불공평한 가사 분배(#24)	16	3.7
13. 음주.	42	13. 지출 갈등(#21)	16	3.7
14. 흡연.	85	14. 사생활 침해(#8)	16	3.7
15. 물질남용.	8	15. 흡연(#14)	13	3.0
16. 물리적 폭력.	14	16. 잔소리(25)	12	2.8
17. 인신공격을 해서 창피를 주고 곤란하게 한다.	71	17. 부재(#2)	10	2.3
18.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149	18. 거짓말(#11)	10	2.3
19.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90	19. 불평등한 대우(23)	10	2.3
20. 무책임하거나 부정직한 재정적 결정.	62	20. 음주(13)	9	2.1
21. 지출 및 자산관리 갈등.	117	21. 재정적 결정 관련 거짓말(#20)	8	1.9
22. 자산(돈)이 부족할 때 다른 가족원에게 우선 자산을 배분한다.	42	22. 무관심(#3)	6	1.4
23. 부모의 불평등한 대우.	101	23. 은폐(#10)	5	1.2
24. 불공평한 가사 분배.	124	24. 비방(#7)	3	0.7
25. 집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잔소리를 한다.	90	25. 물리적 폭력(#16)	3	0.7
26. 다른 가족원에게만 신경 쓰고 내 감정은 무시한다.	52	26. 망신(#17)	3	0.7
27. 다른 가족원을 편애한다.	60	27. 우대(#22)	3	0.7
28. 나를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131	28. 불특정(#29)	2	0.5
29. 기타(예 : 게임기를 망가뜨린다)	2	29. 물질남용(#15)	0	0

주: N = 431

손상 중증도

가설 1c는 손상 중증도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손상 중증도를 0점에서 10점까지 매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0점은 손상 없음, 5점은 중등도, 10점은 가장 중증을 나타낸다. 중등도의 손상을 경험한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점수 = 5점; $n = 72$; 16.7%), 중등도 이상(점수 = 6점, $n = 69$; 16%)와 (점수 = 7점; $n = 59$; 13.7%)가 그 뒤를 이었다. 요약하면, 총 254명(59%)이 중등도와 중등도 이상의 중증도를 경험하였다. 10명(2.1%)은 최고 손상 중증도까지 겪었다.

척도 신뢰도 및 상관관계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측정 지표의 신뢰도 계수 범위는 낙관성 0.65부터 용서의 부정이 없는 상태 척도 0.94까지이다. 손상 중증도는 0점부터 10점까지 단일 문항 척도였다. 하위 척도인 부정이 없는 상태(역채점)와 긍정 상태를 합산하여 용서에 대한 총점을 얻었다.

표 3에 나타난 상관행렬 검사에서 45개의 가능한 상관관계 중 42개가 유의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3개의 상관관계는 성별로 구성되어 낙관성, 탄력성, 긍정 상태와 관련이 없었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14개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작은 효과 범위($r = .10\sim.29$) 내에 있었고 15개는 중간 효과 범위($r = .30\sim.49$), 13개는 큰 효과 범위($r = .50\sim 1.0$) 내에 있었다.

표 3
신뢰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변수	α	M	SD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	---	--	.09	-.05	.17*	.12#	-.20*	.14#	.13#	.07	.11^
2. 낙관성	.65	3.32	0.65		---	.67*	.39*	.43*	-.31*	-.15#	.30*	.39*	.37*
3. 탄력성	.74	3.22	0.65			---	.29*	.29*	-.19*	-.13*	.22*	.34*	.30*
4. 신뢰	.93	3.71	0.89				---	.79*	-.52*	-.29*	.52*	.56*	.59*
5. 의사소통	.92	3.44	0.89					---	-.43*	-.31*	.43*	.50*	.51*
6. 소외	.87	2.28	0.86						---	.23*	-.56*	-.39*	-.52*
7. 손상 중증도	---	4.94	2.23							---	-.40*	-.35*	-.41*
8. 부정이 없는 상태	.94	3.83	0.87								---	.68*	.92*
9. 긍정 상태	.92	3.34	0.77									---	.91*
10. 용서	---	3.58	0.75										---

주: $N = 431$; * $p < .001$; # $p < .01$; ^ $p < .05$; 양측

다중회귀분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성별, 긍정적 기질 경향, 관계 친밀도 변수 및 용서 예측 손상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용서 예측 변수에 대한 계층적 회귀분석 요약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성별	.18	.07	.11 [#]	.14	.06	.10 [#]	-.02	.06	-.01	.06	.06	.04
낙관성				.33	.07	.29 [*]	.08	.06	.07	.08	.06	.07
탄력성				.14	.07	.12 [#]	.10	.06	.09	.10	.06	.09
신뢰							.29	.05	.34 [*]	.27	.05	.32 [*]
의사소통							.05	.05	.06	.01	.05	.01
소외							-.24	.04	-.28 [*]	-.22	.04	-.25 [*]
손상 중증도										-.08	.01	-.25 [*]
<i>R</i> ²	.01			.15			.43			.48		
<i>F</i>	5.14 [#]			25.51 [*]			52.74 [*]			55.51 [*]		
<i>df</i>	1:430			3:428			6:425			7:424		

주: *N* = 431; **p*<.001; [#]*p*<.05

토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족의 맥락에서 용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가장 처음 떠오르는 질문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 참여자들은 양쪽 부모가 다른 가족원보다 폭력을 가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생들의 연령대와 발달 단계를 감안할 때, 부모는 다른 가족원보다 이 학생들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을 듯하며(Fingerman, Cheng, Tighe, Birditt, & Zarit, 2012; Gavazzi, 2012; Schwanz, Palm, Hill-Chapman, & Broughton, 2014 참조) 결과적으로는 대인관계 초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Mao, Hsu, Fang(2016)은 부모의 지지에 대한 대만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대만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가장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율성 지지를 꼽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의 발전과 부모의 기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학생들은 대개 항의, 회피, 싸움, 굴복이라는 4가지 대처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굴복을 제외하면,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대만 학생들이 대처하는 이러한 방식은 가족관계에서 대인관계 관련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용서를 통한 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만 가정 내 위반행위의 특성

가족관계의 장기적 성격과 상호작용의 강도를 감안할 때, 가족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해소와 용서를 구하는 일은 가족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동기부여와 용서능력은 신체적 학대에서 정서적 협박, 모욕 혹은 비밀 폭로에 이르는 위반행위의 특성과 심각성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원에 의해 타인과 비교되는 것을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공격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이 행동은 가족원이 가한 가장 심각한 폭력으로 꼽히기도 했다. 부모의 비교는 자녀의 수행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공통된 방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부모는 자녀의 수행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이 보통인지, 우수한지, 아니면 탁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그 비교가 너무 지나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태도를 수반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경멸 역시 가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로, 참여자의 가족간 위반행위 경험에 따르면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폭력이기도 했다. 경멸은 가치가 없거나 고려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므로, 가장 심각한 폭력인 타인과의 비교에 이어 선택된 것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Fischer & Roseman(2007)은 경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 그 사람을 무시할 때 경멸의 사회적 기능이 수행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겪는 손상 중증도

참여자의 50% 이상이 중등도에서 평균 이상의 손상 중증도를 경험했다. Lemay, Overall,

Clark(2012)은 피해자가 높게 평가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평가절하를 감지하고 지각할 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의 특성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듯이, 타인과의 비교와 경멸은 높이 평가되는 가족원으로부터 평가절하된다는 인식과 느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손상 중증도가 높다는 것은 가족 피해자가 가족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이 취약성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욕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의 지원, 안전, 보호를 바라는 피해자의 의존성은 관계 평가절하로 인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Lemay, et al., 2012; Shaver, Mikulincer, Lavy, & Cassidy, 2009 참조). 더욱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으로 접어들 때까지도 부모의 관여와 지지가 끝나지 않을 때(Fingerman, et al., 2012; Schwanz, et al., 2014), 그리고 관계 평가절하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감정 손상의 중심 요소가 의존성일 때(Lemay, et al., 2012), 가족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그 관계에 헌신하는 피해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

결과는 낙관성과 탄력성 사이에 강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낙관성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인의 특질이다(Walsh, 2003). 과거 연구에서도 나타낸 바 있듯이(Carver, Scheier, and Segerstrom, 2010; Rutter, 2006 참조), 이 표본이 가진 탄력성의 특징은 가정폭력과 위반행위라는 역경 하에서 낙관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 또한 낙관성과 용서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용서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낙관성이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의미한다.

탄력성과 용서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Flach(1988)에 따르면, 탄력성은 인간이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분열과 재통합 주기를 통달하는 데 필요한 힘이다. 본 연구에서 탄력성과 용서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는 탄력성 있는 참여자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신뢰와 의사소통의 관계변수는 유의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은 의미 있는 정보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며, 신뢰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구두 또는 서면 문자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기대치로 정의된다(Zeffane, Tipi, & Ryan, 2011). 신뢰는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둥이다. 신뢰의 구축은 가족과 친구들 간에 건전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관계에서 건강하고 열린 의사소통은 신뢰가 발전하는 길을 열어준다. 신뢰와 용서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신뢰성이 높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과 용서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용서 과정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heldon, Gilchrist-Petty, & Lessley, 2014).

관계에서의 소외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손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소외와 용서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Scharp & Hall, 2017 참조)에 따르면, 가족이 친밀하고 온전하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가족원의 소외, 주변화, 소원한 관계의 형성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제도 전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다. Vangelisti(2006)는 가족관계의 비자발적 성격이 가족원의 관계 대안에 엄격한 제약을 가한다고 설명한다. 즉, 가족원에게 폭력이 가해지면 제약으로 인해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가정폭력 용서의 예측변수

모든 계단식 회귀모형은 용서를 예측하는 데 유의했다. 예를 들어, 낙관성과 탄력성은 2단계에서 용서의 변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바람직한 미래 결과에 대한 일반적 기대로 정의되는 낙관성은 가족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용서를 유의하게 예측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래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역경에도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한다(Rey & Extremera, 2014). Worthington & Wade(1999)는 대인관계에서의 용서에 대해, 관계와 그 관계 속 자신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용서의 발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성 역시 용서를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그 효과는 낙관성보다 낮았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번창할 수 있는 개인적 자질을 탄력성이라고 한다. 목적 의식, 상황에 따른 의미의 모색, 지지하는 감정 등 다양한 개념이 현재 탄력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Connor & Davidson, 2003).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폭력의 역경 속에서도 가해자를 용서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단계에서는 신뢰와 소외가 용서의 변량에 유의하게 기여했다. 건강한 관계를 신뢰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용서 연구에서 반복되는 주제였다(Asendorpf & Wilpers, 1998; Boon & Sulsky,

1997;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el, 1998 참조). 연구에 따르면 용서 역학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관계 파트너가 서로 구축하는 신뢰는 널리 연구되는 하나의 특징이다(Finkel et al., 2002; McCullough et al., 1998 참조). Rousseau, Sitkin, Burt, Camerer(1998)는 신뢰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수반한다는 데 주목했다. 신뢰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 또는 미래에 관계로부터 얻을 수익 기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소외는 유의하게 역으로 용서를 예측했는데, 이는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떨어진 참여자가 용의자를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Richman & Leary(2009)는 모든 부정적 또는 공격적 대인관계의 태도나 사건이 피해자가 인식하는 관계적 가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보복하고 더 이상의 사회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표본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거부당한 사람들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상 중증도 역시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용서를 예측했다. 감정 손상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손상은 평가절하되고, 환영 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느낌과 연결되는 뚜렷한 부정적 감정이다(Richman & Leary, 2009). 이 표본에서는 가해자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 사람들이 심각한 손상을 가했으므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는 폭력의 심각도 증가와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친밀도 감소는 불용(unforgive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no, McCullough, & Root, 2008; McCullough et al., 1998)고 명시한 문헌에 의해 뒷받침된다.

함의와 결론

우선, 위반행위 분석을 통해 지리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유의한 결과가 보여준다. 현대 대만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도, 가족은 여전히 대부분 다세대이며 효도(孝順)와 관계(關係)를 강조한다. 이 연구의 특정 폭력은 다른 문화와 유사한 폭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폭력에는 형제자매의 불공평한 대우, 불공평한 가사 분배, 가족과의 약속 불이행 등이 포함된다. 무시와 타인과의 비교는 대만

가정의 전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용서 과정의 이해에 문화적·민족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폭력 빈도가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으로 부모를 지목했다. 이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가장 심각한 폭력과 효도(孝順; filial piety), 관계(關係; relationships), 체면(面子; face-saving) 개념과 일치한다. 더욱이 문화와 발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만 대학생들의 삶에 부모가 다른 가족원보다 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결과적으로 부모와 대학생 자녀 사이에 빈번하고 구체적인 대인관계 초월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서 피해자가 겪은 손상의 중증도와 밀접한 관계변수는 가족 가해자의 용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긍정적 기질과 관련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정적 기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의 위반행위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 내에서 용서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관계변수가 회귀 방정식에 입력하자, 인구통계적 변수와 기질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관계 친밀도 변수가 용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참고문헌

- Battle, C. L., & Miller, I. W. (2005). Families and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227-241). New York, NY: Routledge.
- Bono, G., McCullough, M., & Root, L.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Two longitudinal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195.
- Cheal, D. (1993). Unity and difference in postmodern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4(1), 5-19.
- Enright, R. D., Freedman, S. R., & Rique, J. (199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R. D. Enright & J. North (Eds.), *Exploring forgiveness* (pp. 46-62).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amily (2017). *Taiwanese culture*. Retrieved on June1, 2017, from <http://theculturalatlas.org/taiwanese-culture/family-9a72fb03-04d5-4107-9a17-e908795b983e>
- Fincham, F. D. (2015). Forgiveness, family relationships and health. In L. L. Toussaint, E. L. Worthington, Jr., & D. R. Williams (Eds.), *Forgiveness and health: Scientific evidence and theories relating forgiveness to better health* (pp. 255-269). New York, NY: Springer.
- Fine, A. A. (1993). Curr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family diversity: An overview of the special issue. *Family Relations*, 42(3):235-237.
- Fischer, A. H., & Roseman, I. J. (2007).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1), 103-115.
- Hoyt, W. T., Fincham, F. D., McCullough, M. E., Maio, G., & Davila, J. (2005). Responses to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in families: Forgivingness, forgiveness, and relationship-specific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375-394.
- Karremans, J. C., Van Lange, P. A. M., Ouwerkerk, J. W., & Kluwer, E. S. (2003). When forgiving enhance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011-1026.
- Mao, C. H., Hsu, Y. C., & Fang, T. w. (2016).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by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during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6(2), 63-70. doi: 10.5923/j.ijpbs.20160602.05.
- Maio, G. R., Thomas, G., Fincham, F. D., & Carnelley, K. (2008). Unraveling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307-319.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Jr,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doi:10.1037/0022-3514.75.6.1586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3). Adolescents' willingness to forgive parents: An empiric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 155-174.

- Rey, L., & Extremera, N. (2014). Posi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forgiveness: Identifying the unique contribu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ies, Big Five traits, gratitude and opti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8*, 199–204.
- Riek, B. M., & Mania, E. W. (2012).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 Relationships, 19*, 304–325.
- Rye, M. S., Loiacono, D. M., Folck, C. D., Olszewski, B. T., Heim, T. A., & Madia, B. P. (200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forgiveness scales. *Current Psychology, 20*(3), 260–277.
- Scharp, K. M., & Hall, E. D. (2017). Family marginalization, alienation and estrangement in family relationships: Questioning the nonvoluntary status of family relationship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1*(1), 28–45. doi: 10.1080/23808985.2017.1285680
- Schwanz, K. A., Palm, L. J., Hill-Chapman, C. R., & Broughton, S. F. (2014).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relations with parents and academic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13–17.
- Trost, J. (1990). Do we mean the same thing by the concept of the family? *Communication Research 7*(4), 431.
- Worthington, E. L. (2005). More questions about forgiveness: Research agenda for 2005–2015. In E. L. Worthington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557–575). New York, NY: Routledge.
- Zeffane, R., Tipu, S. A., & Ryan, J. C. (2011). Communication, commitment and trust: Exploring the triad.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6* (6). doi: 10.5539/ijbm.v6n6p77

발 표 자 Yoriko Tatsumi



Prof. Yoriko Tatsumi
Seisen University in Japan
Member, Institute of Global Concern, Sophia University in Japan

■ EDUCATION

- Ph.D. in Area Studies, 2010, Sophia University, Tokyo, Japan
- M.A. in Anthropology, 2000, Nanzan University, Nagoya, Japan
- B.A. in Philosophy, 1997, Sophia University, Tokyo, Japan

■ TEACHING EXPERIENCE

- 2014 to present: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tudies on Global Citizenship, Seisen University
- 2011 to 2014: Lecturer, Department of Studies on Global Citizenship, Seisen University
- 2006 to 2011: Lecturer(five-year term), Department of Studies on Global Citizenship, Seisen University

■ PUBLICATIONS

- On Qualification as Survivors and as Evacuees: Four years of Mother-and-child Displacement in Tokyo due to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p.1-p.17) (in Japanese), Research Institute for Christian Culture, no 25, 2017
- Tasks,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Support: Three years of the Mother-Child Evacuees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 Accident(p.35-p.58) (in Japanese), Report for Grant-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2016
- Muslim Travellers in a Time of Globalisation: Studying Islam in Cairo among the Maranaos in the Philippines, Southeast Asian Muslim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Miichi Ken and Omar Farouk(eds.), Palgrave Macmillan, 2014
- Peace Generated by Evacuation: Networking among the Mother-Child Evacuees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 Accident(p.187-p.209) (in Japanese), Heiwano Jinruigaku, Oda Hiroshi(ed.), Horitsubunkasha, 2014
- Ethnography on “Voluntary Evacuation”: Anthropology of Location: Displacement during Independence Struggle in East Timor and during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 Accident (p.240-p.299) (in Japanese), Global Shakaiwo Aruku Akamine Jun(de). Shinsen Press, 2013
- “Muslim Travellers in a Time of Globalisation: Studying Islam in Cairo among the Maranaos in the Philippines”, Dynamics of Southeast Asian Muslim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JICA-RI, 2013
- War Experiences as Living History (p. 233-p.246) (in Japanese), Funtosuru Joshidaiseino Fieldwork, Okada Press, 2012
- Studying in travelling: the Cases of Philippine Muslim Students Abroad (p.29-p.47) (in Japanese), Tonanajiano Islam, Nishii Ryoko(eds), TUFS Press, 2012
- Transnational Experience of the People living in the Muslim Peripheries: Discourses on Studying Islam Abroad among the Maranaos in the Philippines (p.37-p.64) (in Japanese), Globalka no nakano Syukyo, Sophia University Press, 2010

- Revival of Sultans?: Usages of Traditional Titles among the Maranaos in the Philippines (p.81-p.93) (in Japanese), Seisen Joshidaigaku Kiyō, Seisen University, 2008
- Who are “radicals” in separatist movements among the Muslims in the Philippines (p.45-p.158) (in Japanese), Chuto Tonanajia niokeru islamtono taiwano kanosei,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05
- Islamic Resurgence among the Maranaos: Globalized Islam in Philippine Muslim Societies (p.12-p.19) (in Japanese), AGLOS News Sophia University COE Project, 2004
- Socio-political Situations and Educational Development among the Filipino Muslims (p.73-p.87) (in Japanese), Kaihatsu to Shakaiteki Antei,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Issues, 2002
- Studying Islam Abroad-the case of Maranaos in the Philippines (p.135-p.141) (in Japanese), Shukyo to Shakai,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Religion, 2002

Continuing challenges,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Cases of mother-child evacue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at
spent three years in Tokyo

Yoriko Tatsumi

Seisen University in Japan

Member, Institute of Global Concern, Sophia University in Japan

Evacuees creat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re 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 that were displaced by the disaster and the large-scale accident caused by the disaster. As of January 29, 2016, nearly five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number of evacuees is 178,000 [Reconstruction Agency webpage].

Among the evacuees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is paper focuses on the mother-child evacuees that evacuated to Tokyo Metropolis in fear of the radiation damage caused b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ough the government has issued evacuating orders to the areas considered as heavily affected by radiation, many of those mother-child evacuees are those who are not under the government direction: they decided themselves to take the child to leave. The fathers as family were not able to evacuate because of their work and their house with the relatives.

These mother-child evacue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fit the definition of IDP because they were forced to escape or leave their permanent or habitual residences

as a result of deciding the risk of health hazards posed by radiation, which was caused by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to be grave. Here, we look at the state of such evacuees after almost three years since the evacuation, based on the records of the four pairs that the authors and the co-researchers interviewed over the period of January to June 2014.

1. The case of Ms. Nakamura

Ms. Nakamura, who is originally from the central region of Fukushima Prefecture, tentatively returned at the end of March after leaving the prefecture with one elementary school child on March 19 and staying at budget hotels, etc. for evacuation. She collected information after returning to Fukushima using the Internet, which she had not been using very often before, and was astonished that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from the TV and the Internet was so different”. Also, notices passed around in the neighborhood and the local news emphasized that it was safe. In the beginning, when she was not sure which information to trust, she would evacuate over the weekends. She then evacuated to Tokyo and after hearing about the opening of large-scale shelters in Tokyo evacuated to a shelter. She continues to live in evacuation ever since. There are a number of areas in which the evacuees are concentrated in Tokyo. Ms. Nakamura lives in one of those areas and through her interaction with other evacuees, which also are her neighbors, she formed the following impression about the difficulties that the people around her currently face.

I can tell that people, myself included, aren't spending much money on new clothes. They're all wearing the same kind of clothes all the time, mostly from last year. If these were people living in a normal housing complex, their clothes would change every season, so they must be cutting down on unnecessary expenses for fear of an uncertain future. If we were certain about the future, we could do different things with a sense of ease, but that is not the case. I think people have

a constant nagging fear of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and they feel they need to cut down. I think this is reflected in their consumption behavior.

There is also stress specific to mother-child evacuees. Ms. Nakamura explains, saying that “this probably happens in normal housing complexes as well”.

All the evacuees, myself included, are under a lot of stress from the beginning. The mothers get extremely unstable, especially in the case of mother-child evacuees, with just the two of them, the mother and child, or the three or four of them, the mother and children. This is because these mothers used to be in a stable community with a large family before. There have been countless times in the past when things got swept away into a negative direction by something really trivial. That kind of personal relationship is stressful. In a group of mother-child evacuees, it’s naturally not the case that elderly people are there to be placating them and try to organize them as a whole.

Recently, especially since the civil action against TEPCO started in 2013, I feel there is a growing gap between the people that are suing TEPCO and those that aren’t. It feels like we are not standing on an equal footing.

You know, there’s bound to be some problems once you get to know others and start living among them and it’s probably a condensed version of what happens in some housing complexes but if you were living in a normal housing complex with your family you could blow off steam through chatting within the family. But with mother-child evacuees, things don’t go so well because they’re under so much stress just for that. Grandparents that evacuated with their grandchildren seem stable and doing well. They seem to be living quietly without getting caught up in emotional skirmishes, in that sense.

2. The case of Ms. Maekawa

Ms. Maekawa, who is originally from the central region of Fukushima Prefecture, decided to evacuate because she found it difficult and stressful to separate meals living with her parents-in-law. Right after the earthquake, whether you had a victim's certificate or not affected the selection of shelters. However, because Ms. Maekawa could not ask her parents-in-law to have a victim's certificate issued, she had to evacuate and live in a room in Tokyo made open to earthquake victims by an individual. She subsequently moved to a different municipally-owned public housing complex and lives there now. S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with various groups while living in evacuation in Tokyo. She has also started a group, in search of "companions she can have a frank conversation with", for evacuees to come together. Through these experiences, she came to realize four years after evacuation that she is being asked "what kind (type) of an evacuee she is", a question about "the stance as an evacuee" that was not asked before.

Every time I go there, my in-laws ask me when we will come back. Because the kids that are in the same grade as my daughter are living normally going to school. It must be fun. So the people that left are the weird people in the normal crowd.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even evacuate from Tokyo. But to them the ones remaining in Tokyo are not normal. But to the ones remaining "it's a joke that they are evacuating from Tokyo". That kind of perception gap is everywhere.

There is the problem of voluntary evacuation regardless of whether it's an area under a voluntary evacuation directive or an area that's not under an evacuation directive. And there's also a difference between those that voluntarily evacuated with their family and the mothers that voluntarily evacuated with their children. For mother-child evacuees, there's also a difference between mothers that are married and those that aren't. What else? There are also times when your stance on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vities like lobbying is questioned. You're asked why

you are living in evacuation. For example, you know for example, I don't do things like backing someone up in the group and collecting signatures. So some people, other mothers in evacuation, ask me if I think it's ok to just do it for fun. They express themselves by attacking others to maintain that they are right. We're starting to only be able to express ourselves like that. I think people are only able to justify what they are doing by adopting a style of expression in which they attack to justify themselves. I feel the evacuees themselves are starting to fragment like that.

Where is the root of such suffering?

I think the root of the serious problem related to the whole is probably that people are not confident about what they are doing so they need to justify what they are doing by demeaning others, and to make others admit and to position themselves that they are right. Money issues come up but the key issue is probably that. I think. People say the cause of fragmentation is that some people got compensation and some didn't and I know that's part of the reason but when you think about the different forms of fragmentation I think the root is what I just said. If you can justify yourself. If you can believe what you're doing and the fact that you evacuated is right or not. But nobody's going to tell you that you're right, and even if they did it would be an imposed correctness unless you believe so yourself. So I think the fact that people have no other way right now but to attack others to express they are right reflects the psychological state and social situation.

Why should being questioned about one's correctness be such an issue?

The reason you left (from the place where you lived) is that the place was contaminated and was not good for the children. That's why you made the choice

to leave. But you left from an area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s not requiring evacuation so that choice itself really has no basis. I or other mothers that voluntarily evacuated can't prove our rightness to anywhere. It's the same with your husband. You can't prove your rightness. So that nags you time and again, and rears its head on different occasions. So we need to find a rightful cause. Protecting your children is a rightful cause but that's a virtuous one and what we need is a rightness that can act as a basis. I know this may sound extreme but, in the end, we need lots of news of the high incidence of thyroid cancer in Fukushima or of the mother of a family that didn't evacuate that committed suicide or of the children that got cancer to find our rightness. But nobody thinks that's ok. But I think that's the only way the country will change and the only way we can keep our rightness.

For example, we're now living in evacuation in Tokyo and I think to myself, "Oh, now the kids won't get thyroid cancer." but my husband say things like, "There's no way they won't get cancer with all the photochemical smog and exhaust gas in Tokyo." And if the kids get cancer despite living in evacuation, he will say, "I told you so." It's obvious he will say, "There really was no need to evacuate. It was all a waste." All of us, the mothers and all, really have nothing to rely upon.

You may think we're a bit paranoid after hearing this but it's really nothing special for us (the evacuees) all to think about this. Besides, I think this is the actual process that we go through. So the fragmentation between evacuees is happening as a miniature version of that and people think they need to defeat others in order to feel that they are right.

As Ms. Maekawa says herself, the explanation that people need to deny others to somehow hold their ground may sound extreme. However, during my interaction with the mother-child evacuees as a researcher, I have encountered moments where the evacuees were

trying to release emotional pressure (temporarily) by denying the stance of fellow evacuees or sometimes that of the “supporters”, etc. I had experiences, most likely due to my deficiency in communication skills, where I became acutely aware of the significance which the difference between evacuees and “non-”evacuees held for the evacuees. Each of these experiences made me think about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people who chose to evacuate as mother-child evacuees and continue to do so, and the “non-”evacuees, myself included.

3. Difficulty and possibility of “support”

We become aware, from Ms. Maekawa’s story, of a stress different in its nature from that experienced by Ms. Nakamura in her “interactions”. We see a situation in which the evacuees, who are suffering enough from the very fact that they are living in evacuation, are caught up in a conflict structure because of groupthink, making it difficult to simply come together to have a heart-to-heart. The reason behind this, according to Ms. Maekawa, is that people lack confidence in themselves. Under circumstances where people lack confidence, a subtle difference or “something trivial” is seen as an immense difference that is insurmountable and this leads to a situation where people have to deny others because of the deep gap that lies between them.

A great number of evacuees are unwilling to be “involved in” such things as these situations are certainly unpleasant. These people keep a distance from any kind of “organization” as a countermeasure. Those attitudes, however, may lead them to isolation, refusing any kind of assistance or help.

The case of Ms. Maekawa and Ms. Nakamura exemplify the mother evacuees that are in search of their own comfortable space even in the face of a variety of stressors. The mother evacuee feels that the family and the relatives do not respect her choice because they cannot prove the risks of radiation. She is also torn by the difference among the evacuees themselves.

People that interact with the evacuees and are involved in support activities will perhaps continue their involvement staying consciously aware of the difference within the evacuees that normally remains dormant yet at times becomes amplified (more so than is necessary) between the evacuees and non-evacuees. Supporting the mother-child evacuees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requires us to consider the ways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for a wider solidarity.

끊임없는 도전, 역경, 그리고 “지원” 가능성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대피 후 3년간
도쿄에서 거주한 모자 가정을 중심으로

Prof. Yoriko Tatsumi

Seisen University in Japan

Member, Institute of Global Concern, Sophia University in Japan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피난민은 재해와 그로 인한 대형 사고 때문에 고향을 떠난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5년째인 2016년 1월 29일 현재 피난민 수는 178,000명에 이른다[재건단(Reconstruction Agency) 홈페이지].

이 논문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난민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해를 염려하여 도쿄로 대피한 모자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자녀를 데리고 떠난 모자 가정이 많다. 아버지들은 직장 때문에, 혹은 친척과 함께 살고 있어서 대피할 수 없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민이 된 모자 가정은 자연재해와 인재로 야기된 방사선이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하여 영구 혹은 상주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떠나야 했기 때문에 IDP의 정의에 부합된다. 여기서는 저자와 공동 연구자가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면담한 4쌍의 기록을 토대로 피난 후 거의 3년이 지난 피난민들의 상태를 살펴본다.

1. 나카무라 씨의 사례

후쿠시마 현 중부 지방 출신인 나카무라 씨는 3월 19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후쿠시마 현을 떠나 저렴한 호텔 등을 전전하며 피난 생활을 하다가 3월 말에 일단 돌아왔다. 후쿠시마로 돌아온 후 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TV와 인터넷의 정보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공고문이 동네 안에서 돌고 현지 뉴스는 안전하다는 말만 강조했다. 처음에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때는 주말 동안 대피하기도 했다. 그래서 도쿄로 대피했다가 도쿄에 대규모 대피소가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대피했다. 그 후로 계속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도쿄에는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많다. 이 지역 중 한 곳에서 역시 피난민인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는 나카무라 씨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새 옷을 잘 안 사는 편이다. 거의 작년부터 모두 내내 같은 옷만 입고 있다.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었을 테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안심하고 다르게 살아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되도록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소비 행태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

모자 가정 피난민만 겪는 스트레스도 있다. 나카무라 씨는 “일반 주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나도 물론이고 피난민들 모두 처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엄마들은 극도로 불안정한다. 특히 엄마와 아이 두 식구뿐인 가정이나 엄마와 아이까지 세 식구, 네 식구인 모자 가정은 더 그렇다. 예전에는 대가족과 더불어 안정된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휩쓸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인관 관계가 스트레스다. 모자 가정들의 모임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회포를 푸는 광경을 자연스럽게 보기 힘들다.

최근에 특히 2013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시작된 이후 도쿄전력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고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서로 친해지고 같이 어울려서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일반 주택에 살면 일어나는 일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일반 주택에 산다면 가족들끼리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을 텐데, 모자 가정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 그럴 수가 없다. 손주들과 함께 대피한 조부모는 안정돼 보이고 잘 지내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감정 싸움에도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 같다.

2. 마에카와 씨의 사례

후쿠시마 현 중부 지방 출신인 마에카와 씨는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따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대피를 결정했다. 지진 발생 직후 이재민 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대피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에카와 씨는 시부모에게 이재민 증명서를 발급 받아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어서 대피 후 개인이 이재민에게 개방한 도쿄의 방에서 지냈다. 그 후 시 소유의 다른 공영주택으로 이사해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 마에카와 씨는 도쿄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난민들끼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모임도 시작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대피 후 4년만에 자신이 “어떤 종류(유형)의 피난민”이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피난민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들은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본다. 딸아이와 같은 학년인 아이들은 거기에 살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 같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알다시피, 도쿄에서도 대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겐 도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것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도쿄에서 대피하는 건 우스갯소리나 같다”. 그런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자발적 대피 지시가 내려진 지역이든 대피 지시가 없는 지역이든 자발적 대피에는 문제가 있다. 자발적으로 대피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대피한 사람들과 자녀를 데리고 대피한 엄마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모자 가정이라도, 결혼한 엄마와 미혼인 엄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또 무엇이 있을까? 로비 같은 정치활동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문을 받기도 한다. 왜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단체 내에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서명을 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대피 중인 다른 엄마들은 나에게 그저 재미 삼아 하는 일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표현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 같다. 피난민들도 이런 식으로 분열되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그러한 고통의 근원은 어디일까?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돈 문제도 있을 테지만 핵심은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은 분열의 원인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분열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면 근본원인은 역시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스스로 정당화시켜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대피한 사실이 옳은지 그렇지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해 준다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저 강요된 확신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왜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가?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난 이유는 그 곳이 오염되어 아이들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떠나는 지역이 정부가 대피가 불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이라 선택 자체에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나나 다른 엄마들은 자발적으로 대피했지만 어디에서도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어 시시때때로 고개를 든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 한다.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은 정당한 사유이지만 너무 교과서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근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다. 극단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당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에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했다거나, 대피하지 않은 가족의 어머니가 자살했다거나, 아이들이 암에 걸렸다는 뉴스가 많이 필요하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바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도쿄에서 대피 생활을 하면서 “아, 이제 아이들은 갑상선암에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은 “도쿄도 광화학 스모그와 배기가스로 가득 차 있는데 암에 안 걸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암에 걸리면 “그러게 내가 뭐했어.”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 남편은 “대피할 필요가 없었다.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말할 게 틀림없다. 우리 엄마들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을 들으면 피해망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피난민들)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 과정인 것 같다. 피난민들 사이에 분열이 실제 과정의 축소판처럼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보는 것 같다.

마에카와 씨의 독백처럼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저자가 연구자로서 모자 가정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난민들이 다른 피난민이나 때로는 “지지자들”의 입장을 부인함으로써 감정적인 압력(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순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아마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탓이었지만, 나는 피난민과 “비피난민”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각각의 경험은 나에게 모자 가정 피난민으로서 대피를 선택하고 계속 대피 생활을 할 사람들과 나 같은 “비”피난민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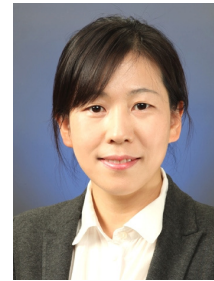
3. 역경과 “지원” 가능성

우리는 마에카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카무라 씨가 “교류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과 성격이 다른 스트레스를 알게 된다.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난민이 집단 사고로 인한 갈등 구조에 휘말려, 그냥 모여서 담소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을 목격한다. 마에카와 씨는 이면에 숨겨진 이유로 사람들의 자신감 부족을 꼽았다.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미묘한 차이나 “사소한 것”도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로 보이고,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깊은 간극 때문에 서로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다수의 피난민들은 이런 불편한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종류의 “조직”과도 거리를 둔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나 도움도 거절하면서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에카와 씨와 나카무라 씨의 사례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스스로 안락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모자 가정 피난민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모자 가정 피난민은 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피난민들간에도 차이 때문에 분열이 생긴 상태다.

피난민과 교류하고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휴면 상태에 있지만 피난민과 비피난민 사이에서 (필요할 때보다 자주) 증폭될 수 있는 피난민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모자 가정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대를 위해 차이점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희주 교수 (가톨릭대, 사회학)
Prof. Heeju Shin (Department of Sociology, CUK)

■ EDUCATION

- 2008 Ph.D. Sociology,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2000 M.A.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1995 B.A.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TEACHING EXPERIENCE

- 2016 Current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2008 2015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PUBLICATIONS

- Shin, Heeju 2017. "How Do Neighborhoods Affect People's Everyday Life? For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Social Philosophy* 34 (in print)
- Shin, Heeju, Lissette Aliaga, and Marcus Britton. 2017. "Misconceived Equity? Health Care Resources, Contextual Poverty, and Child Health Disparities in Peru." *Social Science Research* 66: 234-247

- Shin, Heeju. 2016. "Links between community poverty and child and maternal health in Peru: which aspects of community poverty matte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 51-71
- Shin, Heeju, David Leal and Christopher Ellison. 2015. "Sources of Support for Immigration Restriction: Economics, Politics, or Anti-Latino Bi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7: 459-481
- Shin, Heeju, David Leal and Christopher Ellison. 2015. "Does Anti-Hispanic Bias Motivate Opposition to Non-English Languages?" *Sociological Inquiry* 85: 375-406
- Shin, Heeju. 2014. "Migration, Labor Market, and Prevalence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Mexico"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40: 41-63
- Britton, Marcus, and Heeju Shin. 2013 "Metropolitan Residential Segregation and Very Preterm Birth among African American and Mexican-Origin Women." *Social Science & Medicine* 98: 37-45
- Shin, Heeju. 2013. "Single Motherhood and Family Strategies in Urban Mexico and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9: 1-23
- Shin, Heeju. 2013. "Coresident Extended Kin and Time Allocation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in Mexico." *Journal of Family Issues* 34: 918-951
- Ellison, Christopher, Heeju Shin, and David Leal. 2011. "The Contact Hypothesis and Attitudes toward Latino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92: 938-958
- Villarreal, Andrés and Heeju Shin. 2008. "Unraveling the Economic Paradox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Mexico: The Role of Family Networks," *Sociological Quarterly* 49: 565-595
- Shin, Heeju. 2007. "Child Health in Peru: Importance of Regional Variation and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s Height and Weigh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418-433
- Shin, Heeju and Byung-Sul Byun. 2001. "Evaluation and Prospects of National Trust Movement." *Space and Environment* vol.3, Korean Space and Environment Association (In Korean)

Session 3

학생참여 프로그램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신뢰와 용서

불효자 방지법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베이비 박스는 철거되어야 하는가?

Trust and Forgiveness

Is the enforcement of "Filial Duty Act" necessary?

Should the Baby Box be removed?

Session 4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Symposium hos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조선 가족의 변화과정과 여성 | 이순구 편사연구원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 | 장성규 교수

혼인계약과 신뢰 | 권경휘 교수

Historical Changes in Family in the Chosun Dynasty and Women | **Researcher Soongu Lee**

A Study of the Changes of Family Romance Appear in Korean Literature Since 2000 | **Prof. Sungkyu Jang**

Marriage Contracts and Trust | **Prof. Kyung-hwi Kwon**

사 회 자 신 승 환



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철학전공)
Prof. Syng-hwan Shin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 학력

-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 활동

- 한국하이데거(Heidegger) 학회 회장
- <철학연구회> 회장 역임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학술위원

■ 저서

-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살림 2009)
-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한길아트 2008)
- 지금 여기의 인문학(휴머니타스 2010)
- 철학, 인간을 답하다(21세기북스 2014)
- 해석학(아카넷 2016)

■ 공저

-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가톨릭대학교출판부)
-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교수신문사)
- 근대의 끝에서 다시 읽는 문화(도서출판 지허)
- 우리말 철학사전(1-5) 공동 편집 등

발 표 자 이 순 구



이순구 편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Researcher Soongu Le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학력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학과 박사 졸업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졸업

■ 경력

- 2016 ~ 현재 한국여성사학회 회장
- 2009 ~ 2011 『페미니즘 연구』 편집위원장
- 2000 ~ 2000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객원연구원
- 1990 ~ 현재 편사연구소, 편사연구소
- 1988 ~ 1989 경기대 강사

■ 저서

<저서>

-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1)

<공저>

- 『한국 왕실여성 인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한국여성사 깊이읽기』 (푸른역사, 2013)
-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사1, 두산동아, 2005)

<연구논문>

- 『조선시대 혼인과 이혼에서 여성의 지위: 공동체 형성의 원리로서의 혼인과 그 해체』, 『젠더법학』 13, 한국젠더법학회, 2016

조선 가족의 변화과정과 여성

Historical Changes in Family in the Chosun Dynasty and Women

이 순 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머리말

조선은 초기에 남자가 움직이는 혼인을 했다. 즉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인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혼인형태였다. 이는 조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래된 혼인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서옥제의 전통과 관련이 있으며 신라나 고려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인 형태는 가족 구성이나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형성되기 어렵게 했다. 중국의 강력한 부계중심 가족제도가 조선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가족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특히 조선 여성들의 의식이나 생활상을 알고자 할 때 먼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선의 가족제도 내에서는 여자 집안이 갖는 의미가 컸다. 어머니 신분이 자식의 신분 결정에 관건이 됐고,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로 자식들에게 똑같이 상속되었다. 제사도 조선초기까지는 딸과 사위가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거듭 말하지만, 중국의 부계중심 가족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물론 조선후기가 되면, 조선이 지향한 부계적 가족제도가 정착을 하게 된다. 족보가 발달하고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장자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현실에서 부계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한 집안이 더 많은 과거급제자를 냈다고 한다. 부계적 가족제가 보편화되어 갔다.

이러한 가족제의 변화과정에서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다. 남자들 보다 여자들이 가족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가족제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도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여성들은 가족제가 부계적으로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딸에서 며느리로 전환됨을 느꼈을 것이다. 친정에서 딸로 살다가 시집의 며느리로 살아야 했다. 이는 큰 변화였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조선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의식이 딸에서 며느리로 바뀌고 부계적 가족제도가 보편화했다고 해서 조선에서 여자 집안의 비중은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을까? 온전히 중국과 같은 부계 가족제도가 됐을까? 그리고 딸에서 며느리로 가면서 조선의 여성들을 자신의 권리를 잃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확보하는 면이 있었을까? 조선 가족의 변화 과정을 여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이러한 의문점에 잘 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처가거주의 전통

1. 처가거주의 전통

정부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국의 예의가 비롯되는 것은 바로 혼인의 예입니다. 바르게 음(陰)이 양(陽)을 쫓아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내가(內家)에서 자라게 하니 본종(本宗)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양인이면 모두 양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은 전장문물을 모두 중국을 본받으면서 오직 혼인례는 굳이 옛 습속을 따라 양이 음을 쫓아 남자자 여자 집으로 가서[男歸女家] 아들과 손자를 낳고 외가에서 자라게 하니, 사람들이 본종의 중한 줄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친하면 모두 친해집니다.”하였다.

1414년(태종 14) 1월 의정부가 태종에게 현안을 아뢰는 장면이다. 비첩 소생에게 관직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하는 논의였는데, 그 근거에 조선 혼인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양이 음을 쫓아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혼인[男歸女家婚]을 하고 있어 이 때문에 아이들이 외가에서 자라게 되고 따라서 내가 즉 본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머니 집에서 자라니 어머니를 중시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친하면 그 자식도 친해진다는 주장이다.

이 시기 조선에서 남귀여가혼 즉 남자가 움직이는 혼인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때에는 여자 집에서 혼인식을 올릴 뿐만 아니라 아예 혼인 후 거주 자체를 여자 집에서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거의 17세기까지 이러한 혼인이 대세였다.

조선 초기 사림파의 종장이라고 하는 김종직(1431-1492)이 밀양에서 태어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아버지 김숙자의 고향은 선산이었지만, 김종직은 선산이 아닌 밀양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밀양 박씨이다. 김종직 자신도 부인 조씨와 혼인 후에는 처가인 금산(金山: 지금의 김천)에서 주로 거주했다. 물론 관직생활 후에는 서울에 머무는 기간이 길었지만,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은 대개 처가에 거주했다. 아들 목아(木兒)가 죽었을 때 금산에 있는 장모 즉 아이 외할머니 묘 곁에 묻었으며, 벼슬살이를 쉬게 될 때나 어머니에 대한 여묘살이를 마친 후에도 늘 금산(金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김종직의 혼인 후 거주지는 금산이다. 그러나 모든 관직을 그만 둔 후에는 노년을 금산이 아닌 밀양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는 처조씨가 먼저 죽어 재혼을 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김종직은 52살에 부인을 잃고 3년 후 18살의 문극정(文克貞) 딸과 재혼한다. 그런데 이때 김종직이 처가살이를 하지는 않는다. 두 번 째 부인 문씨가 바로 김종직 집으로 우귀(于歸: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재혼 상황에서는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직자로서 현달한 김종직에게는 일정규모의 집안살림이 있었고 우선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했으므로 재혼을 했다면 여자가 곧바로 남자 집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문씨는 곧바로 우귀를 했다. 그리고 재혼으로 처가 쪽 거주 의미가 없어진 김종직으로서 말년에 서울이 아닌 밀양생활을 택했던 것이다. 남자가 움직이는 조선의 혼인 형태는 중국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원래 우귀란 『시경』 주남(周南) 편에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의미했다. 즉 남편 집이 곧 여자들의 본래 집이기 때문에 혼인하고 남편 집으로 가는 것이 진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귀’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며느리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취(取)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부 쪽에서 누군가에게 ‘딸을 주었다’거나 누군가에게 ‘신부’로 주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부계 또는 남자 집안 중심으로 혼인이 표현되고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귀(歸)’ 즉 ‘시집간다’는 개념이 조선 중기까지도 보편화돼 있지 않았다. ‘귀’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까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고 여자는 혼인해도 그대로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의 혼인은 남자 집안 보다는 오히려 여자 집안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풍속은 부인 집안을 중시한다.[國俗重婦族]”¹⁾

1801년 5월 27년 심노승이 자신의 일기에서 한 말이다. 처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자신이 처제와 그렇게 가까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이다.

심노승은 중국 고대에 성인(聖人)이 복제를 정할 때 부인 집안의 형제자매는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의리(義理)에 속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풍속은 부인 집안을 중시하여 부인의 부모를 장인, 장모가 아니라 빙부모라 부르고 처가의 형제자매를 그냥 형제자매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퇴계선생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인의 부모를 구별해서 부르지 않고 또 처가 형제를 형제라고 하니 경박한 풍속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나는 부인 집안에 대해 어려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모형제자매 대하기를 나의 집안과 다르게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부인이 죽으면 그 집안과는 서로 더붙지 않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의(義)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나 나는 부인이 죽은 후에 그 집안과 서로 보기를 더욱 절실히 했다.”

심노승은 우리나라가 부인 집안을 중시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전제 하면서 자신이 부인 집안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를 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독한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죽고 나서도 처제인 윤씨부인과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던 것이다. 사실 심노승은 부인을 잃었고 또 처제는 남편을 잃은 과부상태여서 처제는 시택으로부터 형부와 편지를 주고받지 말라는 주의까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편지를 주고 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심노승이 유배를 가게 됐을 때 교류하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처제는 끝까지 심노승에 대한 위로와 염려를 아끼지 않았다.

심노승은 18-19세기 사람으로 조선 초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처가살이를 오래 한 것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인이 죽은 후에도 처제와 교류를 계

1) 『남천일록』, 1801년 5월 27일.

속할 만큼 여전히 처가와 관계가 돈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 오랫동안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혼인, 그리고 처가에 거주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조선후기로 가면 처가 거주기간이 짧아져서 1-2년에 불과하게 되는 이른바 해묵이 정도가 되지만, 여전히 처가와 돈독한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처가거주의 전통은 시기에 따라 이 후기까지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가거주 사례

1) 양동마을 형성 과정

양동마을이 형성된 과정이나 박세당이 처가살이 한 것은 조선의 처가거주 사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먼저 양동마을 형성과정은 처가거주 사례이면서 빠르게 부계마을로 전환한 매우 흥미로운 경우이다.

양동마을에 먼저 들어온 것은 경주 손씨 쪽이었다. 손씨 중에 처음 양동마을 사위가 된 사람은 손소(孫昭: 1433-1484)이다. 손소는 본래 안덕현(지금의 청송군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안덕이 어머니 권씨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손사성은 권씨와 혼인한 후 줄곧 처가인 안덕에서 살면서 장인 권명리의 은택을 많이 받았다. 안덕은 손소에게는 외가, 아버지 손사성에게는 처가였다. 같은 이유로 손소도 혼인을 함으로써 안덕을 떠나 양동으로 이동하게 됐다.

손소는 유복하의 딸과 혼인해서 양동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위의 신분으로 이 지역에 살게 된 사람은 손소가 처음이 아니다. 장인인 유복하 역시 이 지역에는 사위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유복하도 또 이 지역 혼도로 있던 이승평이란 사람의 딸에게 장가들어 양동마을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손소 이전까지는 사위에서 사위로 그리고 다시 사위로 이어진 마을이었다. 물론 당시 마을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위들이 득실득실한 마을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었다. 이는 조선후기의 상황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조선 초기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손소가 양동마을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렇게 사위들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계속 됐을까? 손소가 들어오기 이전처럼 사위에서 사위로만 이어지지는 않았다. 손소에게는 이번(李蕃)이라는 사위가 있었고, 그에게서 이연적이라는 외손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두 인물로 인해 이후 양동마을은 더 이상 사위에서 사위로 이어지는 마을이 아니게 됐다. 이제 이 마을은 손소의 경주 손씨 집안과 이연적의 여주 이씨 집안이 양대 주류를 이루는 부계 중심 마을이 되어갔다.

이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 손소 이후 양동마을은 계속 다른 사위들로 이어지지 않고 손씨와 이씨가 주류인 마을로 성장해왔을까?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역시 손소이다. 손소가 뛰어난 인물이 됨으로써 손소를 중심으로 하는 부계적 계승 형태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손소는 1459년(세조 5) 27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리고 승문원 주서로 있으면서 본 문예사에서 장원을 해서 한 등급 특진을 하게 된다. 문예사는 문신들에게 보이는 시험인데, 여기서 장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증명한 것이 된다. 손소가 결정적으로 조선에서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은 이시애 난 평정에 참여하여 공신으로 책봉되면서이다. 1467년(세조 13) 11월 2일 적개공신 2등에 봉해지고 세조로부터 교서를 받았다.

조선에서 공신이 되고 군에 봉해지는 것은 특별하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기억될 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지역사회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된다. 손소를 중심으로 집안이 이어지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양동 마을에서 손소와 손씨 집안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손씨 집안이 세거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더구나 손씨 집안의 현달은 손소 한 대로 끝나지 않았다. 둘째 아들 손중돈(1463-1529)이 손소 이상으로 관직이 높아졌으며 학문적으로도 뛰어나 거둬 집안을 빛냈다. 손씨 집안이 양동마을에서 행세할 수 있는 분위기는 더 강력해졌다.

그런데 양동마을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출현했다. 손소의 외손 이언적이다. 손소의 둘째 딸이 이번과 혼인해서 이언적을 낳은 것이다. 이 이언적이 또 양동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이 됨으로써 손씨 집안 외에 이씨 집안도 세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언적은 9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대개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수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언적은 그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언적의 처지는 어렵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경주 손씨라는 든든한 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공부할 곳이 없다며 슬퍼하는 이언적을 둘째 오빠인 손중돈에게 보냈다. 당시 손중돈은 김해, 양산 등지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공부하러 간 것이다. 훗날 이언적의 학문이 손중돈에게 영향 받은 바 크다고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언적은 17살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신진 관료로서의 요직을 거치고 30-40대에는 사헌부 지평, 사간원 사간, 밀양부사 등을 지냈다. 그러다가 김안로의 재등용을 반대 건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약 5년간 고향 근처에 독락당을 짓고 지내게 된다. 1537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고 이후 대사성, 대사헌, 각종 판서직을 역임한다. 최고위직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언적은 관직만 높았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그의 학문이었다. 즉 이황이 이언적을 선배 학자로 인정하고 그의 이론을 수용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조선 성리학에서 이언적이 학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문묘 18현으로 배향되었다.

손소와 이언적이라는 두 뛰어난 인물로 인해서 양동마을은 다른 지역의 처가 거주 그 이후 부계마을로의 전환이라는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논산 지역의 윤증 집안, 안동의 김성일 집안 등과 같이 사위가 들어와 기존 사위 집안을 대체하고 부계를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 양동 마을은 기존에 있던 손소 집안이 새로운 이언적 집안으로 완전 대체되지 않고 공존의 형태로 갔으며 또한 빠르게 부계로 전환했다.

양동 마을은 조선 초기 사위의 처가 입성에 의해 이루어진 마을이지만, 바로 하나의 사위 집안으로 통일되지 않고 또 다른 사위 또는 외손 집안이 함께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를 이루었다. 이 사례는 조선에서 그다지 흔하지 않다. 거기에는 당시 우연하게도 양쪽 집안이 균등하게 뛰어난 인물을 배출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2) 박세당의 처가살이

박세당의 부인 의령 남씨와의 초기 혼인생활도 전형적인 처가거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세당은 17세(1645)에 의령 남씨와 혼인했다. 박세당 연보에는 결성(結成)에서 혼인했다고 나오는데, 결성은 홍주 즉 지금의 홍성이다.²⁾ 부인 남씨의 남동생인 남구만의 연보에 의하면 집안의 주 거주지는 서울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누나인 남씨는 홍주에서 혼인을 한 것일까? 이 시기 남씨의 증조 남타(南柁)가 홍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 남일성의 처가 즉 남씨의 외가가 충주에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에 본거지가 있지만, 외가 혹은 증조부모 거주지 등의 사유로 충청도 지역에 연고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홍주에 증조, 증조모가 묻힌 것으로 보아 부계 쪽으로도 관련이 깊어 보인다.

그러나 남씨부인은 결성(홍주)에서 혼인하기는 했지만, 곧 서울로 올라와 주로 서울에서 생활했다. 1643년 의령 남씨가 17살 때 홍주에서 증조의 장례가 있었고 그 2년 후 혼인을 결성에

2)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서 혼인을 한 기록은 있으나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1646년 부모와 남씨 그리고 남구만 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와 생활한 기록이 있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³⁾

그러니까 박세당은 남씨와 결성에서 혼인하고 하고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서울로 와서 본격적인 혼인생활을 한 것이다. 서울 지역은 정릉 소동이었다고 한다.⁴⁾ 이곳 정릉으로 온 후 10여년을 박세당은 남씨부인과 처가살이를 했다.

박세당은 부인 남씨 묘갈명에서 가난해서 처가살이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에 조선사회가 여전히 남귀여가혼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때가 17세기 중반으로 이제 처가거주가 많이 줄어들어 가는 때이지만 해묵은 정도는 거의 하고 있으며⁵⁾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경우 처가에서 거주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남씨부인이나 그 아버지 또 남구만 등이 박세당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을유년(1645, 인조 23) 겨울에 공이 선군(先君)의 문하에 장가들어 오니, 이때 공은 나이가 17세였는데 문학이 이미 훌륭하였다. 이태백과 두보와 한문공의 장편시를 매일 밤마다 책을 덮고 끝까지 외웠으며, 또 시술에 뛰어나 언제나 글을 지으면 선군께서 그때마다 칭찬하시곤 하였다. 이때 숙부 판서공(南二星)과 내가 함께 글을 지어서 선군에게 올리면 선군은 말하기를, “박랑(朴郎)의 시는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⁶⁾

남구만이 박세당의 행장에서 쓴 글인데, 처음 혼인해서 처남 매부로 같이 살게 됐을 때 처남 박세당이 얼마나 글을 잘 했는가를 적고 있다. 숙부 남이성이나 남구만의 글은 박세당의 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칭찬했다는 것이다. 당시 숙부 남이성은 19살, 그리고 남구만과 박세당은 17살 동갑내기였다. 동갑이나 박세당이 달 수가 많이 빨라서 남구만은 스스로 아우로 자처했던 것 같다. 남구만과 숙부 남이성은 불과 2살 차이로 숙질이라기 보다는 형제처럼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세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것은 박세당이 처가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약천집』 약천연보 권1.

4) 『약천집』 약천연보 권1

5) 국사편찬위원회, 『청대일기』, 1727년 7월 22일.

6) 『약천집』 제23권 행장 서계 박공(朴公 박세당) 언행록

○ 선생은 그 당시 부인의 아우 남상국(南相國) 구만 및 그 숙부 남상서 이성과 더불어 문의를 변론하였는데, 서로 굽히지 아니하여 밤낮을 지새우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만년에 남 상공에게 답한 편지에, “삭거(索居)한 이래로 더 이상 석년(昔年)의 변론하던 즐거움이 없습니다. 돌이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거침없이 증횡으로 담론하며 날과 밤을 지새우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었지요. 비록 엉성한 제 말이 신묘한 그대의 견해와 합치하지는 못하였지만, 말을 해도 망연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그대는 아양(俄洋)의 귀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⁷⁾

훗날 박세당은 이 시기에 처남 남구만과 처숙부 남이성과 함께 토론하며 지냈던 일을 일생 중 가장 학문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기억하고 있다. 박세당과 남구만의 돈독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박세당의 처가살이는 10년 이상 지속됐다. 박세당이 과거 급제한 것이 혼인하고 15년 후인 32살 때인데⁸⁾, 이 전까지는 아마도 대체로 처가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후에 이들이 이른바 소론이라는 당색을 함께 하게 되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되기도 했다.

III. 딸에서 며느리로

처가거주의 전통은 조선 내내 유지되지는 않았다. 양동마을 형성과정에서 보듯이 16세기 말부터 부계중심 가족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7세기에 오면 처가거주는 쇠퇴하고 남자 집 거주의 이른바 시집살이가 시작된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는 여성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전까지 어떤 집안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여성들은 이제 남편 집안의 며느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집안에 적응하며 요구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1. 딸로서 산 여성들

1) 이연적의 어머니 손씨

이연적(1491-1553)의 어머니 손씨(1469-1544)는 대표적으로 딸로서 산 사람이다. 손씨는 손소의 둘째 딸이고 형제로는 5번째였으며, 남편은 이번(1463-1500)이다. 남편 이번과는 6살 차

7)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17세

8)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32세 “겨울에 증광시(增廣試) 갑과(甲科)에 제1명(第一名)으로 뽑혔다.”

이이고 23살에 첫 아들 이언적을 낳았다. 이언적 외에 이언괄과 4명의 딸이 있었다. 세 딸은 어려서 죽고 막내만 찰방 이사익에게 시집갔다.

손씨는 양동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끝내 양동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유씨과 마찬가지로 남편 이번이 양동마을로 들어오게 했다. 즉 손씨의 경우 손씨 집안의 딸로서 대표적인 시집가지 않은 여자이다.

손씨가 여주 이씨 이번과 혼인하게 된 것은 손씨의 외할머니 즉 유복하의 부인이 여주 이씨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주 이씨는 본래 여주 쪽에 살다가 고려 말 상경하여 관직생활을 했고 조선 초에 다시 영남 쪽으로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복하 집안도 비슷한 시기에 영남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배경으로 여러 차례 혼인을 맺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⁹⁾

손씨의 혼인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부모로 받을 재산 규모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좋은 남편감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이다. 남편 이번 집안은 경주일대에 거주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이수회가 처가의 재력을 기반으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손씨 집안 쪽에서 볼 때 사위 이번의 사회 경제적 기반은 좋은 편이었다. 이번의 개인적인 자질도 나쁘지 않았다.

1493년(성종 24) 이번은 성종이 전국적으로 보게 한 제술시험에서, 경주교생으로서 시와 부(賦)에서는 2등, 제술에서는 1등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1495년 사마시에 합격, 생원으로서 성균관에서 수학하게 됐다.¹⁰⁾ 32살에 사마시 합격이므로 이른 급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직 진출이 전망은 밝았다. 따라서 손씨가 이번과 혼인한 것은 기본적인 경제력과 사회적인 발전 가능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손소라는 현달한 인물의 딸로서 당연히 따져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이번이 38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는 데에 있었다. 기록에는 성균관에 수학하는 중에 죽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 손씨는 32살이었고 아들 이언적은 9살이었다. 손씨는 청상과부까지는 아니지만, 젊은 과부였다. 친정의 든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재는 어려움을 가져왔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 이언적의 교육문제였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하고 또 배울 곳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의 죽음으로 이것이 용이하지 않게 됐다.

9) 이수건, 「회재 이언적 가문의 사회·경제적 배경」, 『민족문화논총』 12, 34~35쪽.

10) 『회재집』 권6 碑銘 先妣貞敬夫人孫氏墓碣銘

남편 상을 마쳤을 때 아들 이언적의 나이는 11살이었다. 이언적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따르면 이언적은 ‘어려서 여럿이 모여 공부할 때 옆에서 애들이 아무리 웃고 떠들어 시끄럽게 해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¹¹⁾ 상당한 집중력이며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

아버지 상을 마친 후 이언적은 동네 선생에게 가서 공부하기를 청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다. 이언적은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 했다. 어머니 손씨가 이유를 묻자 이언적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슬프다며 어머니와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손씨는 이언적을 둘째 오빠 손중돈에게 보낸다. 공부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손중돈이 양산, 김해 등에서 관직생활하고 있어서 아들을 보내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씨는 결단을 내렸다. 손씨는 이언적의 자질을 보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우선시 했다. 이언적은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교육시킨 것을 특별하게 기억했다.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교육 덕분이라고 어머니 묘갈명에 밝히고 있다.

남편이 없이 손씨는 계속 양동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손씨 집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손씨는 76세까지 살았는데, 그 이전에 손씨를 제외한 7남매가 모두 먼저 죽었다. 손씨는 7남매의 제사가 있게 되면, 고기를 먹지 않고 슬퍼했으며 자손 없는 형제 제사에는 직접 제물을 차렸다고 한다.¹²⁾ 친정 집안 딸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언적이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지은 집 향단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다. 손씨는 이언적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진 이후에도 양동마을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던 것이다.

2) 시집가지 않은 의령 남씨

박씨는 아버지를 잃고 집안이 가난하여 자립하지 못한 나머지 10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야 처가를 나와 따로 살림을 꾸렸다.¹³⁾

박세당 자신이 쓴 부인 묘지명의 첫 부분이다. 박씨는 박세당을 말하는데 가난해서 자립 못했고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야 처가를 나와 따로 살림을 꾸렸다고 했다. 32살에 과거 급제했으

11) 『회재집』 회재선생연보 홍치 15년 임술

12) 『회재집』 권6 碑銘 先妣貞敬夫人孫氏墓碣銘

13) 『서계집』 제9권 誌銘, 亡室淑人宜寧南氏 墓誌銘

니 17살로부터 치면 15년 이상을 처가의 지원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당시에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남자가 장가드는 혼인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가살이 하는 중에 남씨부인은 태유, 태보 두 아들은 낳는다. 첫째는 부인 나이 22살 때였고 둘째는 28살에 낳았다. 혼인하고 3년 후에 첫 애를 낳았으니 빠른 편은 아니었고 둘째는 6년 터울이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임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¹⁴⁾ 박세당과 셋째형 박세후가 상례를 극진히 해서 간장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 심지어 박세후는 생명을 잃기까지 했다. 그런데 둘째 이후 의령 남씨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리고 남씨 나이 40살에 박세당이 양덕방으로 거처를 정했다는 연보 기록이 있다.¹⁵⁾ 박세당이 관직생활한 지 6년 후이니까 어찌면 이때에 비로소 처가로부터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바로 이 해에 의령 남씨는 죽는다. 결과적으로 의령 남씨는 거의 친정을 떠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관직에 나간 후에도 양덕방에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처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씨부인은 실질적으로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람이며 훗날 박세당의 주 거주지인 석천마을에서도 살아보지 못했다.

처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때문인지 박세당은 부인 남씨에 대한 정이 깊었다.

숙인은 평소 가난한 살림을 불평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고생을 겪는 바람에 고질을 앓아 여러 해 동안 낫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아들 태유가 여질(癘疾)에 걸리자 숙인은 지나치게 걱정하여 새로 생긴 병과 원래 있던 병이 함께 일어나 24일을 심하게 앓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으니, 아, 애통하도다.

숙인은 천계 7년 정묘년(1627) 3월 20일에 태어나 병오년(1666) 5월 17일에 몰하였으니, 나이가 겨우 마흔이었다. 남편의 관작이 3품이므로 이제 숙인에 봉해졌다. 그해 8월 20일에 양주 치소 남쪽 20리 수락산 서쪽 기슭 장자곡 신좌(辛坐)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아들 둘은 태유와 태보이다. 태유는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태보는 생원인데 양자로 나가 숙부 [박세후]의 후사가 되었다.

숙인은 성품이 자애 유순하여 남과 다투지 않았다. 이간질하는 말을 가정에서 행하지 않았고 비복에게 매질을 가하지 않았으며, 자매와 동서 간에 화락함을 잃지 않았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14)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21세, 23세

15)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병오(1666) 38세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생을 마쳤으니, 이 몇 가지로도 그 행실을 알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수명이 길지 못하여 두 아들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슬픔을 남기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¹⁶⁾

의령 남씨 묘지명의 계속인데, 남씨의 성격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우선 남씨부인은 가난 속에서도 가정을 잘 운영했다고 한다. 성품은 자애 유순하고 자매 동서 간에 화락했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에서 좋은 부인의 덕목이다. 행장에는 주로 좋은 말만 있지만, 그래도 성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드러난다. 남씨부인은 조용히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한 사람으로 보인다.

특히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박세당은 말년에 자신들에게 준 유계에서 “형제간에 친애하는 도리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음’을 우선으로 하라”¹⁷⁾고 하였다. 이때에 ‘부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곧 부인들의 이간질을 경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형제간에 갈등은 있었고 그것은 남의 식구인 부인들의 의견에 의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의령 남씨는 이 부분을 잘 경계하고 실천했던 것이다.

이런 남씨를 박세당은 특별히 생각했다. 부인을 석천마을에 묻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석천마을로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묘지명에서 박세당의 마음이 읽힌다.

죽어서 앎이 없다면 / 死而無知乎
 어찌 굳이 무덤을 바꾼 뒤에 편안하겠는가 / 何必改而後安
 만약 앎이 있다고 한다면 / 如曰有知乎
 또 어찌 생전과 다르겠는가 / 又何以異夫其生之年
 내 마음이 이미 이 무덤을 사랑하노니 / 惟吾心既愛斯丘
 남은 내가 뒤에 묻힐 것이요 죽은 당신이 먼저 묻혔도다 / 將存者後而沒者先
 누가 우리 자손이 되어 / 誰爲吾子孫
 경솔히 요즘 사람들의 개장하는 풍습을 본받으리오 / 而輕效今之人¹⁸⁾

의령 남씨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무덤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개장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고 있다. 이 글들에서 부인에 대한 정이 남다

16) 『서계집』 제9권 誌銘, 亡室淑人宜寧南氏 墓誌銘.

17)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68세

18) 『서계집』 제9권 誌銘, 亡室淑人宜寧南氏 墓誌銘

름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사후에 박세당은 부인 옆에 묻혔다. 남씨는 친정살이 끝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 석천마을에서는 생활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생활은 안했지만, 의령 남씨가 석천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았다.

수락산 서쪽 기슭 장자곡에 장지를 정하였다. 선생은 그 빼어난 천석(泉石)을 사랑하여 그 동을 ‘석천(石泉)’이라 이르고, 마침내 거처를 정할 뜻을 가졌다.¹⁹⁾

석천을 본래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부인을 장사지내면서 이곳에 살 것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훗날 같이 묻히겠다고 하고 무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등을 보면, 의령 남씨가 석천이 묻힌 것이 박세당이 석천마을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박세당은 부인을 장례 지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석천마을로 들어왔다. 의령 남씨가 석천마을에 거주는 안했더라도 그 무덤이 처음 이곳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말하자면 의령 남씨는 석천마을의 첫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령 남씨와 박세당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고 또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0여 년을 처가에서 살았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처남 남구만을 만났고 나아가서는 당색을 같이하게 됐으니 남씨부인이 특별히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머느리로 산 여성들

1) 이언적의 처 박씨

이언적의 처 박씨는 의성 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던 함양 박씨 박승부의 딸이다. 1508년(중종 4) 18세의 이언적과 혼인했다. 박씨는 이언적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후에 입후를 해서 아들 이응인을 두게 된다.

박씨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언적 집안을 대표하여 입후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있다. 박씨가 입후를 결정하는 데는 이언적 첩의 아들 이전인(1516-1568)이라는 존재의 출현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19)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38세

이언적의 기첩(妓妾)이 임신을 한 후 조운손이 거느리게 되었는데 해산을 하자 윤손은 자기의 아들로 여겼지만 윤손이 죽은 뒤에 언적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손의 첩은 그 아들이 언적의 아들임을 알았으나 윤손이 살아 있을 적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윤손이 죽은 뒤에 마음속 깊이 더 묻어 둘 수 없게 되어 하루는 그 아들에게 ‘언적이 진짜 너의 아버지다.’ 하여 그 아들이 언적의 집으로 갔다고 한다.】 20)

1554년(명종 9) 조정에서 서얼허통 논의를 하는 중에 나온 얘기이다. 즉 이언적의 서자 이전인이 조운손의 아들로 컸으나 후에 그 어미의 고백으로 이언적의 아들임이 밝혀져 이언적의 집으로 갔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이언적의 말년에 조야에서 널리 회자됐던 모양인데, 당시 조정에서는 이언적의 아들로 확정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인(李全仁) 【이언적 첩의 아들이다. 그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이언적에게서 이미 전인을 임신하고는 조운손(曹閔孫)의 첩이 되었다. 그런 때문에 전인은 오랫동안 조씨로 행세하였다. 조운손이 죽자, 그 어미는 비로소 이언적의 아들임을 말하였다. 그러자 전인은 조운손의 재산을 다 뺏개치고 이언적을 강제로 찾아가서 드디어 부자의 관계가 되어서 정성껏 봉양하고, 또 조운손은 양육의 은혜가 있다 하여 심상(心喪)으로 보답했다 한다.】 21)

같은 명종대의 기록인데, 위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 기록에서는 이전인이 바로 강계로 찾아간 것으로 돼 있다. 즉 이전인이 자신이 이언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이 1547년 이후로 나와 있다. 조운손의 생몰년대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1547년 지중추부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봐서 1547년 이후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운손이 죽었을 때 이언적은 이미 강계에 유배 중에 있었다. 두 번째 실록기사가 더 사실에 근거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인이 강계로 간 시점이 언제인가 보다는 이전인이 이언적으로 아들로 판명났다는 사실에 있다. 특히 박씨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서자가 나타나면 집안 가계계승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경국대전』에 의하면 적자나 서자가 모두 없어야 입후를 할 수 있었다.²²⁾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박씨와 이언적은 이전인으로 가계계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 명종 16권, 9년(1554 갑인 / 명 가정(嘉靖) 33년) 1월 19일(경신) 1번째기사

21) 명종 33권, 21년(1566 병인 / 명 가정(嘉靖) 45년) 9월 4일(신묘) 2번째기사

22) 『경국대전』 예전 입후조

물론 이때 이미 서자가 있어도 양자를 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돼 가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날 갑자기 없던 서자가 나타나면 적모의 입장에서는 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박씨는 이전인이 강계로 가고 난 후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1551년 이언적의 종제(從弟)의 아들 중에 15살인 이응인을 양자로 삼았다. 당시 이전인은 40살이 넘는 나이였다. 나이도 많은 서자의 출형은 박씨와 이씨 집안에 모두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다. 박씨는 시동생 이언괄을 비롯하여 친족들과 의논해서 멀리 강계에 있는 이언적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언적이 이응인에게 양자와 관련한 문서를 주면서 “제사를 받드는 것이 중요하여 너를 아들로 삼으니 제향을 잘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멀리 적소(謫所)에 있고 너는 아직 어리니 염려됨이 많다. 약간의 전민을 기록하여 주니 너는 근면히 힘써 집안을 잘 유지하고 봉사를 폐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바라는 바이니 너는 힘쓰라”라고 하였다.

문구 중에 ‘제사를 잘 받들고 집안을 잘 유지하라’는 대목이 주목된다. 즉 서자가 아닌 적자가 제사를 받들고 집안을 이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언적으로서도 적자가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멀리 유배지에 있으면서 굳이 서둘러 입후를 한다는 것은 역시 이언적 혼자의 생각이나 의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씨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입후를 한 후에 바로 자신의 질녀와 응인을 혼인시킨 것을 봐도 박씨가 이 입후문제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씨는 왜 그렇게까지 입후를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적모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첩이나 서자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기 위함이다. 조선에서 적서차별이 어느 나라보다도 확고한 것은 적처 집안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데, 여기에 그것이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박씨는 이언적의 적처이자 이씨 집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자들에게 며느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것에 충실함으로써 주도권을 잡는 것은 의미미했다. 박씨는 이전인이 나타나자 후사 문제를 새삼 첨예하게 느꼈고 그래서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명분상 자신의 아들이 되는 양자를 두어 자신을 포함하여 적계가 집안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씨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에 며느리로서의 위치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후의 주체가 되고 적계 계승을 확고히 한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질녀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 역시 자신을 친정의 딸로 의식하는 면이 전혀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박씨의 이응인 입후과정은 양동마을 여자들의 딸 또는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박세당의 두 번째 부인, 광주 정씨

광주 정씨는 박세당의 두 번째 부인이다. 첫째 부인 의령 남씨가 죽고난지 1년이 좀 지나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1666년(현종 7) 5월 의령 남씨가 사망했고, 1667년(현종 8) 하반기에 혼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혼 당시 박세당은 39살이었고, 정씨는 22살이었다. 17살 차이인데, 이는 재혼하는 사람들 나이차이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김종직이 55세에 18살 문씨와 혼인한 것 등을 보면 그렇다.²³⁾ 양반 남자는 재혼 시 처녀장가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데, 초혼의 여자와 재혼 남자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했다.

정씨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했고, 조부가 군수를 지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씨의 친정 배경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박세당의 반남 박씨 집안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수한 양반 가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씨와 정씨 집안은 왜 이 재혼자리를 선택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박세당이 관직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조선에서는 여자 집안의 지원과 남자의 출세라는 공조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됐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씨집안은 박세당을 택할 이유가 충분하다. 당시 박세당은 지평, 교리 등의 청요직을 거치면서 관직자로 전도유망했다. 정씨집안 쪽에서는 혼인할 만한 자리라고 파악했을 것이다.

정씨는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아 석천마을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1667년 혼인했는데, 1668년 박세당이 석천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박세당의 은거 계획을 광주 정씨가 처음부터 알았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박세당은 결국 퇴거를 했고 정씨는 그 상황에 맞춰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성 동쪽에 함께 은거하니 그 세월이 십 년이라오²⁴⁾

23) 국사편찬위원회,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올바른 혼인」, 두산동아, 2005.

24) 『서계집』 제9권 誌銘 亡繼室淑人光州鄭氏 墓誌銘

박세당이 쓴 정씨 묘지명 구절이다. 10년 세월이라고 말한 것에서 혼인 후 바로 석천마을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천은 당시 잘 정비된 곳이 아니었다. 정씨의 이곳에서의 생활은 녹녹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석천은 땅이 척박하여 곡식을 가꾸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다. 선생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철에는 농부나 야인들과 함께 어울려 종일토록 밭에서 지냈다.²⁵⁾

석천이라는 말 자체가 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세당은 직접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했다는 데 이렇게 되면 정씨의 생활도 일반적인 양반 부인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몹시 가난하고 명운마저 짧았으니 이제 겨우 서른둘이라네²⁶⁾

정씨 묘지명에서 박세당이 한 말이다. ‘몹시 가난했다’는 말이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세당은 42살에 1년 정도 통진현감을 했지만, 이후 거의 관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정씨는 석천으로 이사한 지 2년 후인 1670년에 첫 딸을 낳는다. 후에 이렴과 혼인한 딸이다. 그리고 1673년 아들 태한, 1675년 둘째 딸을 낳았다. 이렇게 1남 2녀를 이로부터 3년 후 1678년 정씨는 사망했다. 셋째를 낳고 3년 후면, 산후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식을 보살피기를 친자식처럼 하였고 제사를 받들기를 몹시 공경히 하였다네.

정씨의 10년 혼인생활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묘지명 구절이다.²⁷⁾ 박태유와 박태보 두 전실 자식을 친자식처럼 보살폈다고 한다. 후처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처의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정씨의 경우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이때 태유가 이미 20살이었고, 태보가 15살이었다.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씨와 박태유는 모자간이지만, 겨우 2살

25) 『서계집』 제22권 부록 연보 40세

26) 『서계집』 제9권 誌銘 亡繼室淑人光州鄭氏 墓誌銘

27) 『서계집』 제9권 誌銘 亡繼室淑人光州鄭氏 墓誌銘

차이였다. 그래서 묘지명에서 박세당은 ‘撫’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撫’는 ‘기른다’기 보다는 ‘어루만진다’는 뜻으로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뜻에 가깝다. 이미 성장한 아들들과 잘 지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묘지명에는 과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전혀 자식에 대한 이 얘기는 사실에 바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받들기를 공경히 했다고 했는데, 이는 또한 부인의 역할에서 중요하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박세당의 부모는 모두 사망한 때인데, 이들에 대한 제사를 공경히 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사 지내기 역할은 집안의 적처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소실이나 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박세당이 이미 아들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혼은 한 것은 자신이 아직 39살로 젊었고 또한 자신과 함께 집안을 운영해갈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후처로서 이 역할을 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박씨 집안의 부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의령남씨가 친정살이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씨는 혼인과 동시에 석천 마을에 들어와 박세당의 부인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박세당의 정씨에 대한 묘지명에 자식과의 원만한 관계, 제사를 공경히 한 사람으로 잘 표현되었다. 즉 이는 정씨가 집안의 중심이자 적처로서의 위상을 잘 확보하여 박세당 뿐만 아니라 집안 내에서 적절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씨는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여성 존중의 실재(實在)

조선에서 적처인 부인들은 대체로 존중 받으며 생활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혼인 이후에도 여자 집안 대표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자 집안의 공동 운영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남자 집안의 가계(家格)가 남자 집안만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언제나 여자 집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처가 혹은 외가의 위치가 남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 요소가 됐다.

이언적에게 어머니 손씨의 경제적 배경과 외삼촌 손증돈의 교육이 없었다면 이언적의 현달과 양동마을 중심 가문으로의 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다. 어머니 손씨와 그 집안의 배경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박세당과 관련한 여성들도 모두 유수한 집안의 딸들이었다. 특히 박세당의 첫 번째 부인 의령 남씨는 10년 이상 남편을 지원한 공이 있었다. 그리고 박세당의 형수 파평 윤씨도 박세당 집안과 관련하여 차지하는 의미가 컸다. 윤씨는 윤증의 누나로서 박세당의 셋째 형 박세후의 부인이 된 사람이다.

남씨와 윤씨 때문에 박세당과 남구만, 윤증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다. 흔히 이 세 사람이 소론의 대표자로 불리는데, 이들이 가까운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셋은 1629년 생으로 모두 동갑이기도 했다.

회니시비로 윤증과 송시열이 노소로 나누어진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 후 소론에 남구만, 박세당이 합류하게 된 데에는 혼인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좀 더 확대해 말한다면 소론 핵심세력 형성에는 이 혼인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소론이 엮이는 데 의령 남씨, 파평 윤씨 등 여자들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박세당이 어떻게 이들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여자 집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조선에서는 부인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실제 사례를 소론의 형성에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의령 남씨의 경우 혼인 후 10년 넘게 친정살이를 하며 남편을 지원했다. 파평 윤씨는 송시열과 대적하는 윤증의 누나로 박세당의 형수였다. 말년에는 석천마을에 들어와 살았다. 박세당의 배려였다. 박세당의 부인이나 형수에 대한 존중은 조선에서 여자집안이 갖는 중요성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존중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세당의 두 번째 부인 광주 정씨도 석천마을에서는 의미가 큰 여성이다. 박세당은 의령 남씨 사후에 재혼을 했다. 박세당에게 이미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자신이 39살로 아직 젊고 또 집안을 같이 운영할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처 자식과 잘 지내고 제사에 충실했다고 한다. 후처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서 석천마을이 양반마을로 자리잡아 가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정씨가 죽은 후 박세당은 다시 정식으로 혼인하지는 않았다. 이미 3남2녀가 있고, 나이가 50살이 넘었으니 반드시 재혼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후에 이소사가 소실로 들어와 부인 역할을 했다.

18세기 권상일(1679-1759)이 세 번째 부인까지 죽고 나서 소실을 들었을 때 ‘소실을 들였다²⁸⁾는 한마디를 적고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다. 권상일 집안 후손에게 전해오기로

는 권상일이 소실 들이는 혼례 때 사모관대에서 날개를 하나 떼어냈다고 한다. 소실에게는 차등을 둔 것이다.

박세당은 정식부인들과 소실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는 부인들에 대한 존중의 또 다른 형태이다. 적처만이 적처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 것은 적처에 대한 존중이다. 대사회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부인 집안에 대한 권리인정인 것이다.

박세당은 첫 번째 부인 의령 남씨와 두 번째 부인 정씨 즉 두 부인과 일렬로 나란히 묻혔다는 점도 특이하다. ‘남은 내가 뒤에 묻힐 것이요 죽은 당신이 먼저 묻혔도다’²⁹⁾라고 한 묘지명에서 이미 부인과 함께 묻힐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실천한 것이 독특하다. 더구나 두 번째 부인마저 먼저 죽어 두 부인이 나란히 묻혀 있게 됐는데 그 사이에 자신의 무덤을 쓴 것이다. 결국 박세당은 두 부인 사이에 묻혔다. 세 사람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게 됐다. 두 부인이 동등하게 대우 받았고, 나아가 박세당과도 동격이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혹은 부인에 대한 존중을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사례이다.

V. 맺음말

사위에서 사위로 이어지던 양동마을이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가 두 중심이 되는 부계마을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 안의 여성들은 의식과 생활면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된다.

친정 집안을 배경으로 이언적을 키워내고, 끝내 친정을 떠나지 않았던 이언적의 어머니 손씨는 대표적으로 딸로서 산 사람이다. 반면, 이언적의 부인이 된 박씨는 이미 부계화가 진행된 양동마을에서 양자를 통해 자신의 적처로서의 위치 또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족제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정체성이 딸에서 며느리로 전환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박세당의 부인 의령 남씨도 이언적 어머니처럼 시집을 가지 않고 친정살이를 했다. 남씨는 이언적 어머니 보다는 100년 정도 나중 사람이지만, 친정살이를 한 것이다. 이때는 사실 처가거주보다 시집살이가 꽤 일반화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 남씨는 계속 친정에 머물렀다. 박세당이 가난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과 함께 아직은 처가거주의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28) 『淸臺日記』 己亥(1719) 10월 26일 往豊山李丈家 娶小室

29) 『서계집』 제9권 誌銘, 亡室淑人宜寧南氏 墓誌銘

그러나 박세당의 두 번째 부인 정씨는 박세당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치중했다. 전처의 자식을 키우고 집안 제사를 충실히 한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의령 남씨가 주로 딸로서 살았던 것과는 달랐다.

조선 가족제의 변화와 함께 여자들은 딸에서 며느리로 그 정체성이 변화됐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삶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딸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집안에서 계속 살면 되고 다른 집에 가서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로서 살 때는 권리행사나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다양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며느리로서 살 때 오히려 더 집안의 중심이 되기 쉬워 보인다. 가령 종부는 종손과 함께 집안의 중심이 되고 종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적처로서 양자를 할 때도 주체가 된다. 조선후기 문중이 발달하면서 여자들의 부인 또는 며느리로서의 위치는 더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사회가 그렇게 재편된 이상 이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딸로서 사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의미 있어졌다,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이 올 수 있었다.

조선에서 여자들이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것이 여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 여건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른 형태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여성들은 여자집안이 중시되는 가족제의 전통 속에 갖게 된 주체성을 가족제가 부계적으로 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잘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상 조선 가족제가 부계 중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여자집안과 남자집안이 대등하게 만나던 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여자집안은 존중 대상이었고 아울러 부인도 존중 받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선의 여성들은 며느리로 정체성이 변화된 후에도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 정해은



정해은 책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Researcher Haeun Chu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학력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 박사 졸업(문학박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 석사 졸업(문학석사)
-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

■ 경력

- 2015~현재 경기도 지명위원회 위원
- 2014~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위원(기념물분과)
- 2015~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2009~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1~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선임연구원

■ 저서

- 신사임당전-역사 속 신사임당 그녀는 누구인가(2017, 새론사)
- 조선의 여성 역사가 다시 말하다(2011, 너머북스)
- 고려, 북진을 꿈꾸다(2009, 플래닛미디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업’ 당선작)

- 세종의 서재(공동)(2017, 서해문집)
- 글로벌 시대에 읽은 한국여성사(공동)(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 ‘몸’으로 읽는 한국여성사(공동)(두산동아, 2012)
-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공동)(두산동아, 2005)
- 공동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여성사 서술과 개선 방향(『여성과 역사』 24, 2016)
- 조선후기 빈곤층 여성의 자매(自賣) 실태(『여성과 역사』 20, 2014)
-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동향과 전망, 2007~2013(『여성과 역사』 12, 2013)
- 18세기 조선 여성의 머리치장과 ‘작은’ 저항(『페미니즘연구』 11권 2호, 2011)
-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역사와 현실』 75, 2011)
-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역사와경계』 98, 2016)
- 숙종 초기 평안도의 변장 증설과 방어 체제의 변화(『사학연구』 120, 2015)
- 조선 초기 역사서와 『동국병감』의 편찬(『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안집사 김륙의 역할과 활동(『영남학』 28, 2015)
- 임진왜란기 약포 정탁의 군사활동과 전쟁기록(『이순신연구논총』 22, 2014)
-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 조선후기 선조(宣祖)에 대한 현상과 그 의미(『조선시대사학보』 66, 2013)
- 16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과 『국조정토록(國朝征討錄)』의 편찬(『장서각』 29, 2013)

‘조선 가족의 변화과정과 여성’에 대한 토론문

정 해 은

(한국학중앙연구원)

1. 연구 의의

이 발표는 조선시대 가족이 부계화가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여성이 처한 입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계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이 변화했으며, 이것이 결코 여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여성 집안은 존중 대상이었고 정실부인[嫡妻]은 존중받으며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선시대 여성사의 연구 경향에서 중요한 변화는 여성을 종속된 존재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사의 중요 화두는 부계 가족 질서와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가족사 연구에서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성과를 확보한 부분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 아들딸 균분 상속과 처가살이(남귀녀가혼)라는 물질 기반을 확보한 여성(딸)에 대한 논의입니다. 균분상속이 유지된 17세기 전반까지 여성들은 자율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렸고 처가 외가와 폭넓은 유대를 형성했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엽 이후 제사와 재산 상속의 관행이 ‘차등’으로 변화하고, 혼례 방식도 남귀여가혼에서 반친영(半親迎)으로 변화하면서 가족 안에서 부계 질서가 강화되고 그 결과 여성 지위도 점차 낮아졌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에 대한 논의와 인식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상속제와 처가살이를 통해 조선전기 여성의 지위를 강조하다보니, 17세기 중엽 이후 재산상속 관행이 남녀

차별로 바뀌는 조선후기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하락한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상속제가 여성의 지위를 새롭게 밝히는 근거로 작용하다가, 거꾸로 다시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만 것입니다.

이순구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논의이자 인식입니다. 조선후기에 여성들이 딸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잃어 갔지만, 남편 집안에서 보장되는 며느리로서의 권리나 어머니로서의 위치는 확보해 나갔다고 보는 오늘 발표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위상 변화를 명료하게 압축한 지적으로서 언뜻 사소해보이지만 중요한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딸의 지위 저하를 여성의 지위 저하로 환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조선후기 가족 안에서 여성을 딸로서만이 아닌 부인 입장에서 접근할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는 흥미로우면서도 향후 더 진척된 연구를 기대하게 합니다.

2. 논의 사항

- 딸 또는 며느리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모호

조선시대 가족의 모습은 발표자의 지적대로 사위와 처가가 매우 가까웠고 처가 집안이 중요했습니다. 그 증거로 여전히 사조(四祖)에 장인이 들어가고 대가제(代加制)에 사위도 대상이 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과 제사에서 여성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친근하지만 가족의 이해(利害) 문제에는 그 친근함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삶을 관계(關係) 및 사적 영역으로만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자가 주장하는 ‘며느리로 산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며느리로서의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발표자가 딸로서 산 여성들의 사례로 꼽은 이언적의 어머니 손씨는 거주지가 친정이었지만, 발표자의 표현대로 “손씨 집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딸로서 산 여성의 모습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곧 딸 또는 며느리의 정체성이 친정에서 사느냐 시가에서 사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며느리로 산 사례로 꼽은 이언적 부인 박씨는 16세기 사례로서 발표자 주장과 상충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언적의 부인 박씨의 사례도 다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발표자는 17세기가 되면 처가거주는 쇠퇴하고 시집살이가 시작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딸에서 며느리로 여성의 정체성이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언적의 부인 박씨는 사실 16세기 중반의 사례입니다. 이 시절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딸로서 갖는 권한이 줄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발표자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이미 하셨듯이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사례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재산에 대한 본인 지분을 지키려는 노력과 더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조선전기에 혼인한 여성들이 입후 및 재산 상속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각종 고문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7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딸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여성들이 존재

대표적으로 『음식디미방』의 저자이자 학자로 이름을 떨친 갈암 이현일의 어머니 안동 장씨(1598~1680)가는 이시명의 둘째 부인으로 혼인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혼인 뒤에도 친정과의 끈을 놓지 않아 1년에 한 번 씩 친정을 방문하고, 어머니 상을 당하자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 재혼을 성사시킨 후에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35세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친정 식구들을 본인 집 근처로 데려와 돌보았고, 친정의 조상 신주들을 모셔와 봄가을로 제사도 올립니다. 이 사례는 여성들이 17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딸 또는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은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권리문제로 접근할 때에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조선시대 확고한 정치의 지위는 일부일처제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부일처제를 공표하면서 정치의 지위가 높은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성이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조선 초부터 이미 형성된 일부일처제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첩(妾)과 첩자식(서얼)의 지위가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정치에 대한 존중과 우대는 이미 조선 초부터 형성된 가족 안의 여성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내에서 확고한 정실 부인의 지위 그리고 처가의 중요성 때문에 장인을 비롯해 처가에 역적이 나오면 그 화를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인과 이혼을 하거나 소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실부인의 위상이 빚어낸 명암이 아닐까 합니다.

- 심노승의 사례는 배경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심노승의 경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내를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아내가 죽은 뒤에도 처제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발 표 자 장 성 규



장성규 교수 (건국대, 한국어문콘텐츠전공)
 Prof. Sungkyu Jang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Konkuk University)

■ 학력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졸업(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졸업(문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졸업(문학사)

■ 경력

- 2015 ~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 2014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2013 성균관대학교 박사후국내연수(Post-Doc)

■ 저서

- 문과 노벨의 장르사회학(2015)
- 신성한 잉여(2014)
- 사막에서 리얼리즘(2011)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¹⁾

A Study of the Changes of Family Romance Appear in Korean Literature Since 2000

장 성 규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어문콘텐츠 전공 조교수, 문학평론가)

1. 서론: 가족 개념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

문학에서 가족로망스라는 개념은 문학의 근본적인 시원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에 의해 제시된 가족로망스 개념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문학예술이 지니는 잠재적 리비도의 발현 양상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했다. 그에 의하면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전 시기, 즉 초자아적 규범보다는 이드의 욕망이 지배적인 시기 빈번히 나타나는 아버지 부정의 서사는 문학의 근본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로망스는 초자아적 규범에 의해 억압된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충동을 문학예술이라는 특수한 양식을 통해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²⁾ 프로이트는 임상분석을 통해 가족로망스가

1) 이 글은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미완의 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용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다음과 같은 프로이트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내가 앞서 언급했던 시기(아이부터 사춘기에 이르는 시기-인용자)쯤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낮게 평가한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부모라는 상상을 한다. 만일 시골에 산다면 영주나 지주, 도시에 산다면 상류 사회 사람들과 알게 되는 실제 경험과 맞물려 그는 이 우연의 일치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기회가 아이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아이가 부모를 고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바꿔 버리는 상상을 하도록 한다.”(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가족 로맨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프로이트 전집 7권), 열린책들, 2003, 200-201쪽). 즉, 프로이트에 의하면 성인이 되기 이전 시기 가족 체계에 대한 편입을 거부하는 욕망의 상상적 표현이 문학예술 텍스트인 셈이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의 반영임을 규명했다. 반면 그는 이와 같은 가족로망스를 일시적인 일탈 정도로 간주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가족 체계로 편입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제시한다.³⁾

이와 같은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 개념은 이후에도 근대 소설의 기원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마르토 로베르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근대 소설은 문제적 인물이 스스로를 업둥이나 사생아로 인식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결과물이다. 이때 자신을 업둥으로 인식한다면 내적 번민과 유년기의 기억이 주된 서사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이후 환상적 낭만주의 경향으로 이어진다. 반면 자신을 사생아로 인식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 존재하는 ‘진짜’ 아버지를 찾아 가는 성장과 모험의 서사가 전면화되며 이는 이후 리얼리즘적 경향으로 이어진다.⁴⁾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하면 근대 소설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프로이트적 의미에서의 아버지로부터의 탈주와 자신의 주체화 과정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즉, 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초자아적 규범(The Name of Father)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주체화시키는 서사가 바로 소설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생아건 업둥이건 간에 이 문제적 인물은 이러한 주체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또다른 아버지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정과 아버지의 냉대를 용서하는 주체나 혹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는 다른 가족로망스의 담지자로서의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이 근대 소설의 주된 규범이다.

이와 같이 문학에서 가족 개념은 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가족로망스 이론으로 구체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족로망스 개념은 문학예술이 지니는 무의식의 표출과 리비도 운동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을 적절히 해명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근대 사회에서 생물학적 개체가 사회적 주체로 호명되는 문학적 양상을 뛰어난게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가장 흔한 상상 중 부모나 아버지만을 위대한 인물로 상상하는 로맨스도 살펴보면 이 새로운 부모가 실제 부모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장점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높이려는 것이다. 지금보다 나은 아버지로 바꾸려는 노력은 가장 고상하고 힘센 사람이 바로 아버지이며, 가장 아름답고 여성다운 사람이 어머니라고 느꼈던 사라져간 행복한 시절에 대한 갈망의 표현인 것이다. 지금 알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더 어린 시절 믿었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프로이트, 위의 글, 202쪽). 즉, 가족 체계에 편입되기 이전의 전복적 상상력은 스스로가 아버지로 성장하며 결국 가족 체계로 수렴되는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4) 이상의 논의는 마르토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학사, 1999를 참조.

반면 현재 시점에서 가족로망스 개념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근대적인 가족 개념 자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매우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버지를 꼭지점으로 하고 어머니와 아들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한부모 가족이나 1인 가족 등의 급증, 꼭지점으로서의 아버지의 상징적 위상 변화, 다양한 실험적 형태의 가족 형태의 대두 등은 기존의 가족삼각형 개념에 입각한 가족로망스 이론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로망스 개념이 부계를 중심으로 한 장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을 배제하는 형태의 서사를 반복재생산 한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고아나 서자, 딸들의 서사는 가족로망스의 틀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아버지와 장자로 상징되는 외디푸스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그리고 이러한 고전적 가족로망스의 문제는 곧 가족 내의 불신과 갈등, 폭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한국 문학에 국한시킬 경우 프로이트에 의해 제기되고 이후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정식화된 가족로망스를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 개념 자체가 해체되며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부계를 중심으로 한 서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가족 모티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로망스를 변용하여 새로운 연구의 관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가족에서의 용서나 신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우선 가족에서 진행되는 갈등을 직시해야 한다. 어떠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다음 단계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

5) 이와 관련하여 식민지 시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에 대한 나병철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조할 수 있다. “(전략) 로베르의 업동이, 사생아와 우리의 식민지적 고아(들뢰즈적 고아)의 차이는, 근대 이후 서구사회의 역사와 우리의 경우와의 차이에 연관된다. 업동기와 사생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난 서구의 경우, 고아적 주인공의 끊임없는 방황에 의해 권위 있는 아버지의 현존은 연기되지만, 이차적인 것으로나마 좋은 아버지의 이념은 잠재적으로 형성되어왔다.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영구혁명(끊임없는 반항)의 방식으로 계속 아버지(법)의 절대 권위를 유보시키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자유주의 공화정을 이루어온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에 상응된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식민지적 고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우리의 경우, 식민지의 독재정권이라는 나쁜 아버지만 현존할 뿐 좋은 아버지는 무력한 상황에서, 주로 고아적 반항에 의해 오이디푸스적 권력의 전복이 시도되어 온 셈이다. 그 과정은 본받을 만한 사회적, 정치적 이념(좋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민중들과 청년들의 변혁운동에 의해 역사를 이루어온 우리의 근대사를 암시한다.”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36쪽). 이러한 지적은 가족로망스 개념이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다. 둘째,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로부터 비로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의 심층적 극복의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용서와 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가족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분석해야 한다. 이로부터 갈등의 ‘봉합’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대안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로망스를 전복하고 대안적 가족로망스를 실험하는 일련의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두드러지는 부친 살해 욕구와 가족로망스의 해체 양상, 아버지의 부재와 모계 가족의 복원 양상, 소수자들의 연대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모색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양상이 갈등을 직시하려는 문학적 의지의 표출이라면, 둘째 양상은 갈등으로 인해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문학적 대응일 것이고, 셋째 양상은 신뢰와 치유의 문학적 발현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신뢰를 담지할 수 있는 대안적 가족로망스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가부장의 부정과 가족로망스의 해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부친 살해 욕구의 전면적인 표출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 소설, 희곡 등 세부 장르를 막론하고 대다수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이다. 특히 황병승의 시와 김사과의 소설에서 부친 살해 욕구는 매우 파격적으로 표출된다.

*피아노의 건반은 여든여덟 개
그것들은 하나같이 만족을 알까.....*

당신은 피아노를 사 들인다
어린이날이라고.
콧물을 훌쩍거리며
빵 부스러기를 흘리는 내가
흑백의 기묘한 작대기들과
교감을 나누리라고.

꿈에서조차 나는 단 하나의 건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데,
나는 두드린다!
나는 두드리고 당신은 즐거워, 한다.
우리 아이는요 피아노를 집돼지처럼 다뤄요
손바닥만 한 당신의 뱃속에서
팔다리를 온전히 뻗지도 못하던 내가
처음 하나의 건반을 건어챘을 때
당신이 내지르던 그 야단스런 음계들이 뭘 의미하는지
꿈에서조차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나는 두드린다!
어린이날이라고
당신은 나를 피아노 앞에 주저앉히고
나는 더 세고 강하게!
두드려도 괴롭고
두드리지 않아도 괴롭고
당신은 그저 즐거워, 한다 어린이날 기념 독주회라고
우리 아이는요 금세 피아노의 주인이 됩니다 보세요
곧 알게 되겠지만,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⁶⁾

위의 시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체계는 정면으로 부정된다. “당신”으로 호명되는 가부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에게 ‘피아노’를 선물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부장의 욕망일 따름이다. 이는 “당신이 내지르던 그 야단스런 음계들”을 아이가 반복하여 습득하고 계승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날’의 주체여야 할 아이의 입장은 다르다. 아이에게 피아노의 조화로운 음계로 구성된 화음은 “꿈에서조차 나는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아이’에게 피아노를 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이는 “어린이날 기념 독주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반면 이 시의 제목처럼 아이에게 이 연주회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날기념좌절어린이독주회”일 따름이다.

6) 황병승, 「어린이날기념좌절어린이독주회」(전문), 『트랙과 들판의 별』, 문학과지성사, 2007, 66-67쪽.

기실 일반적인 가족로망스의 구성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아이가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욕망은 단순히 일시적인 일탈 정도로 치부된다. 반면 황병승은 위의 시에서 나타나듯, 가족로망스의 구성 자체가 기실 가부장의 질서로 아이의 욕망을 억압하고 배제한 결과임을 폭로한다. 따라서 아이에게 어린이날이란 결국 “두드려도 괴롭고/ 두드리지 않아도 괴”로운 가부장적인 억압일 따름이다.

이와 같이 부친의 상징적 기호가 아이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으로 수렴된다면, 아이의 관점에서 그 상징적 기호는 곧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지된다. 다음과 같은 김사과 소설의 일부분을 보자.

영이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엄마는 감나무 아래 주저앉아 정신나간 웃음을 지으며 끝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커다란 황갈색 개가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다. 영이는 아무 말도 안했다. 엄마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아빠는 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어차피 영이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말하는 엄마와 개 아빠. 그리고 순이가 없는 영이. 영이는 가만히 서서 저 멀리를 바라봤다. 어느새 영이는 수천만 명의 엄마와 수천만 아빠가 다가오고 있는 황무지 벌판에 서 있었다. 엄마들과 아빠들은 벌써 영이의 코앞까지 와 있었다. 이제 영이는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엄마는 빨간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웃고 있는 말이었다. 아빠는 축축한 검은 코를 벌렁거리는 누런 개였다. 다음 장면에서, 빙글빙글 도는 엄마와 아빠는 벌써 저 멀리 멀어져버렸다. 수천만 명의 엄마와 수천만 명의 아빠가 빙글빙글 돌며 짙은 주홍색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⁷⁾

“아빠”는 가부장적 권력을 사용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존재일 따름이다. 이때 폭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층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무의식적 욕망을 억압하는 문화적 층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가부장적 존재인 “아빠”가 결국 “커다란 황갈색 개”로 변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가부장은 강력한 권위로 아이의 욕망을 순치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홍색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개”와 같은 존재일 따름이다. 김사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부장을 전면에서 거부하는 문학적 대응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황병승과 김사과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부친 살해 욕구는 단순히 생물학적 가족의 층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초자아적 규범에 대한 거부

7) 김사과, 「영이」, 『창작과비평』, 2005 겨울, 276~277쪽.

와 전복의 의지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직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아버지로 상징되는 초자아적 규범을 통해 상상계를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 층위에서의 다양한 욕망들이 모두 문화적 규범을 통해 억압된다는 점이다. 황병승의 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은 아이의 다양한 욕망들을 모두 “당신이 내지르던 그 야단스런 음계”로 환원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김사과의 소설에서 결국 초자아적 규범의 담지자인 “아빠”가 “개”로 변해 소멸하는 것은 기존의 문화적 규범들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 의지인 셈이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황병승과 김사과의 작품들을 기존의 ‘스위트 홈’으로의 귀환을 주된 결말로 설정하는 가족로망스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가족로망스가 아이가 가부장적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반면, 이들의 작품들은 가족로망스의 가부장적 억압성을 폭로하거나, 혹은 아예 가부장의 존재 자체를 소거시키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로망스는 비로소 해체되기 시작한다.

III. 부재하는 아버지와 모계 가족의 복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친 살해 욕구의 표출을 통해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로망스를 해체한 것은 상당한 문제성을 지닌다. 반면 가족로망스가 해체된 자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어떤 ‘다른’ 이름을 기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학적 탐색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시스템과는 달리 모계 중심의 가족 형태를 복원하려는 일련의 문학적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김선우의 시를 보자.

여행 마지막날 나는 무료하게 누워 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여관이 으레 그렇듯 사랑해, 내일 떠나 따위의 낙서가 눈에 띄었다 벽과 벽이 끝나고 만나는 모서리에 빛바랜 자춧빛 얼룩, 기묘한 흥분을 느끼며 얼룩을 바라보았다

두 세계의 끝이며 시작인, 모서리를 통해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다래순 냄새가 났다 다른 세상의 대기에 접촉한 순간 놀라며 내뿜는 초록빛 순의 향기, 머리를 받쳐준 그녀는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이의 눈 속에서 나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묻으며 내가 말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에게선 온갖 냄새가 뿜어나왔다 포마이가 옷장의 서랍 냄새, 죽은 방울새에게서 맡았던 짙레꽃 냄새, 엄마의 속곳 냄새..... 세포 하나하나에 심장이 들어선 것처럼

림 나는 떨었다

들어왔지만 들어온 게 아닌, 마주보고 있지만 비껴가는 슬픈 채위를 버려..... 탄성을 가장 하지 않아도 되는 잘 마른 밀짚 냄새, 허물어진 흙담 냄새, 할머니 수의에서 나던 싸리꽃 향기, 오월의 가두에 흩어지던 침수향을 풍기며 그녀가 뺏속까지 스며들어왔다

모든 시공이 얽혀 있는, 단 하나의 모서리로 그녀가 돌아간 뒤, 자궁에서 빠져나올 때 맡았던 바닷물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며 나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다⁸⁾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가부장적 체계 속에서 배제되어온 여성성을 복원하고 있다. 즉, 여성은 단지 가부장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적 화자인 “나”는 물론 “모든 시공이 얽혀 있는” “자궁”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다시 호명된다. 이는 “그녀”에게서 “엄마의 속곳 냄새”나 “할머니 수의에서 나던 싸리꽃 향기” 등이 풍긴다는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녀”의 존재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빠져나올 때 맡았던 바닷물 냄새”를 환기시키며 다시 “나”에게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성성의 복원과 모계적 상상력을 발현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도 나타난다.

강릉 고향집 엄마방에서
 엄마랑 낮잠 든 오후였습니다
 불너며 하나 엄마 배를 타넘어왔습니다
 시집을 때 가져온 구닥다리 자개장
 엄마만큼 늙고 병들었지만
 금조개 껍데기를 썰어낸 자개들이
 탁지탁지 붙어 있는 늙은 몸 위에서
 학이 날고
 거북이 구름 속을 슬슬 기어가더군요
 소나무 타고 내려온 달이
 물속에서 침병, 밝아지는 몽유록
 첫장을 펼치면 학이며 소나무가
 물의 자궁 속에 둥글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오래 매만져온 금조개

8) 김선우, 「산청여인숙」(전문),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창비, 2000, 42~43쪽.

꺾데기에 스며든 바닷물 소리가
갈피갈피 접혀 있었구요
물풀 위로 산란되던 무수한 내가
그렇그렇 떠올라왔습니다
엄마 혼례 때 따라온 자개장 속에서
엄마랑 내가 흠뻑 젖은 가을 오후였습니다⁹⁾

위의 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가족로망스의 축이 어머니와 딸의 축으로 변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계적 가족에 대한 상상력은 어머니와 유사성을 지니는 대상으로 설정된 “자개장”안의 학, 거북이, 소나무, 달, 금조개 등이 결국 모두 “물의 자궁”으로 수렴되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즉, 부계적 가족이 강고한 인간 중심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김선우가 복원하려는 모계적 가족은 자연까지를 포괄하는 “자궁”이 지닌 생명력을 통해 구성된 새로운 성격을 지니는 셈이다.

김선우가 일종의 에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모계 가족을 복원시킨다면, 김애란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모계 가족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어머니는 그후 몇 달간 피임약을 하루 두 알씩 꼬박꼬박 챙겨먹었다고 한다. 그 몇 달간 하늘이 노랗고 구역질이 나는 게 어쩐지 이상했다고 그랬던 어머니가 약사에게 물어 피임약을 한 알로 줄이고, 양동이에 언 물을 깨뜨려 달빛으로 뒷물을 하고, 그 차가움에 소스라치며 약 먹는 걸 까먹기도 했던 어느날. 어머니는 임신을 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풀어오르는 배를 보고 얼굴이 점점 하얘지다가, 아버지가 되기 전날 집을 나가 그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¹⁰⁾

적어도 텍스트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가 가족을 떠난 것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는 작품에서의 아버지가 가족로망스의 정점에 놓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화적 권위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김애란의 소설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강력한 가부장적 권위를 통해 어머니와 딸까지를 가족삼각형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9) 김선우, 「가을 구름 물속을 간다」(전문), 앞의 책, 30쪽.
10) 김애란, 「달려라, 아비」,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14쪽.

아버지는 가족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징적 기호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일 따름이다. 이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른바 ‘브레드 키퍼(bread keeper)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아버지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애란은 아버지에게 다시 권위를 부여하는 대신, 오히려 아버지의 도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모계 가족의 가능성을 재현한다.

내가 막 짓멍울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도,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걱정이 아니라 장난이었다. 어머니는 나와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팔꿈치로 내 짓가슴을 쿡쿡 찌러대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때 내 가슴에 퍼지던 가볍게 아린 느낌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¹¹⁾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계 가족은 가부장적 규범이 부재한 상태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곳에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이름’ 대신 어머니와 딸 간의 여성적 연대가 새로운 구성 원리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김애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아버지의 가부장적 위상을 부정하며, 새로운 모계 가족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V. 소수자들의 연대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모색

그런데 현실적인 층위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해체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특히 가족 형태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고전적인 가족 형태만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나 1인 가족, 혹은 보다 실험적인 가족 형태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종오의 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에서 탈출한 최귀림 씨와
베트남에서 시집온 메이 씨와
필리핀에서 취업 온 글로리아 씨와
연변에서 친척 방문했다 주저앉은 김화자 씨가
지방 소도시에서 만난 지 일 년이 지났다

11) 김애란, 위의 작품, 16~17쪽.

네 여자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동네 지하 봉제공장에서 봉제공이 되었으니
겉으로는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들 하면서도
속으로는 팔자 사나운 여자들로 여겼다

말이 공장이지, 네 여자가 전 직원인 봉제공장에서
야근도 같이하는 여주인도 빗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기는 피차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지 못하면 경기도 더 나빠져
주문량이 줄어들곤 해서 봉급 제때 주지도 못했다

최귀림 씨가 향수병에 시달리는 날이면
메이 씨가 입덧하는 날이면
글로리아 씨가 생리통 앓는 날이면
김화자 씨가 갱년기 장애로 힘겨워하는 날이면
여주인이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그런 날엔 그런 여자 혼자 쉬게 하고
다섯 사람 작업량을 네 여자가 나누어 처리하고도
정시에 퇴근하였다¹²⁾

위의 시에 나타난 여성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생물학적인 연관성이 부재하며, 또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가족 개념으로부터도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로부터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들은 탈북 여성이거나, 이주노동 여성이거나, 혹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은 서로가 힘든 일에 처할 때면 “그런 여자 혼자 쉬게 하고/ 다섯 사람 작업량을 네 여자가 나누어 처리”하는 연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 가족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연대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가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간의 연대의 틀이라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12) 하중오, 「여인 천하」(전문), 『남북상징어사전』, 실천문화사, 2011, 138-139쪽.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통나무집에 거주하기도 했으며 북극에서는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반얀 나무 그늘 아래 해변에서 잠들었고 짙이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기도 했다.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녔다.¹³⁾

손홍규의 소설은 다문화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강력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배타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손홍규는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인’과 ‘중국인’, ‘아랍인’과 ‘아프리카인’과 ‘유럽인’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호명은 근대적 국민국가 개념과 민족주의적 사유에 근거한 것일 뿐, 다양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들의 공존에 대해서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경계일 따름이다. 손홍규의 소설은 이와 같이 현실에서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새롭게 대두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가 진짜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짜부모가 너무 고약했기 때문이다. 가짜 아빠가 나를 백칠십두 번째로 때리고 가짜엄마가 백삼십다섯 번째로 밥을 안 주던 늦겨울 밤,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진짜부모가 아닌 게 분명해. 그들은 길바닥에 버려진 장갑 줍듯 나를 주워온 거다. (중략) 가짜아빠는 내 욕을 듣고 통통 불은 라면이 담긴 냄비를 내게 집어던졌다. 나는 바닥에 나뉘구는 라면 가닥을 밟고 집을 나왔다. 냄비를 집어던지는 대신 욕은 나쁜 거라고 가르쳐주며 나를 꼭 껴안아줄 진짜아빠를 찾기 위해서.¹⁴⁾

최진영의 소설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가짜부모”를 떠나 “진짜부모”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의 기록이다. 여기까지는 앞서 언급한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의 구조와 일치한다. 그런데 최진영의 경우 결국 가족으로 편입되는 구조와는 다른 서사를 보여준다. 오히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진짜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장통에서의 식당 할머니나 도시 주변부에서

13)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219쪽.

14) 최진영,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한겨레출판, 2010, 13쪽.

의 철거민들, 혹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또래 청소년들이다. 가족이 단순히 생물학적 층위에서의 생활 단위가 아니라, 서로간의 연대의 공동체라면 이와 같은 최진영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사회적 소수자간의 공동체로서의 대안적 가족의 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대안적 가족로망스를 위하여

이상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가족로망스가 가부장적 가족 체계로의 귀환을 기본적인 서사로 삼는 반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은 이에 대한 다양한 변주의 실험을 보여준다. 황병승과 김사과는 가부장에 대한 거부를 통해 가족삼각형의 억압적 구조를 폭로하는 성과를 보여준다. 김선우와 김애란은 가부장적 가족 체계에서 배제된 어머니와 딸 간의 모계적 가족에 대한 천착을 보여준다. 하종오와 손흥규, 최진영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대안적 가족 형태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사실 비단 2000년대 이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문학은 서구의 가족로망스와는 변별되는 나름의 독특한 고민을 지속해왔다. 길게는 식민지 시대 유독 두드러지는 고아와 서자들의 서사부터, 해방공간과 4.19 등의 시기에 두드러지는 형제애로 구성되는 가족 형태, 90년대 이후 나타나는 여성 중심의 가족로망스의 실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문학에서의 가족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대안적 형태를 고민한 결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학은 종종 기존의 통념을 깨고 도래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대안적 가족로망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와 그 구성 원리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이유이다.(未完)

토론자 안용희



안용희 교수 (가톨릭대, 국어국문학)
Prof. Yong-hui Ah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UK)

■ 학력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졸업(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졸업(문학석사)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사)

■ 경력

- 2015 ~ 현재 민족문화사연구소 연구위원
- 2015 ~ 2016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저서

- 「신청년의 噴火/分化와 ‘운동’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연구』, 170, 2016
- 「이기영 소설의 모성과 사회주의라는 가능성」, 『서강인문논총』, 40, 2014
- 「염상섭 초기 소설의 세대의식과 공동체 윤리의 문제」, 『국제어문』, 56, 2013
- 「감정과 화폐의 경제학」, 『한국현대문학연구』, 39, 2013
- 「모험의 가능성과 제국의 균열」, 『국제어문』, 43, 2008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로망스의 변화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안 용 희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조교수)

장성규 선생님의 발표문은 근대소설을 바라보는 틀로서의 ‘가족로망스’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두드러지는 부친 살해 욕구와 가족로망스의 해체 양상, 아버지의 부재와 모계 가족의 복원 양상, 소수자들의 연대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모색 양상을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가정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와 용서’”라는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에서 보자면, ‘살해’, ‘해체’ 등의 표현이 다소 과격해보일 수도 있지만, 신뢰와 용서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등의 면모도 치열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루뭉수리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본색원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풍경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넘어 인간관계의 상품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전과는 전혀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문학적 형상화가 반복되는 것도 이처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신뢰와 용서를 향하는 우리의 고민이 너무 쉽게 화해와 타협, 그리고 ‘융합’의 손길을 내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면서 신뢰와 용서로 나아가는 길을 발표자 선생님과 함께 보다 치열하게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아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텍스트들의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사소해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게 문학 텍스트라는 점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가령, 하종오의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이 이루고 있는 대안적 가족 형태, 소수자들의 연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가족을 해체한다기보다 가족과는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어쩌면 ‘정상적’ 가족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공간’ 정도로 보입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가족보다는 노동의 새로운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가족의 관계는 분리 불가능한 정도의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가족 공동체 대신에 노동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는 그 다음에 제시된 손흥규의 소설 <이슬람 정육점>과 더불어 사회, 혹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로서의 탈민족, 혹은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자면 김애란의 소설 <달려라, 아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기존의 가부장제적 가족 형태를 넘어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생물학적 성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 소설에서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그 역할이 폭력이나 규율이 아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초자아적 규범이 편지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서 결국 아버지, 어머니, 아이라는 삼각형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발표문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의문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발표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신뢰와 용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묻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문에서는 가부장제라는 가족 형태의 폭력적 양상을 지적한 후에 (만약 그것을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소 손쉽게 모계 중심의 가족, 또는 소수자 연대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표자 역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러한 대안 제시가 우리 현실에 쉽게 정착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대안이 사회의 주류적인 가족 형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현재 폭넓게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이 발표문에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따져 묻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문학 연구의 본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발표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묻는 데서 출발했기에, 무엇보다 문학적 상상력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기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가 가족이 아님은 여러 가지 대안 가족적 형태를 제시하는 소설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본 발표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아직까지 ‘가족 이후’라거나 ‘가족 너머’를 상상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 발표문에서는 원래 의도했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다 따져 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정을 뜻하는 그리스어 Oikos가 경제economy의 어원이 되었고, 그리스의 ‘오이코스’가 여성과 노예를 통해 지탱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역시 그것을 포함하는 인간 집단의 지배 구조나 권력 관계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권력에 의한 지배가 인간 집단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지점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와 용서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파악해야 할 가정 내의 문제점,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 표 자 권 경 휘



권경휘 교수 (영산대, 법학)

Prof. Kyung-hwi Kwon (Department of Law, Youngsan University)

■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졸업(법학박사, 기초법 전공)
-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졸업(법학석사, 기초법 전공)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 경력

- 2012 ~ 현재 영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저서

- 공저, <한국의 법철학자>(세창출판사, 2013)
- “법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 『인간연구』 제33호(2017)
- “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그 대안”, 『공법연구』 44집 제2호(2015)
-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2015)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하버마스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2014)

혼인계약과 신뢰

Marriage Contracts and Trust

권 경 휘
(영산대학교 법학과)

I. 서론

오랜 인류 역사에 인간이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발전시켜온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혼인일 것이다. 성경의 기록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인간 사이의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한 관계가 혼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 2장 22-24절)

이후 혼인으로 만들어진 가족은 점차 발전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결국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혼인을 일종의 제도보장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을 보장하고 있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러한 헌법규정 조항 하에서 우리 민법은 구체적으로 혼인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혼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혼인의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혼인을 계약으로 이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혼인이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혼인관계에서 사람들이 그 혼인계약의 내용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혹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혼인의 본성

이 장에서는 혼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혼인을 한 부부는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가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칸트(I. Kant)로 대표되는 입장으로서 혼인을 계약으로 이해해야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헤겔(G. W. F. Hegel)로 대표되는 입장으로서 혼인을 계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인격들의 통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계약설

칸트는 혼인을 “서로 다른 성의 두 인격이 그들의 성적 속성을 평생토록 교호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결합”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성의 법칙에 의한 필연적 계약”이라고 평가한다.¹⁾ 이에 따르면, 혼인은 일방이 타방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득하지만 동시에 타방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처럼 취득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때 서로는 신체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체 인격도 취득한다.²⁾

일견 보기에 인격에 대한 절대적인 대우를 강조하는 칸트가 혼인에 관하여 인격을 하나의 물건처럼 취득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실제 칸트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이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환성”이다. 즉, 하나의 인격은 타방의 인격에 의하여 취득되지만 동시에 그 타방을 취득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인격을 세울

1) I. Kant (백중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216쪽.

2) Kant, 앞의 책(주 1), 216-217쪽.

수 있다는 것이다.³⁾

결혼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결혼은 필연적으로 일부일처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다처제 또는 다부일처제는 이러한 순환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혼인 하에서는 한 일방이 타방에게 완전히 취득되지만 그 타방을 부분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다시 세울 수 없다.⁴⁾

또한 혼인은 일방이 타방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일회적으로 한 인격을 향유하는 매춘계약이나 서로를 임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내연관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 교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위장 계약과도 구별된다.⁵⁾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혼인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2. 통일설

혼인을 계약에 포섭시키는 칸트의 입장에 대하여 헤겔(G. W. F. Hegel)은 계약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수치스러운 포섭”이라고 평가한다.⁶⁾ 헤겔에 따르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계약의 양 당사자는 직접 맞대고 있는 자립적인 인격이므로 계약은 ㉠ 자의(恣意)에서 출발한다. ㉡ 계약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동일한 의지는 단지 쌍방간에 정립된 공동의 의지일 뿐, 절대적으로 유효한 공동의지는 아니다. ㉢ 계약의 대상은 개개의 외적인 물건이다. 왜냐하면 개개의 물건만이 자의대로 양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의 대상이다. 계약은 오직 개개의 외적인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을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사용”이라는 형식으로 결혼을 비하하는 미숙한 생각이다.⁸⁾

3) Kant, 앞의 책(주 1), 217쪽. 아마도 이러한 설명방식은 직접민주주의 및 주권에 관한 루소의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J.-J. Rousseau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참조.

4) Kant, 앞의 책(주 1), 217쪽.

5) Kant, 앞의 책(주 1), 217-219쪽.

6) G. W. F. Hegel (임석진 옮김), 『법철학』 (한길사, 2008), 181쪽.

7) Hegel, 앞의 책(주 6), 180쪽.

8) Hegel, 앞의 책(주 6), 324쪽.

헤겔이 보기에 혼인은 직접적인 인륜적 관계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인류를 현실로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자로 독립되어 있는 양성 인격체들의 통일이다.⁹⁾ 그러므로 혼인은 개별적인 인격체들이 상호 동의라는 일종의 계약으로 출발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지양하게 된다.¹⁰⁾

혼인은 개별적인 인격체의 통일이므로 완전히 개별적이지 못한 인격체의 통일은 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서로 낮이 익고 세세한 부분까지 친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뗫어지는” 관계는 결코 서로 독자적인 인격으로 마주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혼인이 될 수 없다. 즉, 혈족 간의 관계는 혼인의 개념에 반하여 혼인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¹¹⁾

타방에 대한 취득에서 차이점을 찾은 칸트와 달리, 헤겔은 자연적인 충동에 대한 억제 여부에 의하여 혼인이 다른 여타의 관계, 예컨대 내연의 관계와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혼인은 자연적인 충동을 억제시키는 반면에 내연의 관계는 자연적인 충동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¹²⁾

3. 검토

칸트와 헤겔의 입장 차이는 혼인을 계약에 기반한 결합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으로 출발하였지만 계약관계를 지양한 통일로 볼 것이냐의 대립이다.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속해있는 관계라는 칸트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지나치게 가족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그 속에 절대적으로 함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크기 때문이다. 칸트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혼인이란 두 개별적인 주체가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신체와 인격의 결합을 할 것을 계약하는 것이다.¹³⁾

근친혼금지에 대한 헤겔의 설명은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논거를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친혼금지에 대한 철학적

9) Hegel, 앞의 책(주 6), 324쪽.

10) Hegel, 앞의 책(주 6), 327쪽.

11) Hegel, 앞의 책(주 6), 334-335쪽.

12) Hegel, 앞의 책(주 6), 328쪽.

13) 이것이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차선자, “혼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1), 11쪽 참조.

인 논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1) 보편타당하고 (2)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헤겔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적인 논거는 근친혼의 기준이 몇 촌 이내인지에 관하여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친혼금지란 어떤 철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어떤 공동체가 경험적으로, 관습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혼인이 성립한다고 보기를 꺼려했는가라는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공동체와의 혼인범위가 달라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어느 공동체의 기준이 더 옳다고 철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의 수용가능성에 달려 있을 뿐이다.

III. 혼인계약의 내용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이 계약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그 계약의 내용을 무엇인가? 즉, 혼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부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이 장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판례를 따라 혼인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의 성립

1) 친족관계의 형성

우리 민법은 제777조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그러므로 제777조 제3호에 의하여 민법상 부부는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가 부부여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외에 친족관계라고 해서 별도로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는 없다.¹⁴⁾ 이는 부부 간의 권리의무가 친족관계 중 가장 큰 권리의무를 가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777조 제2호에 의하여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에서 인척관계가 생긴다.

2) 부당한 대우 금지

혼인계약은 이렇게 형성된 친족관계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학대, 모욕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¹⁵⁾ 이러한 경우로 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육체적 구타¹⁶⁾, 욕설 및 언어적 모욕¹⁷⁾,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의 방해¹⁸⁾, 무고(誣告)¹⁹⁾ 등이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상대방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며²⁰⁾ 위반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

2. 동거·부양·협조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의무에 관하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부의 의무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이다.

1) 동거의무

동거의 의무는 혼인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의사의 합의가 없다면 혼인의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²¹⁾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14)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125쪽.

15) 大判 1971. 7. 6, 71므17.

16) 大判 1986. 5. 27, 86므14.

17) 大判 1983. 10. 25, 82므28.

18) 大判 1986. 3. 25, 85므72.

19) 大判 1990. 11. 27, 90므484; 大判 1958.10.16., 4290민상828.

20)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1)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11쪽.

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²²⁾ 이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의 해외근무, 건강상의 이유, 자녀의 교육, 부부 사이의 불화가 있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별거 등이다.²³⁾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²⁴⁾

이러한 동거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부부의 일방은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2) 부양의무

부양의무에는 생활비와 같은 물질적 부양뿐만 아니라 식사준비, 세탁과 같은 노동, 육아, 병수발 등의 신체적·정신적 부양까지도 포함된다.²⁶⁾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974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자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제974조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력이 있을 때 상대방을 지원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한다.²⁷⁾ 따라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실질적으로는 제974조가 아니라 제826조 제1항에 의하여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부 중 일방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²⁸⁾

22) 민법 제826조 제1항 단서.

23)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27쪽.

24) 민법 제826조 제2항.

25)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27쪽.

26)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28쪽.

27)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28쪽.

28)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30쪽.

3) 협조의무

부부는 가족을 꾸러가기 위하여 서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조할 것이가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법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²⁹⁾ 협조의무는 그 성질상 부부 중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³⁰⁾

4)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이러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³¹⁾ 어느 정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입법의 취지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상당한 기간의 계속적인 유기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²⁾

3. 정조의무

부부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이때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그것이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어야 한다. 예컨대, 부인이 남편의 아들이 아닌 아이를 출산하였거나 남편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³³⁾

이를 어기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되며 위반자는 혼인과탄의 책임을 진다.

29)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29쪽.

30)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30쪽.

31) 大判 1998. 4. 10, 96므1434.

32)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82-183쪽.

33)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주 14), 178쪽.

IV. 혼인과 신뢰

혼인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혼인계약을 하였을 때 왜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왜 우리는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답변방식이 존재해 왔다. 즉, 하나는 계약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의 결과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1. 계약행위 자체에서 답을 찾는 입장

계약행위 자체에서 답을 찾는 입장은 계약의 본질이 “의사의 합의”에 있다고 보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계약을 약속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약속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한다.³⁴⁾

이러한 입장의 전형적인 형태는 칸트에 의하여 제시된 의무론적 관점이다. 그러나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은 선의지 및 정언 명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정당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프리드(C. Fried)는 관행주의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약행위 자체에서 답을 찾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의무론적 관점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입장은 계약의 본질이 “두 인격의 합일된 의사의 행위”에 있음을 강조한다.³⁵⁾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문제는 쌍방의사의 합의에 의해서만 약속이 성립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합일된 의사가 표현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일방의 행위가 있을 때 타방의 행위는 아직 없거나 이미 더 이상 없는 곳에서 언제나 시간상 서로 잇따르는 행위들만이 있을” 뿐이다.³⁶⁾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그는 초월적 연역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계약상대방의 의사를 점유하는 것을 경험적인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예지적 점유로 이해함으로써 의사의 표시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⁷⁾ 의사의 표시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성적 존재인 이상 약속을 지켜야한

34) 이러한 입장은 “약속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약속 이론이라는 명칭이 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35) Kant, 앞의 책(주 1), 208쪽.

36) Kant, 앞의 책(주 1), 209쪽.

37) Kant, 앞의 책(주 1), 209-210쪽.

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까지 한다.

...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언적 명령에 대해 어떤 증명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것은 기하학자가 이성추리를 통해, 내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선분을 취해야만 하는바(분석명제), 그 중 두 선분을 합하면 제3의 선분보다 길어야만 한다(종합명제; 그러나 두 명제 모두 선험적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순수한 ... 이성의 요청이다.³⁸⁾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에서는 계약 내지 약속을 준수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하므로 증명불가능하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고서 거짓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거짓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제 거짓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자. 칸트는 의무의 보편적 명령이라고도 부르는 유일한 정언 명령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이다.³⁹⁾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 이러한 정언 명령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만약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된다면, 누구도 약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거짓약속이라는 것이 달성될 수가 없다. 즉, 거짓약속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정언 명령을 통과할 수 없다.⁴⁰⁾ 따라서 우리는 거짓약속을 해서는 안 되며, 다시 말해서 계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2) 관행주의적 관점

프리드는 계약의 본질이 “의사의 합의”에 있다고 보고 계약의 구속력을 개별사안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의 차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칸트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는

38) Kant, 앞의 책(주 1), 210쪽.

39) I. Kant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132-133.

40) 칸트는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임을 잘 안지만 거짓약속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다. Kant, 앞의 책(주 39), 134-135.

“약속이 개별사안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⁴¹⁾

하지만 그는 계약의 구속력을 이성적 요청인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의 관행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칸트와 구별된다. 그는 흄(D. Hume)⁴²⁾과 루이스(D. Lewis)의 관행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 계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⁴³⁾ 프리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흄과 루이스의 관행 이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행이 가지는 행위조정(co-ordination)적 본성이다.⁴⁴⁾

흄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동이익이라는 일반적 감각(*general sense*)에 의하여 관행을 형성하게 된다. 예컨대, 배의 노를 함께 젓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박자로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⁴⁵⁾ 마찬가지로 소유권이라는 관행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타인의 소유물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가장 친한 친구의 이익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관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나 가장 친한 친구의 이익은 물론 낯선 사람의 이익도 모두 가장 잘 지킬 수 있다. 바로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녕과 생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녕과 생존에 필요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약속을 하는 행위 역시 하나의 관행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약속이라는 관행이 성립하게 되면, 특정한 상징이나 기호를 통하여 우리 행동양식의 안정성을 서로에게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흄에 따르면, 이 관행이야말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동기가 된다.

41) C. Fried, *Contract as Promi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 12.

42) 흄의 관행이론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 235-239쪽을 볼 것.

43) Fried, 앞의 책(주 41), p. 15.

44) 키멜(D. Kimel)은 흄과 루이스의 이론을 약속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는 약속이 관행의 행위조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D. Kimel, *From Promise to Contract* (Hart Publishing, 2003), p. 9. 그러나 후술하는 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키멜의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45) D. Hume (이준호 옮김),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3: 도덕에 관하여』 (서광사, 1998), 70쪽.

46) Hume, 앞의 책(주 45), 69쪽.

이 관행은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낸다. 이 기호가 제정된 다음부터 이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무를 반드시 직접 실행해야 하며, 그가 만일 자신이 약속한 바의 수행을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신뢰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⁴⁷⁾

루이스 역시 행위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관행을 고찰한다. 그는 흄의 설명을 게임 이론에 접목시켜서 관행이 성립되는 상황을 그 게임에서의 하나의 해(解)로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참이고 또한 그 사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오직 그 때에만 관행이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⁴⁸⁾

- (1) 거의 모든 사람이 R을 따른다.
- (2)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 이외의 거의 모든 사람이 R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 (3) 거의 모든 사람은 행위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과 관련하여 거의 동일한 선호(preference)를 가진다.
- (4) 거의 모든 사람이 R을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R을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
- (5) 거의 모든 사람이 R'를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거의 모든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R'를 따르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프리드는 행위조정 해법으로서의 관행에 관한 흄과 루이스의 이러한 고찰이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속하기의 실행과 그것의 함의를 정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은 어떤 사람이 타인들에게 기대를 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뢰와 존중이라는 칸트의 근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을 하고자 그러한 관행에 의지한 후에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잘못이다.⁴⁹⁾

결국 프리드의 이론은 계약행위를 “내가 구속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게 되는) 관행에 참여하는 행위”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7) Hume, 앞의 책(주 45), 110쪽.

48) D. Lewis, *Convention* (Blackwell Publishing, 1969), p. 78.

49) Fried, 앞의 책(주 41), p. 17.

2. 계약의 결과에서 답을 찾는 입장

아티야는 계약행위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찾는 입장이 행위자의 관점인 내적 관점(internal point of view)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적 관점(external point of view)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내적 관점은 계약자 개인이 계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에서 계약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한다.⁵⁰⁾

외적 관점에서 버스운송계약을 살펴보자. 이 경우 버스 승객이 버스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버스를 탑승하면서 버스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버스를 승차하여 특정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아티야에 따르면, 이러한 설명이 실제 우리의 직관과도 부합한다고 한다.⁵¹⁾ 그러므로 계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외적 관점에서 보자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⁵²⁾ 그러므로 계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득과 신뢰 때문이다.

3. 검토

계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이유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 중 어느 것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일까? 벤담(J. Bentham)과 그의 제자 오스틴(J. Austin) 등의 공리주의자들은 외적 관점을 법이론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권총 강도가 어느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만일 그가 거부하면 발사하겠다고 위협한다. 만일 그 피해자가 이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obliged)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된 방식을 설명한다. 어느 사람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명령을 하고 이러한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타인에게 따르지 않

50) P. S. Atiyah, *Promise, Morals and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pp. 124-125.

51) P. S. Atiyah, *Essays on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20.

52) Atiyah, 앞의 책(주 51), p. 22.

을 수 없게 하는 경우에 명백히 법의 본질, 또는 적어도 “법리학의 열쇠”가 나타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점이 영국 법리학에 다대한 영향을 끼쳐 왔던 오스틴(J. Austin)의 분석의 출발점이다.⁵³⁾

이러한 외적 관점에 기반한 이론은 우리가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없다. 즉, 내적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계약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반성적 기준으로 삼는다. 즉, 그는 자신이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타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비판한다.⁵⁴⁾ 이러한 점이야말로 법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계약의 중요한 본성이다. 그러므로 아티아의 주장과 달리 법학의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적 관점을 취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가 혼인계약을 했을 때,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계약행위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칸트와 프리드의 생각은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안에 의하여 혹은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지키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정언 명령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그러나 정언 명령 자체가 인간의 선의지라는 것을 요청(전제)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청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프리드는 관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칸트의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의 논의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관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관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현실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계약의 본질은 도덕이 아니라 법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관행과 법이 충돌할 때 법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53) H. L. A. Hart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아카넷, 2002), 8-9쪽.

54) 내적 관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건우,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 B. Bix (권경휘 옮김), “하트와 법이론에 있어서 해석학적 진화”, 『영산법률논총』 제11권 제2호 (2014); 권경휘,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을 참조할 것.

계약의 준수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하나는 계약의 효력(validity)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의 규범성(normativity)이다.

우선, 계약의 효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계약은 법률n1에 따라 그 계약을 창설하는 행위가 수권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 또한 법률 n1은 그것보다 상위법률 n2에 의하여 그 규범을 창설하는 행위가 수권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⁵⁵⁾ 이렇게 소급해서 결국은 계약이 그 법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성립되기 때문에 체계상의 효력(systemic validity)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⁵⁶⁾

계약의 효력의 문제 외에도 사람들이 법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규범성(normativity)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설명방식으로는 3가지 테제가 주장되어 왔다. 이를 간략하게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⁵⁷⁾

제재 테제(sanction thesis): 계약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법체계의 수범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재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수용 테제(acceptance thesis): 계약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법체계의 수범자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집단전체가 따라야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권위 테제(authority thesis): 계약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법체계의 수범자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흔히 제시되는 설명방식인 제재테제는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는 이유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이 규정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사람들이 제재와 무관하게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러한 설명방식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사람들이 계약을 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혹은 제재의 모

55) 규범의 효력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연쇄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흔히 “효력의 연쇄”(chains of validity)라고 부른다. J. Raz (권경휘 옮김), “켈젠의 근본규범 이론”,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2), 323쪽.

56) 체계상의 효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J. Raz (권경휘 옮김), “법적 효력”,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223-227쪽을 볼 것.

57) 이하의 논의는 권경휘,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고찰: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2012)에서의 전개된 설명을 계약에 적용시킨 것이다.

면)을 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계약의 효력, 즉 구속력에 관한 프리드의 설명방식을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바꾸면 그것은 수용 테제와 유사한 모습이 된다. 수용 테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법이 가지는 배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수용 테제의 관점에서는 집단전체가 따라야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수용되는 도덕적 규칙과 법적 규칙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 테제는 어떤 사회에 “A에게 x를 할 권리가 있다”는 도덕적 규칙과 “A가 아닌 B가 x를 할 권리가 있다”는 법적 규칙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B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다시 제재에 의지하여 법의 배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권위 테제에 따르면, 법이란 스스로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도이다. 이때 정당한 권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테제를 만족시킨다는 있다는 의미이다.⁵⁸⁾

의존 테제(dependence thesis): 모든 권위적 지시들은 무엇보다도 그 지시들의 수범자들에게 적용되고 명령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황들과 관계된 근거들에 기초해야만 한다.

통상적 정당화 테제(normal justification thesis):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상적이고 주된 방법은 수범자라고 말하여지는 자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근거들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권위자라고 말하여지는 자의 지시를 권위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따르려고 노력할 경우에 (권위적 지시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되는 근거들에 더 잘 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취 테제(preemption thesis): 권위가 어떤 행위의 수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행위를 수행하는 근거이고,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관련된 다른 근거들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거들을 배제한다.

권위 테제에 따르면, 계약을 행위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스스로 정당한 권위를 주장하고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58) 이에 관해서는 J. Raz(권경휘 옮김), “권위, 법 그리고 도덕”,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2009)를 참조할 것.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의존 테제와 통상적 정당화 테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계약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은 본래 그들이 따라야할 행위의 근거들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선취 테제는 수범자들이 계약 그리고 그것에 관한 규정을 배제적인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설명을 혼인계약에 집중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제도인 혼인은 일종의 제도보장으로서 법에 편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은 점차 관행, 도덕, 인륜 등과 같은 다른 규범체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게 되어 관행, 도덕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을 통합시켜주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혼인 역시 법체계 내에서 고유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사람들은 법체계 내에 규정된 대로 혼인계약을 지킴으로써 본래 자신들이 따라야할 행위의 근거들에 잘 부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참고문헌

- 권경휘,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고찰: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법철학연구』, 15/3(2012).
- 권경휘,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8/1(2015).
- 김건우,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법철학연구』, 16/1(2013).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연구』, 9/2(2006).
- 차선자, 「혼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가족법연구』, 25/2(2011).
- Atiyah, P. S., *Essays on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Atiyah, P. S., *Promise, Morals and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Bix, B., 「하트와 법이론에 있어서 해석학적 전회」, 권경휘 옮김, 『영산법률논총』, 11/2(2014).
- Fried, C., *Contract as Promi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Hart, H. L. A., 『법의 개념』, 오병선 옮김, 아카넷, 2002.

- Hegel, G. W. F., 『법철학』, 임석진 옮김, 한길사, 2008.
- Hume, D.,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3: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8.
- Kant, I.,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 Kant, I.,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 Kimel, D., *From Promise to Contract*, Hart Publishing, 2003.
- Lewis D., *Convention*, Blackwell Publishing, 1969.
- Raz, J., 「권위, 법 그리고 도덕」, 권경휘 옮김, 『법철학연구』, 12/1(2009).
- Raz, J., 「법적 효력」, 권경휘 옮김, 『법철학연구』, 13/2(2010).
- Raz, J., 「켈젠의 근본규범 이론」, 권경휘 옮김, 『법철학연구』, 15/1(2012).
- Rousseau, J.-J., 『사회계약론』, 이환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토론자 서종희



서종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Prof. Jonghee Seo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졸업(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졸업(법학석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 경력

- 2015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13 ~ 2015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역임
- 2016 ~ 2017 행정자치부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 2015 ~ 현재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 위원회 위원
- 2014 ~ 현재 법무부 자문위원회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 학회 이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등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저서

- 민법의 이해(동방문화사, 2014, 2016, 공저)
-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세창출판사, 2017, 공저)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손해’의 법적성질”, 재산법연구, 2017.05.
- “학교안전법상 공제회와 책임보험자와의 구상관계, 저스티스, 2017.06.
-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법학연구, 2017.06.
- “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민사법학, 2014.09 등

‘혼인계약과 신뢰’에 대한 토론문

서 종 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본 발표문은 혼인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의무를 혼인 당사자들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법철학적인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경희 교수님의 훌륭한 발표와 새로운 시각 덕분에 저도 혼인의 의미와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이하 권경희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보충설명 등을 첨부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가. 혼인은 계약인가?

민법 제815조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우리 입법자들은 혼인을 계약으로 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혼인에서 발생하는 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¹⁾ 동거할 장

1)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민법 제752조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여 부양(부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민법 제826조에 해당하는 독일민법 제1353조는 다음과 같다. 독일민법 제1353조 [혼인의 생활공동체, Eheleiche Lebensgemeinschaft] (1) 혼인은 평생 동안 지속한다. 부부는 서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부부의 배우자 일방은, 그 요청이 권리의 남용을 의미하거나 또는 혼인이 파탄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의 공동생활의 회복을 위한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을 포괄적인 일반조항으로 판단한다. Streck(Michael), *Generalklausel und unbestimmter Begriff im Recht der allgemeinen Ehwirkungen*, Bonn 1970, S. 35 ff.

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826조 제2항). 그러나 정당한 이유²⁾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 판례는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에서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중략)...”라고 하여, 동거·부양 협조의무는 부부간의 광범위한 협력의무로 이해한다. 동일한 의미에서 판례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에서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포괄적인 협력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협력의무를 온전히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중략)...”고 하여 동거·부양 협조의무를 포괄적 협력의무로 이해한다. 한편 동거·부양 협조의무는 부부관계(혼인)의 본질로부터 요청되는 의무로 보기도 한다.³⁾ 또한 이 의무에는 윤리적·도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⁴⁾, 법률상의 실체적인 권리·의무로 본다.⁵⁾

한편 우리민법의 명문규정에는 없으나 통설은 배우자간의 혼인의무로서 정조의무를 인정한다.⁷⁾ 판례 또한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 2) 정당한 이유란 처 또는 부의 직업상 필요(해외업무), 건강상의 이유(요양을 위한 별거), 군복무를 위한 일시적 별거 등을 말한다.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9판)』, 법문사, 2010, 125쪽.
- 3) 대판 1999. 2. 12, 97므612; 대판 2009. 12. 24, 2009므2413; 이흥민, 「이혼급부에 대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0/6, 50쪽 등. 일본 또한 ‘혼인의 본질’로부터 동거의무 등을 도출해낸다. 青山道夫=有地享編(黒木三朗 執筆), 『新版注釈民法(21)』 (이하 ‘新版注釈民法(21)/黒木三朗’로 인용하기로 함), 有斐閣, 1989, 338면.
- 4)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125쪽에서는 다분히 윤리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 5) 新版注釈民法(21)/黒木三朗, 338면.
- 6) 이러한 부부간의 의무를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민법 제816조의 강행규정 위반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것이다.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129쪽. 일본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본다. 新版注釈民法(21)/黒木三朗, 358면.
- 7)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129쪽. 학설 중에는 제840조 제1호에서 정조의무를 찾기도 하며(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55쪽), 정조의무를 제826조상의 협조의무에서 찾거나(신영호, 『로스쿨가족법강의』, 2010, 102쪽), 제826조의 동거의무에서 찾기도 한다(한복룡, 『2010년 개정판 가족법』, 2010, 123쪽). 이동진, “불륜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유증과 공서양속”,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12, 13~14쪽에서는 제840조 제1호, 중혼금지 제810조,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 등 우리 법질서 전체에서 정조의무가 도출된다고 본다.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성적 성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⁸⁾ 일본 또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부에게는 당연히 정조의무가 있다고 본다.⁹⁾

다.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¹⁰⁾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a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¹¹⁾” 또는 “법적강제력이 있거나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의(an agreement which is legally enforceable or legally recognized as creating a duty)¹²⁾”가 된다. 이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대로 이행해야하며, 국가는 계약대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¹³⁾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근거로 대륙법계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와 실정범규범에서 찾는 ‘자기결정의 이론’이 지배적이다.¹⁴⁾ 즉, 합의된 것에 대한 법적 효력부여를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적 행

-
- 8) 참고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우리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 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 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판례는 정조 의무를 중혼금지 규정 등에서 추단하기도 한다.
- 9) 大村敦志 / 河上正二 / 窪田充見 / 水野紀子, 比較家族法研究·離婚·親子·親權を中心に, 商事法務, 2012, 110面.
- 10)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1(중판), 3쪽. 같은 맥락에서 김준호, 『계약법』, 법문사, 2012, 1쪽에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의한다.
- 11) Jill Poole, *Textbook on Contract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7th ed., 2004, p.2.
- 12) P. S.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th ed., 1995, p.37.
- 13)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19세기 근대민법의 원칙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 없이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국가는 체결된 계약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실행할 의무를 진다.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12쪽.
- 14) Larenz, *Die Methode der Auslegung des Rechtsgeschäfts*, 1966, S. 69; 김준호, 앞의 책, 3쪽;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14쪽. 일본에서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근거로 법규설, 합의설, 신뢰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倉田卓次監, 要件事實の証明責任 契約法(上), 西神田編集室, 1993, 29面 이하; 磯村保, ドイツにおけ

위와 그러한 효력을 확인하는 실정법규범에 의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약속이론’으로 설명한다.¹⁵⁾

최근 우리 사회에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2014호파1842 결정). 만약 혼인이 계약이며, 당사자 간에 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즉 진정하고 종국적으로 당사자가 그 혼인에 의한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동성혼인은 계약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 것은 혼인이 아니라 특수한 계약의 일종(동성결합, 민사결합)으로 보아야 할런지요? 만약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면, 혼인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¹⁶⁾ 권경휘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る法律行為解釈論について-信賴責任論への序章的考察 (1)-(4), 神戸法学雑誌 第27卷 第3号, 第28卷 第2号, 第30卷 第3-4号, 1977~1981 참조. 참고로 加藤雅信等編, 民法學說百年史 之序章, 三省堂, 1999, 100면 이하에서 磯村保의 학설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 15) 더 상세한 이론에 대한 소개는 Poole, *op. cit.*, p.10ff.;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1~30쪽. 영미법계의 신뢰이론에 대한 소개는 고영남,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12 참조.
- 16)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On Liberty*에서, 법률을 수단으로 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임을 설교하였는데요, 혼인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동성혼을 금지할 수 있을런지요?

토론 좌장 백민정



백민정 교수 (가톨릭대, 철학)
Prof. Min-jeong Baek (Department of Philosophy, CUK)

■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졸업(철학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졸업(문학석사)
-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문학학사)

■ 경력

- 2014 ~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조교수
- 2008 ~ 201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삼성 인력개발원 가치문화연구소 자문위원
강진 연세대학교 부설 다산실학연구원 자문위원
남양주 실학박물관 및 다산교육문화원 자문위원
- 200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저서

- <최한기 철학 연구> 《실시학사 실학연구총서》 (공저, 서울: 사람의 무늬, 2016)
-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 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운> (공저,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 <한국 문화전통과 배려의 윤리> <<AKS 인문총서12>> (공저,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종교와 정의: 제4세대 통전적 정의론 모색> (공저, 서울: 동연출판사, 2015)
- <퇴계학과 근기실학> (공저, 경기도: 한국실학박물관 編, 경인문화사, 2014)
- <유교적 공공성과 타자> 《연세대 국학연구원 사회인문학총서》 (공저, 서울: 해안, 2014)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포럼 주제 선정의 기본 방향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이하 BWL Forum)의 주제 선정 형식은 중장기(10년)와 단기(1년) 형식을 통합한 '장·단기 통합형'으로 한다.
- 이 방식은 10년 주기와 1년 주기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10년 주기 형식은 향후 10년간의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포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 및 강사 초청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반면, 1년 주기 형식은 그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기에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BWL Forum은 위의 두 가지 형식의 장점을 살려, 기본적으로는 10년 주기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되, 강연 하나는 '열린 주제'(open theme)로 남겨두어 그 해의 이슈에 알맞은 주제로 선정한다.

2. 포럼 주제 선정 방식

- BWL Forum의 주제 선정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0년 주기 포럼은 9년(3년+3년+3년)+1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9년 동안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포럼을 진행하고, 마지막 해에는 9년 동안 개최되었던 포럼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 주기 포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주제 선정 →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 주제(어) 선정 → 발표 주제 선정

1) 대주제 선정

- 'BWL Forum 연구위원회'에서 포럼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10년을 주기로 포럼의 대주제를 선정한다.
- 이 대주제는 향후 10년 동안 포럼을 이끄는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1) 포럼방향 설정

- 9년을 세 부분(3년+3년+3년)으로 구별하여 각 부분의 포럼방향을 정한다.
- 포럼방향은 대주제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3년), 현실 상황(3년), 미래를 향한 노력(3년)을 기본틀로 삼는다. 예를 들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첫 3년은 공동체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들을 다루고, 두 번째 3년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마지막 3년은 공동체의 미래적 모습을 다루는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Themes of the Forum

1. Basic Direction in the Selection of the Theme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BWL Forum) takes a unified approach in the selection of the forum theme by combining the long- and short- term themes.
- This approach aims to emphasize the merits of both the 1-year and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llows us to prepare for the forum every year with a pre-set theme, thus providing stability in selecting forum themes and inviting speakers accordingly.
- The 1-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enables us to select a theme that is sensitive to pending social issues and the needs of the given period. Through this selection process, BWL Forum will be able to reflect upon society's most prevalent demands.
- The BWL Forum will follow a theme selected under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nd one of the lectures will be set aside for "an open topic" to reflect upon the pending issue of the given year.

2. Forum Theme Selection System

- The BWL Forum takes the following approaches in selecting its themes.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9-year cycle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and the 1-year cycle.
- For the first nine years, the forum will proceed with the selected themes. In the tenth year, the forum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the previous themes covered in the last nine years and preparing for the next 10-year period.
- The theme of the forum is selected as follows: Select a general theme → Set the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forum / Set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Select a theme (key words) → Select a presentation topic.

1) Selection of a General Theme

- The BWL Forum Research Committee selects a general theme under the 10-year cycle selection system.
- The selected general theme serves as the keyword that leads and guides the forum for the next 10 years.

2)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1)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first nine years will be divided into three segments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Each segment will be assigned a direction.
- The direction of the forum will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principal topics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three years), specific issues (for three years), and efforts for the future (for three years).
For example :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2) 주제 범주 설정

-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의 방향과는 별도로, 대주제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3가지 선정한다. 예를 들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는 가능한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 주제 범주를 세 가지로 정하는 이유는 원칙, 현실, 미래의 방향이 각각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포럼방향과 주제 범주의 연결

- 포럼방향의 기본틀인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에는 각각 세 가지 주제 범주가 배치된다.
- 예를 들어 포럼방향을 '원칙', '현실', '미래'로 설정하였고, 주제 범주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로 선정하였다고 할 때, 포럼방향을 '원칙'으로 설정한 첫 해에는 주제 범주의 '가정 공동체'를, 둘째 해에는 '사회 공동체'를, 셋째 해에는 '자연 공동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포럼 방향을 '현실'로 설정한 3년과 '미래'로 설정한 3년도 '가정 공동체'(첫 해), '사회 공동체'(둘째 해), '자연 공동체'(셋째 해)로 배치한다.
- 이 두 가지(세 가지 포럼 방향, 세 가지 주제 범주)는 매년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주제(어) 선정

- 포럼의 방향과 주제 범주에 맞춰 주제(어)를 선정한다.

4) 발표 주제 선정

- 포럼 발표자가 포럼의 대주제, 포럼방향, 주제 범주 및 당해 연도 주제(어)에 맞는 발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열린 주제

- 열린 주제는 'BWL Forum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포럼 준비단계에서 참가자들(학생, 교수,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Themes of the Forum

- o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the fir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dealing with the principal topics related to "community:"
- o The nex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the discussions of specific issues prevalent in various communities.
- o The la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efforts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ies.

(2) Setting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In addition to the basic outline sketched above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three categories will be established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example,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such categories as "family," "social communities," or "natural communities" can be selected as possible theme categories.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three categories so that they match the basic directions of the forum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3) How to Connect the Direction of the Forum to the Scope of Theme Category

- The forum will take three different directions during the 3-year span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For instance,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topics" for the first 3-year spa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family," "social community," or "natural community," then the first-year forum will deal with "family," the second-year forum, "social communities," and the third- year forum, "natural communities."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or "the future" for the proceeding 3-year spans, the same sequence of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communities, and natural communities- will be covered.
- These two elements (three forum directions/ three theme categories) become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theme of every forum.

3) Selection of Topics

- Topics ar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forum directio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4) Selection of the Presentation Topic

- The forum speak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general theme, the direction of the forum,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and the keywords of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so that they have ample time to prepare an appropriate presentation topic.

5) Open Topics

- The members of the 'BWL Forum Organizing Committee,' decide on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while planning the forum. A variety of methods are used to select the year's open topic; one of the international pending issues can be selected by the committee, or a different topic can be chosen through a vote by the participants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of the forum.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3.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 주제 (2011~2020년) (안)

- ◆ 대주제: 인간과 공동체
- ◆ 주제 범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

1) 제1~9차 BWL Forum

차수	포럼방향	주제범주	주제(어)	관련 주제어	열린 주제
제1차	공동체의 형성(원칙)	가정 공동체(I)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만남에서 공동체까지	포럼 취지, 인본주의/만남, 대화, 관계,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는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정
제2차		사회 공동체(II)	배려와 정의	배려, 정의, 형평, 진실성	
제3차		자연 공동체(III)	생명: 존재의 시작	생명, 창조	
제4차	공동체의 발전(현재)	가정 공동체(II)	결혼과 출산	사랑(인격적 일치), 결혼, 출산, 불신, 이혼	
제5차		사회 공동체(II)	참여와 나눔	참여, 나눔, 공동선, 지구촌, 열린 공동체, 기아, 양극화	
제6차		자연 공동체(II)	존재와 성장	기후, 물, 자원, 고갈, 오염, 재해, 변화	
제7차	공동체와 책임(미래)	가정 공동체(III)	신뢰와 용서	용서, 화해, 존중, 신뢰, 인격, 헌신	
제8차		사회 공동체(III)	자유와 책임	자유의지, 의무, (공동)책임, 책무	
제9차		자연 공동체(III)	보존과 미래	보존, 평화, 책임 있는 공동체	

-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갖는 BWL Forum의 첫 번째 10년의 포럼방향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와 책임'이다.
-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시작 혹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정(제1차 포럼), 사회(제2차 포럼), 자연(제3차 포럼)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포럼이다.
- '공동체의 발전'은 제4차~제6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점, 현실 속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 '공동체와 책임'은 제7차~제9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포럼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책임 등을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주제어는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들로서, 주제(어)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다.

Themes of the Forum

3. The Themes of the First 10-year span BWL Forum (2011~2020) (Proposal)

- ◆ General Theme : Human Being and Community
- ◆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and Natural Communities

1) The 1st~9th BWL Forum

Year	Direction of Forum	Theme category	Topics	Related Keywords	Open Topics
1	Form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Family(I)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Purpose of the forum, humanism, meeting someone, dialogue, relationship and community	One of the pending international issues raised during the year of the forum
2		Social Communities(I)	Compassion and Justice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justice, fairness and truthfulness	
3		Natural Communities(I)	Life: Beginning of Beings	life, creation	
4	Development of Community (Present)	Family(II)	Marriage and Procreation	love (humanistic unity), marriage, procreation, distrust, and divorce	
5		Social Communities(II)	Participation and Sharing	participation, sharing, communal good, global community, open community, starvation and polarization	
6		Natural Communities(II)	Existence and Growth	climate, water, natural resources, exhaustion,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7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uture)	Family(III)	Trust and Forgiveness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pect, trust, personality, devotion	
8		Social Communities(III)	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 will, du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9		Natural Communities(III)	Conservation and Future	Conservation, peace, responsible community	

- The BWL Forum will take place under the general theme of "Human being and Community"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um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en years.
- The direc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rums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which will deal with the beginning or forming of a community. We will discuss how communities such as family (first year), social communities (second year), and natural communities (third year) are formed and what is needed to form a community.
- The direction for the fourth, fifth, and sixth forums will be "Development of Community." We will look into examples of today's family, society, and nature, and discuss th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se communities develop in reality.
- The direction for the seventh, eighth, and ninth forums will be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These three forums aim to envision the future of family, society, and nature. These forums will make concrete suggestions concerning the effort required and responsibility we have to create better communities in the future.
- Related keywords can be used to replace given topics. They are added to further explain the general direction set by each topic.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차 BWL Forum

- 제1차 BWL Forum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막 구성은 1차 포럼 이후 10차 포럼 때도 활용한다.

① 제1막

- 주제 : 가톨릭 인본주의
- 이덕호 신부, Jenkins 총장의 주제 강연
- 발표주제 1 : Bernard Lee의 인본주의 정신(이덕호 신부)
- 발표주제 2 : 가톨릭 휴머니즘과 가톨릭 대학(Jenkins 총장)

② 제2막

- 주제 :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 제1차 포럼의 주제인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에 대한 주제 강연

2) 제10차 BWL Forum

- 10차 포럼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일제 포럼의 경우, 오전 시간은 1막, 오후 시간은 2막이 될 수 있다.

- 제1막은 9차까지의 '제1차 10년 주기 포럼'을 총정리 하는 시간이다.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의 대주제를 개 관해 주는 시간이다.

(1) 제1막

- 주제 : 지구 공동체
- 관련 주제어 : 화해와 평화
- 이 부분의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주제는 '지구 공동체'이다. 주제에서 암시하는 대로, 10차 포럼에서는 9년간 살펴보았던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화해와 평화'는 하나의 가능한 주제어이다. 화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계층에서 서로 다른 신념, 가치, 이상,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화해는 이전 포럼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도 연관된다. 진실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에 '참여' 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나눔' 때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막

-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서막 역할을 한다.
- 이 시간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을 홍보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주제(어)는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이 확정된 후 정하도록 한다.

| Themes of the Forum

(1) The 1st BWL Forum

- The first BWL Forum will consist of two sessions. The tenth forum will also follow the two-session system.

① The First Session

- Theme : Catholic Humanism
- Speakers : Rev. Paul D. Lee, and Archbishop Paul S. Coakley
- Topic 1 : Bernard Lee's Humanism Spirit (Rev. Paul D. Lee)
- Topic 2 :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rchbishop Paul S. Coakley)

② The 2nd Session

- Theme :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 Keynote speech 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the theme of the 1st forum.

2) The Tenth BWL Forum

- The tenth forum will also consist of two sessions. If organized as a whole-day program, the first session will be held in the morning and the second session in the afternoon.

- The first session of the tenth forum will be devoted to summarizing the previous nine forum themes that were covered under the first 10-year cycle forum system. The second session will be devoted to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themes covered in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system.

(1) The First Session

- General theme: The Global Community
- Related Keywords: Reconciliation and Peace
- The general theme of the 10th BWL Forum will be "Global Community." As implied in the theme, the 10th forum aims to provide us with an integrative view of all the themes – "family," "society" and "nature" - discussed in the previous 9 years.
- "Reconciliation and Peace" is one possible keyword for the forum. Reconciliation is a practical path to peace. Only through genuine efforts of reconciliation amongst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different beliefs, different values, different ideals, different religions, and different ideologie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and amongst nations can we achieve real peace in this world.
- Furthermore, "reconciliation" is related to the themes of the previous foru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reconciliation, we must first "meet" and "participate in" dialogues. We must approach others with "thoughtfulness," "respect," and "trust." We must make efforts to "forgive" one another. We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in a free, but responsible, atmosphere by preserving what we are and sharing what we have.

(2) The Second Session

- The second session will serve as a prelude to the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session will also be devoted to articulating the themes of the upcoming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topics will be chosen when the schedule for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is decided upon.

제7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7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발행인 「제7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발행일 2017년 10월 12일

운영위원장 장 동 하 (학부대학장)

운영위원 신 승 환 (철학과)

이 상 훈 (국제교류처장)

윤 정 우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최 선 경 (학부대학 교수)

이 원 봉 (학부대학 교수)

최 창 규 (총무팀장)

서 정 민 (국제교류팀장)

원 천 우 (홍보팀장)

김 두 겸 (학부대학운영팀장)

권 이 선 (학부대학운영팀)

진 행 제7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디 자 인 양승주

제 작 한기획

문 의 제7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Tel. +82_2_2164_4930

BWL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BWL Catholic Humanism International Forum Committee
43 Jibong-ro, Bucheon-si, Gyeonggi-do, 14662, Korea.

Tel. +82_2_2164_4930

Fax. +82_2_2164_4768

Homepage. <http://bwl.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